

# 주요국 예산안 2015

2015. 2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홍승현 연구위원  
윤성주 부연구위원  
최승문 부연구위원  
한종석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김선미·한혜란·황보경 (총 톤)  
구윤모 (미 국)  
박신아 (캐나다)  
서주영 (일 본)  
하에스더 (프랑스)  
김은숙 (독 일)  
강민채 (영 국)  
김진아 (호 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1부 총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	3
1. 세계 거시경제전망 .....	3
가. 세계경제전망 .....	3
나.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	7
2. 세계재정전망 .....	1
가. 세계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1
나. 주요 국가별 재정전망 .....	41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	71
가. 통화정책 .....	17
나. 재정정책 .....	17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7개국 종합 - .....	0 2
1. 미국(FY2016: 2015. 10 ~ 2016. 9) .....	4 2
2. 캐나다(FY2014-15: 2014.4 ~ 2015.3) .....	7 2
3. 일본(FY2015: 2015.4 ~ 2016.3) .....	9 2
4. 프랑스(FY2015: 2015. 1 ~ 2015. 12) .....	2 3
5. 독일(FY2015: 2015.1 ~ 2015.12) .....	4 3
6. 영국(FY2015-16: 2015. 4 ~ 2016. 3) .....	6 3
7. 호주(FY2014-15: 2014. 7 ~ 2015. 6) .....	8 3

##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국	4
1. 경제 및 재정전망	74
가. 경제전망	47
나. 재정전망	48
2. 예산기조	5
3. 예산안 내용	3
가. 세입	5
나. 세출	5
4. 주요 재정정책	7
가. 재정건전화	7
나. 중산층 경제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8 5
다. 성장 잠재력 강화	9
II. 캐나다	6
1. 경제 및 재정전망	55
가. 경제전망	65
나. 재정전망	66
2. 예산기조(Budget 2014)	9 6
3. 예산안 내용	7
가. 세입	7
나. 세출	7
4. 주요 재정정책	7
가. 재정건전화	7
나.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	8 7
다. 기타	9

III. 일본 .....	8
1. 경제 및 재정전망 .....	8
가. 경제전망 .....	85
2. 예산기조 .....	8
3. 예산안 내용 .....	9
가. 세입 .....	9
나. 세출 .....	9
4. 주요 재정정책 .....	9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79
나. 재정건전화 .....	9
IV. 프랑스 .....	104
1. 경제 및 재정전망 .....	10
가. 경제전망 .....	10
나. 재정전망 .....	10
2. 예산기조 .....	12
3. 예산안 내용(PLF 2013) .....	41
가. 세입내역 .....	14
나. 세출내역 .....	15
4. 주요 재정정책 .....	19
가. 재정건전화 .....	19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0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2
V. 독일 .....	123
1. 경제 및 재정전망 .....	17
가. 경제전망 .....	17
나. 재정전망 .....	18

2. 예산기조 .....	131
3. 예산안 .....	134
가. 재정수입 .....	134
나. 재정지출 .....	135
4. 주요 재정정책 .....	138
가. 재정건전화 .....	138
나. 미래 지향적 투자 .....	140
다. 에너지 및 기후 기금(EKF; Energie- und Klimafonds) 정책 .....	141
VI. 영국 .....	142
1. 경제 및 재정전망 .....	145
가. 경제전망 .....	145
나. 재정전망 .....	146
2. 예산기조 .....	151
3. 예산안 내용 .....	152
가. 세입 .....	152
나. 세출 .....	156
4. 주요 재정정책 .....	160
가. 재정건전화 .....	160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161
VII. 호주 .....	163
1. 경제 및 재정전망 .....	167
가. 경제전망 .....	167
나. 재정전망 .....	169
2. FY2014-15 예산기조 .....	171
3. 예산안 내용 .....	173
가. 재정수입 .....	173
나. 재정지출 .....	176

4. 주요 재정정책 .....	10
가. 재정건전화 .....	10
나. 성장 정책 .....	13

# 표목차

## 1부 총론

<표 I-1> 세계경제전망 .....	3
<표 I-2> WEO 세계경제전망(GDP 성장률) .....	4
<표 I-3> 주요국의 경제전망 .....	8
<표 I-4> 국가별 재정지표 .....	0 1
<표 I-5> 주요국의 재정전망 .....	5 1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	0 2
<표 II-2> 2015 주요국 재정전망 .....	1 2
<표 II-3> 경제전망(역년 기준, Calendar years) .....	4 2
<표 II-4> 미국 재정전망 .....	5 2
<표 II-5> 캐나다 경제전망(2014년 11월 기준) .....	7 2
<표 II-6> 캐나다 재정전망(2014년 11월 기준) .....	7 2
<표 II-7> 일본 경제전망 .....	9 2
<표 II-8> 일본 주요 재정지표 .....	0 3
<표 II-9>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	2 3
<표 II-10> 경제전망 .....	4 3
<표 II-11> 재정전망 .....	4 3
<표 II-12> 영국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	6 3
<표 II-13>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	8 3
<표 II-1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	9 3

##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표 I-1>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	7	4
<표 I-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	8	4
<표 I-3> 미국 재정전망 .....	9	4
<표 I-4> 분야별 세입전망 .....	2	5
<표 I-5> FY2016 예산안 (기능별) 재정지출 규모 .....	4	5
<표 I-6> 항목별 (재량)지출 전망 .....	5	5
<표 I-7>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	6	5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4년 11월 기준) .....	6	6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4년 11월 기준) .....	7	6
<표 II-3> 2014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	8	6
<표 II-4> 세입전망 .....	2	7
<표 II-5> 프로그램 지출 전망 .....	4	7
<표 II-6> 추경예산 편성내역 .....	5	7
<표 II-7> 균형예산 달성계획(Plan to Return to Budget Balance) .....	7	7
<표 II-8> FY2014-15 시장채무(Market Debt) .....	7	7
<표 II-9>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예산 .....	9	7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	6	8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	7	8
<표 III-3> FY2015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	1	9
<표 III-4> FY2015 조세 및 인지도입 .....	2	9
<표 III-5> FY2015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	4	9
<표 IV-1> 프랑스 거시경제전망 .....	8	01
<표 IV-2> 프랑스 FY2015 예산안 .....	9	01

<표 IV-3> 재정지표 전망 .....	011
<표 IV-4> 2014~2019 재정수지 전망 .....	1·1 1
<표 IV-5> 2014년~2019년 부채비율 전망 .....	1·1 1
<표 IV-6> 부채비율 안정화 수지 .....	1·1 1
<표 IV-7> FY2015 세입전망 .....	5·1 1
<표 IV-8> 2015 미션별 세출 내역 .....	6·1 1
<표 IV-9> FY2014 2차 수정예산안 .....	8·1 1
<표 IV-10> 2015-17년 지출절감 프로그램 .....	0·2 1
<표 IV-11> 2012-2017 일자리 창출 계획 .....	1·2 1
<표 IV-12> 201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안 .....	2·2 1
<표 IV-13> 2014-2019 중장기 예산법안(LPFP)의 사회보장부문 전망 .....	2·2·2 1
<표 V-1> 경제전망 .....	721
<표 V-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	8·2 1
<표 V-3> 재정전망 .....	921
<표 V-4> 재정준칙과 이행상황 .....	0·3 1
<표 V-5> FY2015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	1·3 1
<표 V-6> FY2014 잠정결산 .....	3·3 1
<표 V-7> 항목별 재정수입 .....	431
<표 V-8> 부문별 재정지출 .....	631
<표 V-9> 기능별 재정지출 .....	731
<표 V-10>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4」 경제·재정전망 .....	9·3 1
<표 V-11>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	1·4 1
<표 VI-1> 영국 경제전망 .....	541
<표 VI-2>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	6·4 1
<표 VI-3> 3월 전망과 12월 가을보고서 공공부문순차입(PSNB) 차이 .....	8·4·1
<표 VI-4> 재정목표(Fiscal Mandate) 및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	0·5·1
<표 VI-5>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	2·5 1

<표 VI-6> 경상세입 전망 .....	451
<표 VI-7>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	7·5 1
<표 VI-8> 총관리지출 전망 .....	951
<표 VI-9>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	0·6 1
<표 VI-10> 장기 투자계획 .....	261
<표 VI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	8·6· 1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	0·7 1
<표 VII-3> FY2014-15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	3·7 1
<표 VII-4> FY2014-15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	4·7 1
<표 VII-5> FY2014-15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재정수입 비교 .....	5·7· 1
<표 VII-6> FY2014-15 예산안 재정지출 규모 .....	7·7 1
<표 VII-7>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	8·7 1
<표 VII-8> FY2014-15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비교 .....	8·7· 1
<표 VII-9> FY2014-15부터 FY2017-18까지 예산의 주요 지출 계획 .....	9·7· 1
<표 VII-10> 주요 예산절감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	2·8 1

# 그림목차

## 1부 총론

[그림 I-1] 국제 인플레이션 전망 .....	5
[그림 I-2] EU 실질GDP .....	6
[그림 I-3] EU HICP .....	6
[그림 I-4] 저인플레이션 지속의 연간 효과 .....	2 1
[그림 I-5] 저인플레이션 지속과 정부부채 규모 .....	2 1
[그림 I-6]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전망 .....	2 1
[그림 I-7]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와 정부부채 전망 .....	2 1
[그림 I-8] 미국, 일본, 유로존 국가의 재정상황 .....	3 1
[그림 I-9] EU의 재정수지 .....	4 1
[그림 I-10] EU의 수입 및 지출 .....	4 1

## 2부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대통령예산안의 GDP 대비 재정적자 감소 추이 및 전망 .....	8 5
[그림 II-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net debt) 비율(2014년 기준) .....	8 6
[그림 II-2]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 연방정부 .....	0 8
[그림 II-3]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 지방정부 .....	0 8
[그림 II-4] 재정갭 전망 결과 .....	0 8
[그림 IV-1] 2000-2019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	0 1 1

[그림 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	2·3 1
[그림 V-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	3·3 1
[그림 V-3] 기능별 재정지출 .....	7·3 1
[그림 VI-1] 공공부문 순채무(3월 예산안과 가을보고서 비교) .....	9·4 1
[그림 VI-2] FY2015-16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	6·5· 1
[그림 VI-3]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	8·5 1
[그림 VI-4] 재정적자 증감에 기여요소 .....	1·6 1
[그림 VII-1] 실질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8·6 1
[그림 VII-2]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	1·7 1
[그림 VII-3]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	1·7· 1
[그림 VII-4] FY2014-15 재정수입 구성 .....	4·7 1
[그림 VII-5] FY2014-15 재정지출 구성 .....	7·7 1



제 1 부  
총론



# I. 세계 재정정책 흐름<sup>1)</sup>

## 1. 세계 거시경제전망

### 가. 세계경제전망

- IMF, OECD, EU 등 주요 국제기구는 저유가와 미국경제의 회복세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경기 하방요인 또한 존재한다고 전망

<표 I-1> 세계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실질GDP(EU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미국	2.2	2.4	3.6	3.3	2.2	2.2	3.1	3.0	2.2	2.4	3.5	3.2
유로지역	-0.5	0.8	1.2	1.4	-0.4	0.8	1.1	1.7	-0.5	0.8	1.3	1.9
일본	1.6	0.1	0.6	0.8	1.5	0.4	0.8	1.0	1.6	0.4	1.3	1.3
중국	7.8	7.4	6.8	6.3	7.7	7.3	7.1	6.9	7.6	7.4	7.1	6.9
인도	5.0	5.8	6.3	6.5	5.0	5.4	6.6	6.8	4.7	6.0	6.6	7.1
세계	3.3	3.3	3.5	3.7	3.1	3.3	3.7	3.9	3.3	3.3	3.6	4.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5.

OECD,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4.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 Winter 2015*.

- (IMF 전망) 최근 유가 하락은 경제 성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나, 세계적 투자 감소 추세와 성장 둔화 우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지는 못할 전망
- (경제성장률) *WEO Update*(2015.1)에 따르면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3.5%(2014년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p 하향, 7월 전망 대비 0.5%p 하향 조정), 2016년은 3.7%로 전망

1) 본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4.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5.1), IMF, *Fiscal Monitor Update*(2014.10), OECD, *World Economic Outlook*(2014.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 Winter 2015*를 발췌한 것임

<표 I -2> WEO 세계경제전망(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2014 4월 WEO		2014 7월 WEO Update		2014 10월 WEO		2014 1월 WEO Update		
	'14	'15	'14	'15	'14	'15	'14	'15	'16
세계경제 <sup>1)</sup>	3.6	3.9	3.4	4.0	3.3	3.8	3.3	3.5	3.7
선진국	2.2	2.3	1.8	2.4	1.8	2.3	1.8	2.4	2.4
미국	2.8	3.0	1.7	3.0	2.2	3.1	2.4	3.6	3.3
유로존	1.2	1.5	1.1	1.5	0.8	1.3	0.8	1.2	1.4
일본	1.4	1.0	1.6	1.1	0.9	0.8	0.1	0.6	0.8
그 외 선진국 <sup>2)</sup>	3.0	3.2	3.0	3.2	2.9	3.1	2.4	3.0	3.2
신흥국 및 개도국 <sup>3)</sup>	4.9	5.3	4.6	5.2	4.4	5.0	4.4	4.3	4.7
아시아	6.7	6.8	6.4	6.7	6.5	6.6	6.5	6.4	6.2
중국	7.5	7.3	7.4	7.1	7.4	7.1	7.7	6.8	6.3
인도 <sup>4)</sup>	5.4	6.4	5.4	6.4	5.6	6.4	5.8	6.3	6.5
아세안-5 <sup>5)</sup>	4.9	5.4	4.6	5.6	4.7	5.4	4.5	5.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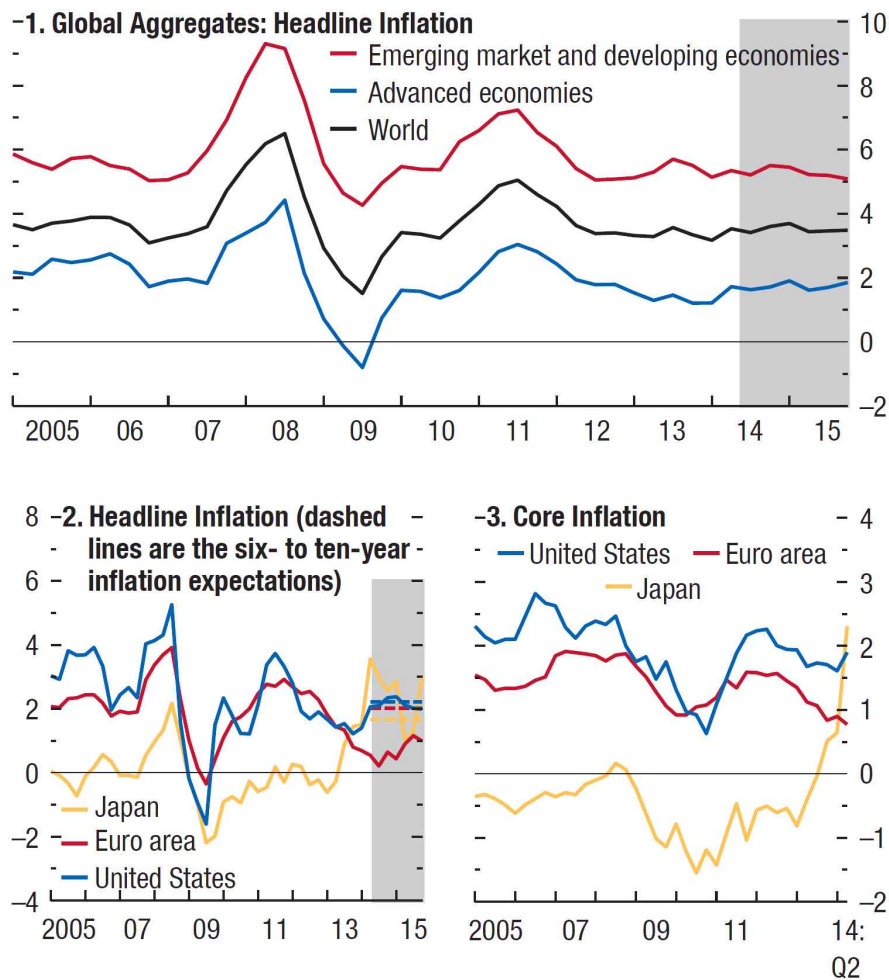
- 주: 1)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세계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비중의 90%를 설명  
 2) G7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와 유로지역 국가는 제외, 라트비아 포함  
 3)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신흥국의 약 80%를 설명  
 4)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이며 생산 증가율은 시장 가격의 GDP 기준  
 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4*, Update July 2014, October 2014, Update January 2015 편집

- (선진국)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6%p 상승한 2.4%(2014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승, 7월 전망과 동일), 2016년은 2.4%로 전망
- (신흥국) 2015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0.1%p 하락한 4.3%(2014년 10월 전망 대비 0.7%p 하락, 7월 전망 대비 0.9%p 하락), 2016년을 4.7%로 전망
- (인플레이션)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선진국(특히 일본, EURO)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신흥국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를 보일 전망
- (선진국) IMF *WEO*(2014.10)에서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8%로 전망했으나, 최근 디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면서 *WEO Update*(2015.1)에서는 전망치를 1%로 하향 조정

- (신흥국) IMF *WEO*(2014.10)에서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를 5.6%로 전망했으나, *WEO Update*(2015.1)에서 5.7%로 수정.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전망

[그림 I-1] 국제 인플레이션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4*, Figure 1.2.

- (실업률) 미국, EURO, 일본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5.9%, 11.2%, 3.7%로 전망. 러시아, 브라질은 경제 성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실업률 또한 각각 6.5%, 6.1%로 지난 전망치 대비 증가
- (주요 리스크) *WEO Update*(2015.1)에 따르면 국제유가 전망의 불확실성 확대, 러시아 경제위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자금유출 가능성, 선진국의 낮은 잠재성장률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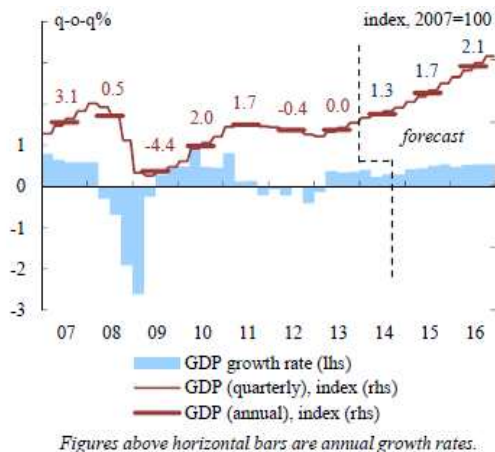
□ (OECD 전망) OECD *Economic Outlook*(2014.11)에 세계경제성장률은 '14년 3.3%, '15년 3.7%, '16년 3.9%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은 존재

- 세계경제는 확장적(accommodative) 통화정책, 금융 및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인해 완만하게 성장할 전망
  - 경제성장은 여전히 위기 이전에 못 미칠 것이며 국가별 성장세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유로존의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의 우려, 중국 등 신흥경제국들의 취약한 금융시장, 지정학적 긴장 강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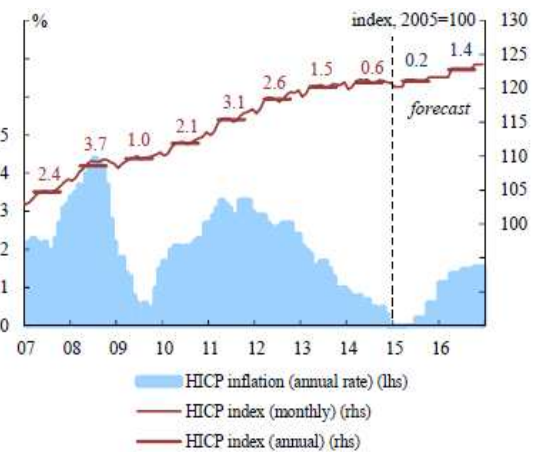
□ (EU 전망) 2015년 EU 및 유로지역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2016년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경제성장률)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3%, EU 회원국 1.7%로 전망
  - 대내외 수요 강화, 확장적 통화정책, 중립적 재정기조 등에 힘입어 2016년 GDP 성장률은 유로지역 1.9%, EU 회원국 2.1%로 전망

[그림 I -2] EU 실질GDP



[그림 I -3] EU HICP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15*, 2015.

- (물가상승률) 2015년 EU 국가들의 물가상승률은 0.2%, 2016년 1.4%로 예상
  -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5년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억제될 전망

- 경기 회복, 임금 상승, 유휴 경제력(economic slack) 감소 등으로 2015년 중반부터 2016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전망
- (실업률) 2015년 실업률은 EU 지역 9.8%, 유로지역 11.2%로 전망되며 진행 중인 노동시장 개혁이 2016년에는 성과를 거두어 실업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 (주요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 통화정책 차이와 관련한 금융시장 변동성, 구조개혁의 불완전한 이행,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 등 하방 리스크 심화
- 유가 하락의 영향,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EU의 투자 계획 등 새로운 긍정적인 요인들도 나타나고 있음

#### 나. 주요 국가별 경제전망

##### □ IMF의 주요국 경제전망(IMF, *WEO Update*, 2015.1)

- (미국)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전망치를 상향조정. 저유가 및 긴축재정의 완화로 인해, 2015년도 3.6%, 2016년도에는 3.3%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유로) 중립적 재정정책 기조, 유로화 약세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저조한 경기회복과 수출하락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지난 전망 대비 하향 조정
- (일본) 소비세 인상과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 등의 영향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월 전망 대비 0.2%p 하락한 0.6%로 전망
- (중국) 2014년 3분기부터 시작된 투자 부진과 대외수요 감소로 인해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월 전망 대비 0.3%p 하락한 6.8%로 전망
- (러시아) 급격한 유가하락과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해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월 전망 대비 3.5%p 하락하여 -3.0%로 전망
- (한국) 저조한 내수,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로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

##### □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4.11)

- (미국) 통화정책 지원, 재정위축(fiscal drag) 감소, 신뢰 향상, 민간부문 대차대조표 강화 등이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전망

- (유로지역)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긴축 완화, 유로화 실효환율 평가절하, 유가 하락 등이 경제에 도움은 되겠으나, '15년까지 회복 모멘텀을 다시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
- (일본) 4월 소비세 인상 후 경제활동이 감소하였으나,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상황 개선, 수출시장 경쟁력 강화 등으로 GDP 성장은 잠재산출 성장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
- (한국) 수출성장으로 인해 2015~16년 4% 성장이 전망되나, 높은 가계부채로 민간소비 성장이 한계적
  - EU(2011), 미국(2012), 캐나다(2014)와 호주(2014)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 증진으로 2014~15년 4%의 경제성장 전망
- (신흥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는 활발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 러시아 등의 국가는 Commodity price 하락, 정치적 불안정,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의 요인으로 '14년 1~3분기 경기가 침체
  - (중국) 재정확대 조치가 산출량의 성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GDP 성장률은 7%대로 과거에 비해 완만하게 유지될 전망

<표 I -3> 주요국의 경제전망

	2012	2013	2014	2015	201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미국 <sup>1)</sup>	-	16768.1 <sup>2)</sup>	2.2	3.1	3.0
일본 <sup>3)</sup>	-	478.1 <sup>4)</sup>	0.4	0.8	1.0
유로지역 <sup>1)</sup>	-	9861.2 <sup>5)</sup>	0.8	1.1	1.7
한국 <sup>6)</sup>	2.3	3.0	3.5	3.8	4.1
실업률(Unemployment rate) <sup>7)</sup>					
OECD	7.9	7.9	7.3	7.0	6.8
미국	8.1	7.4	6.2	5.6	5.3
일본	4.3	4.0	3.6	3.5	3.5
유로지역	11.2	11.9	11.4	11.1	10.8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미국	2.1	1.5	1.7	1.4	2.0
일본 <sup>8)</sup>	0.0	0.4	2.9	1.8	1.6
유로지역 <sup>9)</sup>	2.5	1.3	0.5	0.6	1.0
한국	2.2	1.3	1.4	2.2	2.5

주: 1)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11 prices)  
 2) Current prices, \$ billion

-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 (2005 prices)
- 4) Current prices, ₩ trillion
- 5) Current prices, € billion
- 6) Percentage changes, volume(2010 prices)
- 7)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 8)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seasonally adjusted quarterly indices for each year
- 9)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drink and tobacco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4*.

□ EU의 주요국 경제전망(*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15*)

- (미국) 유가 하락에 의한 경기 부양이 달러 강세의 부정적 영향보다 커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개선된 3.5%, 2016년은 3.2%로 전망
- (일본) 연기된 재정건전화,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강화, 유가 하락 등이 전년도 의 낮은 성장세를 상쇄해 2015년 성장률은 1.3%로 완만한 회복이 전망됨
- (중국)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7.1%로 상방 리스크(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및 수출 증가 등)와 하방 리스크(부동산 부분과 금융 안정화 관련)가 점차 균형을 이룰 전망
- (독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1.5%이나 탄탄한 노동시장, 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성장이 점차 강화될 전망
- (영국) 인플레이션이 더욱 하락하는 반면 내수 강세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2.6%로 전망
- (프랑스) 가계 소비에 힘입어 2015~2016년 경제성장은 서서히 모멘텀을 얻어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로 예상
-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이행을 전제로 2015년 경제성장률을 전년 대비 증가한 2.5%로 전망했으나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회복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

## 2. 세계재정전망

### 가. 세계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 (IMF 전망)<sup>2)</sup>

- (재정지표 전망) 2015년 세계의 종합수지적자는 GDP 대비 2.7%, 부채비율은 79.4%로 예상, 2014년 대비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
  - (선진국) 2015년 GDP 대비 0.5%p의 경기조정 재정수지의 개선이 예상되며, 특히 고부채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0.75~1%p)의 경기조정 재정수지 개선 전망
  - (신흥국)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2015년 경기조정수지적자는 3.2%, 국가부채비율은 40.7%로 전망

<표 I -4> 국가별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2011	2012	2013	2014(전망)	2015(전망)
<b>[재정수지(종합수지)]</b>					
세계	-4.3	-3.9	-3.2	-3.2	-2.7
선진국	-6.5	-5.8	-4.3	-3.9	-3.1
신흥국	-0.6	-0.7	-1.5	-2.5	-2.6
<b>[재정수지(경기조정수지)]</b>					
선진국	-5.5	-4.5	-3.4	-3.0	-2.5
신흥국	-3.0	-3.0	-3.4	-3.5	-3.2
<b>[국가 부채(총부채)]</b>					
세계	79.2	81.1	79.7	80.0	79.4
선진국	103.3	107.6	106.2	106.5	106.0
신흥국	39.7	39.7	39.9	40.4	40.7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4 October*, Table 1, 2. 재구성

- (재정 기초)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속도는 다소 완화될 전망, 신흥국 중 다수는 큰 변화 없이 중립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재정조정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착수하거나 재개

2) IMF의 *Fiscal Monitor*(2014.10)와 *WEO*(2014.10)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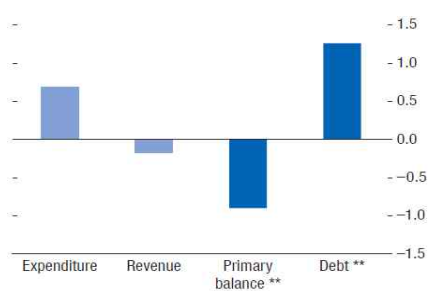
- (선진국) 선진국의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재정건전화정책과 함께 경쟁력·고용·장기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병행
- (신흥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모로코는 보조금 개혁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전략 채택. 러시아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삭감과 연방정부 수준의 재정준칙 도입
- (재정건전화 위협요인)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저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부채비용 상승 등을 지적
  - (저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저인플레이션 추세(특히 유로지역)는 부채부담 증가의 압력으로 작용
  - (지정학적 긴장) 동유럽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과 금융시장의 반응이 맞물리면서 파급효과가 확대될 가능성
  - (부채비용 상승) 미국의 이자율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국의 자본이탈 및 공공부채 비용 상승의 위험성이 증가

#### <참고 I -1> 유로지역의 저인플레이션과 부채<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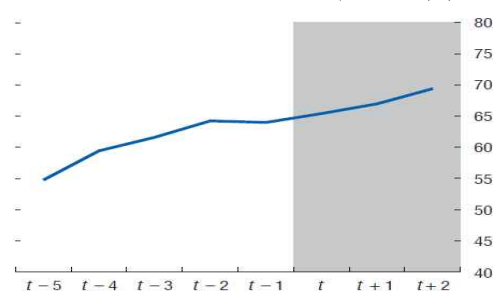
- 유로지역은 2013년부터 저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을 1% 이하) 상황.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부채의 감소가 어려워 질 수 있음
  - 첫째, 주조차익(seigniorage)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악화
  - 둘째, 부채동학(debt dynamics) 측면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증가
  - 셋째, 조세징수 시차(lag)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과세구간의 변동이 재정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재정지출의 반응속도 차이로 인하여 재정수지의 악화가능성이 존재
- 선진국에서 지난 100년간 1% 이하의 저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3년)된 경우는 단 4차례 ([그림 I -4] 참고)
  - 4가지 CASE를 분석한 결과, 부채는 연간 평균 GDP 대비 1.25% 증가

3) IMF의 *Fiscal Monitoring*(2014.10)의 일부 요약

[그림 I -4] 저인플레이션 지속의  
연간 효과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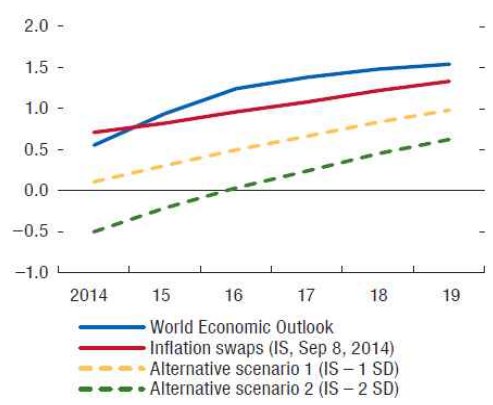
[그림 I -5] 저인플레이션 지속과  
정부부채 규모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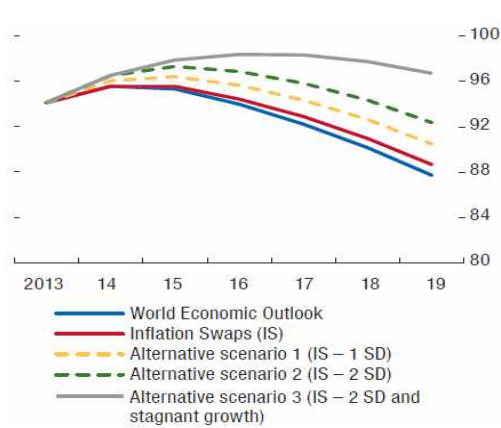
자료: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4*, Figure 1.1.1. & 1.1.2.

- Akitoby, Komatsuzaki, and Binder(2014)는 유로지역에서 저인플레이션이 부채비율에 끼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
  - 분석 결과, 초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채비율이 정점이 되는 시점이 기준선 전망 대비 1년 지연
  - 유로지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기준선 전망 대비 2019년 말경 5.75%p 증가할 전망
    - 부채동학으로 인한 효과: 기준선 전망 대비 4.75%p
    - 구조차익 감소로 인한 효과: 기준선 전망 대비 1%p

[그림 I -6]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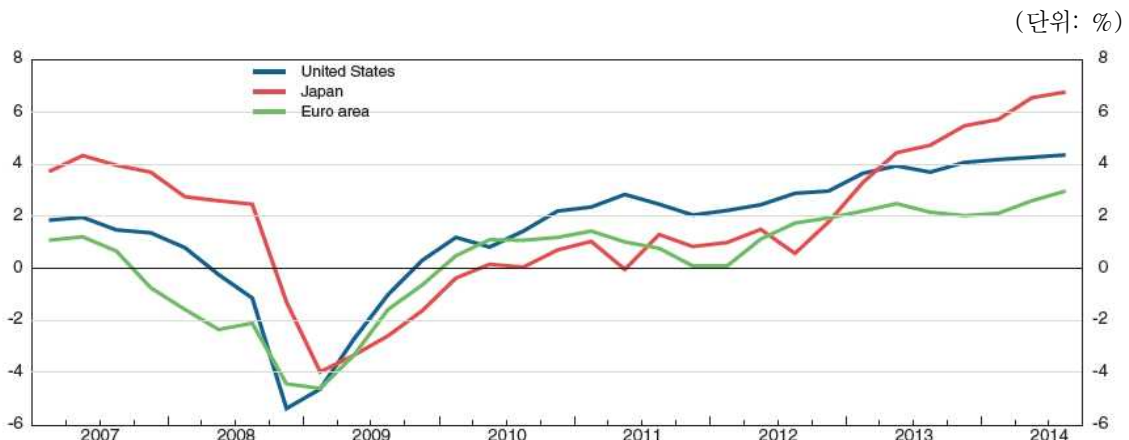
[그림 I -7]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와  
정부부채 전망  
(단위: GDP 대비 %)



주: IS=Inflation Swap, SD=Standard Deviation  
 자료: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4*, Figure 1.1.3.

- (OECD 전망) OECD의 *Economic Outlook*(2014.11)에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화완화정책과 채권시장에서 정책 개입의 시장기대로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장기명목금리 인하, 주가 인상, 신용 상태 완화를 밝힘
  - '14년 2, 3분기 재정상황지표(Financial Conditions Indices)를 보면 특히 일본과 유로지역 국가들이 확장적 재정상태로 나타남
  - '14년 3분기 일본과 유로지역은 실질 환율이 절하된 반면, 미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 절상

[그림 I-8] 미국, 일본, 유로존 국가의 재정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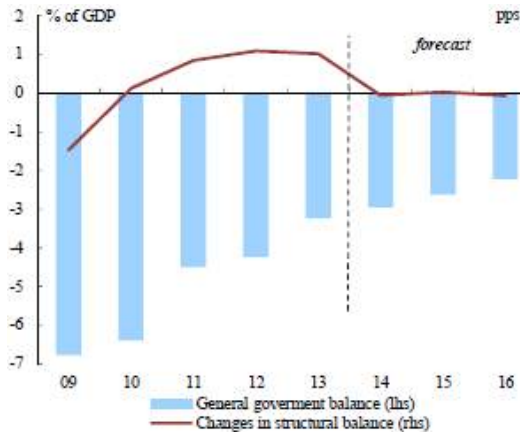
주: 지표의 증가는 확장적 재정상황, 감소는 긴축 재정상황을 의미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4*.

- (EU 전망<sup>4)</sup>) 일반정부 재정적자 감소는 계속되고 있으나 재정 기조는 현재 중립적임
  -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EU 회원국이 2015년 2.6%, 유로지역이 2.2%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
    - (수입) 2015년 GDP 대비 수입(revenue)이 EU는 다소 감소, 유로지역은 안정적인 전망
    - (지출) 공공임금 절감, 이자 지출 감소,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 관련 지출 감소 등으로 2015년 GDP 대비 정부 지출 감소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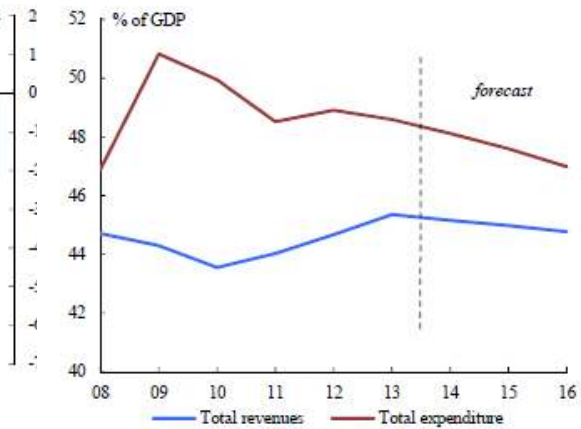
4) 자세한 내용은 EU의 *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15*와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14*를 참고

- (채무비율) EU 회원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88.4%)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88.3%로 감소, 유로지역은 2015년에 94.4%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전망

[그림 I -9] EU의 재정수지



[그림 I -10] EU의 수입 및 지출



자료: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 Winter 2015*, 2015.

#### 나. 주요 국가별 재정전망

##### □ IMF의 주요국 재정전망(*Fiscal Monitor*(2014.10) 및 *WEO*(2014.10))

- (미국) 실업수당 일부와 감가상각 충당금 지급의 만료 효과가 반영되어 2014년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전년 대비 0.8%p 개선), 2015년은 3.3%로 전망
- (일본) 2015년 재정리스크가 감소함에 따라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5%로 개선되고, 2단계 소비세 인상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부채비율 또한 안정화될 전망
- (영국) 2015년 GDP 대비 3.6%의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지출 축소를 중심으로 한 재정건전화 기조는 유지하되 공공투자는 확대할 전망
- (중국) 2015년 GDP 대비 0.5%의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높은 우발부채 비율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통제체계가 요구됨
- (그리스) 2015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1.2% 흑자로 전망,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지출 삭감을 단행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 OECD의 주요국 재정전망(OECD, *Economic Outlook*, 2014.11)

- (미국)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2014년 5%에서 2016년 4%로 감소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안정화될 전망
  - CBO는 2016년 이후 재정지출 압력이 다시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기적 재정정책은 보건지출 및 노령연금 관련 지출 압력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유로지역) 2014년에 유로지역 전역에서 재정건전화 속도가 현저하게 완화되었으며, 2015~2016년 재정건전화는 GDP의 0.25% 이하로 설정
  - 많은 국가에서 재정건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공채무 감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유지 및 자동안정화 장치의 온전한 작동이 필요
- (일본) 국가채무가 GDP 대비 230%를 초과하였으며, 성장 둔화로 인해 소비세 추가 인상을 연기하여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균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한국) 정부지출은 2014년 1.9%에서 2015년 5.7%까지 증가될 전망이며,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까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2014~2016년 동안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총채무는 GDP 대비 50%(중앙정부채무는 GDP 대비 20%)로 유지될 전망

<표 I -5> 주요국의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2012	2013	2014	2015	201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sup>1)</sup>					
OECD <sup>2)</sup>	-5.7	-4.3	-3.9	-3.4	-2.9
미국	-2.9	-2.4	-2.2	-1.7	-1.7
일본	-8.7	-9.0	-8.3	-7.3	-6.3
유로지역	-3.6	-2.9	-2.6	-2.3	-1.9
한국	1.0	-0.4	-0.6	-1.0	-0.7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sup>3)</sup>					
OECD <sup>4)</sup>	110.1	110.9	112.0	112.7	112.8
미국	110.5	109.2	109.7	110.1	110.0
일본	216.5	224.2	230.0	233.8	236.7
유로지역	105.1	107.2	108.2	108.4	108.5
한국	34.8	35.6	36.7	38.2	39.6

주: 1) As a percentage of GDP  
 2) Excludes Chile and Mexico  
 3) As a percentage of GDP at market value  
 4) Excludes Chile, Mexico and Turkey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4*.

□ EU의 주요국 재정전망(*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15*)

- (미국)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와 총 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해 각각 4.2%, 104.3%로 전망됨
  - 낮아진 적자수준은 점차 채무 수준 감소로 이어지며, 국가채무는 2014년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GDP의 104.4%까지 떨어질 전망
- (일본)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감소한 7.2%, 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한 249.0%로 전망됨
  - 2차 소득세 인상 연기, 단기 성장 부양을 위한 새로운 재정 패키지, 사회 보장 지출의 꾸준한 증가 등이 재정적자를 수반하여 2015년 기초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 (독일) 2015~2016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채무 비율은 2015년 71.9%, 2016년 68.6%로 감소할 전망
- (영국) 재정적자는 2015~16년 4.4%, 2016~17년 3.4%로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2016~17년까지 90.5%로 다소 증가할 전망
- (프랑스) 추가적인 지출 축소로 인해 2015년 재정적자는 4.1%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나 여전히 높은 재정적자와 상대적으로 완만한 명목 GDP 성장으로 2015년 GDP 대비 채무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
-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기초수지 목표를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1%, 2016년은 1.6%로 개선될 전망
  -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경제 성장이 계속된다면 채무비율은 2015년 GDP의 170.2%, 2016년 159.2%로 점차 감소할 전망

###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

#### 가. 통화정책

- OECD, *Economic Outlook*(2014.11)에 따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OECD 국가는 수용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통화정책의 조절 및 유지가 필요
  - (미국) 지속되고 있는 하방위험 등으로 인해 정책금리는 서서히 정상화되어야 하고, 금리정책은 미국달러의 강세 등 금융여건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음
    - '14.10월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종료에 따라, '15년 하반기 연방준비은행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유로지역)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비전통적 조치들이 요구되며, 이는 경제지원과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임
    -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화정책 개선을 위해 은행 대차대조표의 회복완료가 중요함
  - (일본) 양적·질적완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통화정책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에 근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신흥국) 브라질, 인도 등은 완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
    - (중국) 향후 2년간의 금리 규제완화는 금융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로 성장 및 온건한 인플레이션을 지지할 것
      - 중국인민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재정정책

- OECD, *Economic Outlook*(2014.11)에 따르면, 재정건전화의 전반적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 요구되는 재정정책은 상이함
  - (미국) 긴축적 재정정책과 수용적 통화정책의 정책혼합이 변화하면서, 향후 2년간 중립에 가까운 재정기조와 함께 재정건전화의 완화 예상

- 공공부채를 낮추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압박을 대비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매년 GDP 대비 0.25~0.5% 정도의 재정개선이 필요함
  - 경기부양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지출은 충분한 자금 확보를 통해 촉진되어야 함
  - (유로지역) 그동안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재정수지가 상당히 개선되어 향후 2년간 소규모의 재정조정(GDP의 0.25% 이하로 설정)이 예상되나, 국가별 재정기조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의 재정조정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GDP 대비 0.5% 정도의 재정건전화를 계획하고 있음
    - 벨기에에는 GDP 대비 1% 미만, 스페인은 1% 이상의 재정건전화를 계획
  - (일본)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면서 재정적자 수준을 '13년 GDP 대비 6.2%에서 '15년 3.3%로 낮추겠다는 목표와 '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하고자 했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
    - 국가채무가 GDP 대비 230%를 초과하면서, FY2020 기초재정수지 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 재정건전화 조치(특히 노령인구 관련)가 필요
  -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순환적 경기약세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마련이 요구됨
    - (중국) 대규모 경기부양을 배제하고 전반적으로 중립적 재정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이 전망치보다 낮을 경우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음
      - 최근 정부당국은 인프라 및 공공주택 투자를 포함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채택
      - 2014.8월 예산법 개정으로 지방정부도 채무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만기 불일치와 금융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IMF의 *Fiscal Monitor*(2014.10)와 *WEO*(2014.10)에 따르면, 선진국은 긴축피로를 완화할 수 있는 성장 및 고용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신흥국은 장기적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할 필요

- (선진국) 저인플레이션과 긴축피로를 완화할 수 있는 성장 및 고용 창출 정책이 필요하며, 대규모의 연금 및 의료비용 증가가 예상된 고부채국은 신뢰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요구됨
- (신흥국) 재정수입의 대상 및 경로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예산외지출과 우발부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체계를 마련할 필요

##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 - 7개국 종합 -

- '각국 예산안 분석'에서는 주요 7개국 -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 의 2014 또는 2015년 예산안을 분석
  - 예산주기의 차이로 인해 캐나다, 호주는 2014년 상반기에 발표한 FY2014-15 예산안을 분석
    - 경제·재정전망의 경우 2014년 가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를 활용
    - 따라서 캐나다, 호주의 경우 2015년 2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정부의 입장이 FY2014-15 예산안 내용과는 다를 수 있음
  - 영국은 사전예산안(Pre-budget)을 대체한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를 기준으로 분석
    - 예산안은 통상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3월 말에 발표되지만, 예산안 발표 3~4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정부정책을 담은 가을보고서를 발표
  - 미국은 FY2016 대통령 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

<표 II-1> 각국 예산안 일정

국가	예산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시기
미국	FY2016	2015.10 ~ 2016.9	2015.02.02
캐나다 <sup>1)</sup>	FY2014-15	2014.4 - 2015.3	2014.02.11
일본	FY2015	2015.4 - 2016.3	2015.01.14
프랑스	FY2015	2015.1 - 2015.12	2014.10.01
독일	FY2015	2015.1 - 2015.12	2014.07.02
영국	FY2015-16	2015.4 - 2016.3	2014.12.03(가을보고서)
호주	FY2014-15	2014.7 - 2015.6	2014.05.13

주: 1) 캐나다는 2014년에 발표한 FY2014-15 예산안을 위주로 분석하였음

□ IMF, *Fiscal Monitor*(2014.10)에 따르면, 2015년 재정 상황은 201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

- (선진국) 2015년 GDP 대비 0.5%p의 경기조정 재정수지의 개선이 예상되며, 특히 고부채국의 경우 상당한 수준(0.75~1%p)의 경기조정 재정수지 개선 전망
- (신흥국)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2015년 경기조정수지적자는 3.2%, 국가부채비율은 40.7%로 전망

<표 II-2> 2015 주요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국가	재정수지 <sup>1)</sup>		국가채무 <sup>2)</sup>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미국	-5.5	-4.3	105.6	105.1
캐나다	-2.6	-2.1	88.1	86.8
일본	-7.1	-5.8	245.1	245.5
프랑스	-4.4	-4.3	95.2	97.7
독일	0.3	0.2	75.5	72.5
영국	-5.3	-4.1	92.0	93.1
호주	-3.3	-1.8	30.6	30.7

주: 1) General Government Overall Balance

2)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자료: IMF, *Fiscal Monitor*, 2014.10

□ 국가별 개요

- (미국) 오바마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중산층 지원’과 기업 및 부유층 증세 확충을 바탕으로 근로가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 교육·훈련 기회 보장 등을 핵심골자로 편성
  - ① 보건·의료, ② 조세, ③ 이민 정책 등 3대 개혁과제를 필두로 향후 10년간 1.8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재정지속가능성 달성
  - 세제허점(tax loopholes) 차단과 지출효율화를 통해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 종료 및 중산층 경제지원에 집중
- (캐나다)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장기적 번영(Jobs, Growth, Long-term Prosperity)」을 주제로, 노동시장 진입 지원,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 자원개발, 캐나다 자연유산 보존, 인프라 및 교통에 투자,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 균형예산달성(Return to Balanced Budgets)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국내외 채무관리를 위한 FY2013-14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수립
- 향후 6년간 노동시장 진입지원,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 자원개발, 자연유산 보존, 인프라와 교통 투자 등에 58억캐나다달러 지원 예정
- (일본) 2015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도 예산에 이어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
  -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개발, 경쟁력 강화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일본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세출 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 (프랑스) 내수부문과 대외무역의 호조로 경제활동이 회복되어 GDP 성장률의 상승이 전망되며, 증세 없이 지출감축에 주력하는 재정건전화 시행과 동시에 성장·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 계획
  - 2015~17년 500억유로의 지출절감 프로그램 추진
  -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 구매력, 건설 및 주택, 에너지전환, 해외영토의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세제혜택 확대와 교육 분야, 사법 및 치안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정책을 시행할 계획
- (독일) 지속가능한 재정균형 달성과 미래를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의 지속을 예산기조로 하는 2,995억유로 규모의 균형예산을 편성
  -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금융거래세 도입 지지, 에너지세 지침 조정 등의 조세정책을 실시
  -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직업교육 및 훈련, 빈곤층 영·유아 지원, 첨단기술연구 등을 강화하고 철도, 간선도로, 수로 등에 대한 ‘교통 인프라 기본계획(BVWP)’을 수립하여 미래 교통에 대처
- (영국) 재정지속가능성과 생산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으며,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15-16에 4.0%로 감소하고, FY2018-19에 -0.2%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② 경제성장(Growth), 그리고 ③ 공정성(Fairness)을 예산 기조로 함

-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 공공서비스 연금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 2015~21년 동안 총 364억파운드의 장기 자본투자 계획을 실행할 예정
- (호주) FY2014-15 예산안은 FY2024-25 GDP 대비 1%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향후 4년간 438억호주달러 절감 계획
  - 예산적자 감축 및 FY2024-25 GDP 대비 1% 흑자 전환 달성을 위한 긴축정책 발표
  - 인프라 성장 패키지 지원, 대학교육 개혁, 노동시장 참여지원, 의료연구미래펀드 설립, 규제 감축 등 성장정책 실시

## 1. 미국(FY2016: 2015. 10 ~ 2016. 9)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 미국은 지난 1년간('14) 견고한 경기 회복세를 보였고, 실업률은 지속적인 하락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상태이긴 하나 '15년에는 5.4%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15년 실질성장률은 3.1%, 전년도(추정치) 대비 약 1%p 증가한 3.1% 성장을 전망
  - 실업률은 5.4%( '15) → 5% 미만('17~'18)까지 하락 후, '19년에 5% 수준으로 재상승
- (재정) '성장과 기회의 제공'이란 비전하에 정부 재정안정 목표를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하로 설정
  - FY2016 재정적자 규모는 4,740억달러로 전 회계연도(FY2015: 3.2%) GDP 대비 0.7%p 감소한 2.5%로 전망
  - 국가채무는 FY2015에 GDP 대비 최고점(75.1%)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5년에는 73.3%까지 감소할 전망

<표 II-3> 경제전망(역년 기준, Calendar years)

(단위: %)

경제전망	실적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 <sup>1)</sup>	2.2	2.2	3.1	3.0	2.8	2.6	2.4	2.3	2.3	2.3	2.3	2.3	2.3
실업률 <sup>2)</sup>	7.4	6.2	5.4	5.1	4.9	4.9	5.0	5.1	5.2	5.2	5.2	5.2	5.2
CPI-U <sup>1)</sup>	1.5	1.7	1.4	1.9	2.1	2.2	2.3	2.3	2.3	2.3	2.3	2.3	2.3
국채 91일물 <sup>3)</sup>	0.1	*	0.4	1.5	2.4	2.9	3.2	3.3	3.4	3.4	3.5	3.5	3.5
국채 10년물	2.4	2.6	2.8	3.3	3.7	4.0	4.3	4.5	4.5	4.5	4.5	4.5	4.5

주: 1. \* 0.05 percent or less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표 II-4> 미국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총량 (십억달러)												
수입	3,021	3,176	3,525	3,755	3,944	4,135	4,332	4,525	4,746	4,986	5,236	5,478
지출	3,506	3,759	3,999	4,218	4,423	4,653	4,886	5,126	5,372	5,621	5,875	6,165
재정적자	485	583	474	463	479	518	554	600	626	635	639	687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2,780	13,506	14,108	14,705	15,315	15,959	16,635	17,349	18,085	18,830	19,577	20,371
예산총량 (GDP 대비 %)												
수입	17.5	17.7	18.7	19.1	19.1	19.2	19.3	19.3	19.4	19.5	19.6	19.7
지출	20.3	20.9	21.3	21.4	21.5	21.6	21.7	21.9	21.9	22.0	22.0	22.2
재정적자	2.8	3.2	2.5	2.3	2.3	2.4	2.5	2.6	2.6	2.5	2.4	2.5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4.1	75.1	75.0	74.6	74.3	74.1	74.0	74.0	73.9	73.7	73.5	73.3

자료: Fiscal Year 201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 (예산기조) 오바마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중산층 지원’과 기업 및 부유층 증세 확충을 바탕으로 근로가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 교육·훈련 기회 보장 등을 핵심골자로 편성

- ① 보건·의료, ② 조세, ③ 이민 정책 등 3대 개혁과제를 필두로 향후 10년간 1.8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여 재정지속가능성 달성
- 세제허점(tax loopholes) 차단과 지출효율화를 통해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 종료 및 중산층 경제지원에 집중

□ 예산안 내용(세입·세출 내역)

- (세입) FY2016 예산안의 재정수입은 전년(FY) 대비 10.9% 증가한 3조 5,250억달러
- (세출) FY2016 예산안의 재정지출은 전년(FY) 대비 6.4% 증가한 3조 9,990억달러

---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3대 개혁과제(① 보건·의료, ② 조세, ③ 이민 정책) 추진
  - 세제허점 개선 및 세금회피 차단
  - 이민종합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동력 마련 및 사회보장정책 공고화
  -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구조적 조정 등을 통한 보건·의료비용 절감
- (중산층 경제안정) 중산층 경제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통해 성장 사다리 마련
  - 2년제 전문대학 수업료 무료 추진
  - 중·저소득(low and moderate income) 가구의 만 4세의 모든 아동들이 프리스쿨(preschool)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성장잠재력 지원) 장기적 경제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및 사회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동력 창출 등

2. 캐나다(FY2014-15: 2014.4 ~ 2015.3)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4년 11월 기준,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2.6%, 실업률은 6.8%로 전망
- (재정전망)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이후 재정수지는 균형 달성될 것으로 전망

<표 II-5> 캐나다 경제전망(2014년 11월 기준)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2018
실질GDP 성장률	2.4	2.6	2.4	2.3	2.2	2.1	2.4
실업률	7.0	6.8	6.5	6.4	6.3	6.3	6.6
CPI 상승률	2.0	1.9	2.0	2.0	2.0	2.0	2.0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Table 2.1 일부 발췌

<표 II-6> 캐나다 재정전망(2014년 11월 기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총세입	271.7	277.6	294.5	307.6	318.6	332.8	347.9
총지출	276.8	280.5	292.6	303.3	313.6	326.1	334.8
재정수지	△5.2	△2.9	1.9	4.3	5.1	6.8	13.1
연방채무	611.9	615.8	613.9	609.5	604.4	597.6	584.5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Table 3.3 일부 발췌

□ 2014년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4-15 총세입은 2,763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약 0.2%p 증가될 전망
- (세출) FY2014-15 프로그램지출은 2,502억캐나다달러이며, GDP 대비 프로그램 지출의 비중이 FY2012-13에 13.5%에서 FY2018-19에 12.4%로 하락할 전망 - FY2014-15 이자지출은 290억캐나다달러로 FY2013-14 대비 3억캐나다달러 감소할 전망

---

□ 재정건전화

- Economic Action Plan 2014에서는 Economic Action Plan 2013과 동일하게 균형예산달성(Return to Balanced Budgets)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
  - 정부의 효율성 및 세금 제도의 공정성, 조세 준수 강화를 강조
  - 공무원에 대한 각종 급여의 합리화 및 비용 부담 관리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직접프로그램 지출을 관리
- 국내외 채무관리를 위한 FY2013-14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수립

□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

- 향후 6년간 노동시장 진입지원,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 자원개발, 자연유산 보존, 인프라와 교통 투자 등에 58억캐나다달러 지원 예정
  - 노동시장 진입지원 및 강화를 위해 취업보조금(Canada Job Grant)을 지원, 고령층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3년간 7,500만캐나다달러,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에 2년간 약 1,200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요율 동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

3. 일본(FY2015: 2015.4 ~ 2016.3)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5년도 일본경제는 긴급경제대책 등 정책 추진과 고용 및 소득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교역조건 개선 등 경기 회복 전망
  - 일본 정부는 2015년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전년 대비 1.5%, 명목성장률은 전년 대비 2.7%로 전망
- 주요기관에서는 소비세 인상과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 등의 영향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력 및 잠재 성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전망
  - 일본 중앙은행(BOJ) 2.1%, 국제통화기금(IMF) 0.6%, 세계은행(WB)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0.8%
- 2015년도 완전실업률<sup>5)</sup>은 여성의 고용참여 확대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한 3.5%를 기록할 전망
- 2015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사회보장기금 제외)은 약 6.6%를 기록할 전망
- 2015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233.8%로 전망되어 해마다 크게 증가

<표 II-7> 일본 경제전망

(단위: 조엔, %)

구분	2013	2014	2015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3		2014		2015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83.1	491.4	504.9	1.8	2.1	1.7	△0.5	2.7	1.5
완전실업률	3.9	3.6	3.5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5.1.12.

5) 완전실업률은 노동력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합계)에서 완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완전실업자는 직업이 없으나 직업이 생기면 바로 취업 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표 II-8> 일본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sup>1)</sup>	△8.6	△8.3	△8.4	△7.7	△6.6
재정수지 <sup>2)</sup>	△9.5	△9.0	△9.1	△8.3	△7.3
국채 비율	209.5	216.5	224.2	230.0	233.8
국채의존도 <sup>3)</sup>	47.9	47.6	46.3	43.0	38.3

주: 1) OECD, *Economic Outlook 96*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OECD, *Economic Outlook 96*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3)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平成27年度予算政府案」, 2015.1.14.

□ 예산기조: 2015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도 예산에 이어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

- i)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
- ii)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 iii) 부흥대책
- iv)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 예산안 내용

- FY2015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4,596억엔(0.5%) 증가한 96조 3,420억엔 수준
- FY2015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96조 3,420억엔으로 편성
  -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FY2014 추경예산과 FY2015 세제개정과 함께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실현을 추구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15년도 예산의 중점정책(2015.1.14.)
    - 2015년도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지방경제활성화 및 혁신개발, 경쟁력 강화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마을·사람·일자리 만들기, 여성의 활약추진, 교육재생, 혁신개발, 경쟁력 강화, 개방적인 나라만들기 등

○ 재정건전화

- 세출 분야의 효율화(2015.1.14.)

- FY2015 예산안에서는 일본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세출 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 검토분야

- i) 개호보수

- ii) 생활보호의 재검토

- iii) 지방교부세, 의무교육비 국고보조금, 대학개혁

- 「FY2015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의」(2014.12.25.)

- (재정 현황과 문제점) 사회보장 및 지역행정서비스를 누리는 현 세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재정악화의 요인

- (재정건전화의 기본방침)

- i) 정부는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에 대해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필요

- ii)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iii) 사회보장 이외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행정서비스 재검토와 세출효율화를 통해 세출을 최대한 억제

#### 4. 프랑스(FY2015: 2015. 1 ~ 2015. 12)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5년은 2014년보다 경제활동이 회복되어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1%로 전망되며, 이후 2016년은 1.7%, 2017년은 1.85%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재정적자 3% 달성을 2017년으로 계획하여 재정적자는 2015년 GDP 대비 4.3%에서 2016년 3.8%, 2017년 GDP 대비 2.8%로 감소할 전망
-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GDP 대비 97.2%에서 2016년 98.0%의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를 이어가 2019년 92.9%를 기록할 전망

<표 II-9> 프랑스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단위: %, GDP 대비 %)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실질GDP 성장률	0.4	1.0	1.7	1.9		
소비자물가지수	0.5	0.9	1.4	1.8		

재정전망(GDP 대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조적 재정수지	-2.4	-2.2	-1.9	-1.4	-0.9	-0.4
재정수지	-4.4	-4.3	-3.8	-2.8	-1.8	-0.8
국가채무 <sup>1)</sup>	95.3	97.2	98.0	97.3	95.6	92.9
국가채무 <sup>2)</sup>	92.1	94.0	94.9	94.4	92.7	90.2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포함(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제외

자료: PLF 2015

LPPF 2014-2019

##### □ 예산기조

-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재정지출관리 프로그램으로 2015-17년간 500억유로의 지출절감을 계획

- 지출감축을 통해 마련한 500억유로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인 고용과 투자, 청년과 교육, 가계 구매력 강화와 불평등 감소, 건설 및 주택마련의 4가지 부문에 투입할 예정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5년 재정수입은 2014년 수정전망 대비 1.8% 증가한 2,926억유로로 전망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2.1%(56억유로) 증가한 2,789억유로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4억유로) 감소한 137억유로로 전망
- (세출) 2015년 재정지출은 3,679억유로로 2014년 수정전망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지출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30개의 미선별 지출 중 20개 분야가 전년 대비 감소되거나 동결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15~17년 500억유로의 지출절감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210억유로, 2016~17년에 연간 145억유로씩 290억유로를 감축할 계획
  - 중앙정부에서 2015년 77억유로, 2015~17년 190억유로, 지방정부에서 2015~17년 동안 연간 37억유로씩 총 110억유로, 사회보장부문은 2015년 96억유로, 2015~17년 200억유로의 지출절감 계획
- (경제성장)
  -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가계 구매력, 건설 및 주택, 에너지전환, 해외영토의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경제성장정책을 시행할 계획
  -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 분야에 총 10,561개, 사법 및 치안 분야에 총 1,04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정
- (사회보장) 2015년 사회복지기관 관리 5억유로, 가족수당 7억유로 등 56억유로의 지출절감을 통해 재정적자 목표 134억유로를 달성할 계획

## 5. 독일(FY2015: 2015.1 ~ 2015.12)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연방은행의 '14.12월 발표에 따르면, '15년 경제성장률은 1.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 실업률은 6.7%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 전망
- (재정전망) FY2014-18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5년 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 모두 균형, 부채는 GDP 대비 72.5% 수준으로 낙관적으로 전망

<표 II-10> 경제전망

(단위: %)

	2013	2014	2015	2016
실질 GDP 성장률	0.1	1.4	1.0	1.6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1.6	0.9	1.1	1.8
실업률	6.9	6.7	6.7	6.7

자료: 연방은행, *Monatsbericht Dezember 2014*, 2014.12.

<표 II-11>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수지	-0.1	0	0	0	0	0
구조적 재정수지	-0.1	-0.1	0	0	0	0
국가부채 <sup>1)</sup>	78.4	75.5	72.5	69.5	67	65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자료: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4 bis 2018*, 2014.7.

### □ 예산기조: 지속가능한 재정균형 달성과 미래를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의 지속

- 신규차입 규모 0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 재정균형을 지속하며, 향후 10년 내 국가 부채 규모를 GDP 대비 60% 이하로 달성
- 교육·연구 분야와 운송·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지출을 강화

□ 예산안 내용

- (수입) '14년 대비 3.3% 증가한 2,995억유로 편성, 특히 조세수입에 있어 강한 경제 성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지출) '14년 대비 1% 증가한 2,995억유로 편성, 특히 미래를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 강화로 교육연구부 예산이 '14년 대비 8.6% 증가
  - (경제에너지부) 71억유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성장, 혁신,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 중산층 지원, 에너지 정책 등을 시행
  - (노동사회부) 기초사회보장,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주거 및 난방 보조 등을 위해 '14년 대비 2.3% 증가한 1,248억유로 편성
  - (교통인프라부) 231억유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약 55%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투자지출 중 최대 규모 기록
  - (국방부) 군수품 조달(44억유로), 국제안보지원군 ISAF\* 미션 수행 등을 위해 323억유로 규모의 예산 편성
    -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 및 발전을 맡은 군대
  - (보건부) 건강보험 관련 예산의 증가로 '14년 대비 9.1% 증가한 121억유로 규모의 예산 편성
  - (환경부) 39억유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환경 및 기후 변화, 국제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정책에 집중 배정(2.6억유로)
  - (교육연구부) 교육·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14년 대비 8.6% 증가한 153억유로 규모의 예산 편성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금융거래세 도입 지지, 에너지세 지침 조정 등의 조세정책을 실시
- (미래 지향적 투자)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직업교육 및 훈련, 빈곤층 영·유아 지원, 첨단기술연구 등을 강화하고 철도, 간선도로, 수로 등에 대한 '교통 인프라 기본 계획(BVWP)'을 수립하여 미래 교통에 대처
-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정책) 16.8억유로의 기금을 조성, CO<sub>2</sub> 저감 건물 보수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6. 영국(FY2015-16: 2015. 4 ~ 2016. 3)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2015년 2.4%, 2016년 2.2%로 전망되고, 대외수요와 소비 약세로 3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이 2015년 동안 쇠퇴할 전망
- (재정수지) FY2015-16 공공부문 순차입은 GDP 대비 4.0%(전년 대비 1%p 감소)로 전망되고, FY2016-17에 2.1%, FY2018-19에 -0.2%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15-16에 81.1%(전년 대비 0.7%p 증가)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II-12> 영국 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단위: %)

경제전망	실적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14. 3 예산안 기준)	1.7 (1.8)	3.0 (2.7)	2.4 (2.3)	2.2 (2.6)	2.4 (2.6)	2.3 (2.5)	2.3 (-)
실업률(ILO)	7.6	6.2	5.4	5.2	5.3	5.3	5.3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공부문 순차입	5.6 (5.8)	5.0 (4.9)	4.0 (3.8)	2.1 (2.2)	0.7 (0.9)	-0.2 (-0.1)	-1.0 (-)
공공부문 순채무	78.8 (77.9)	80.4 (80.2)	81.1 (81.6)	80.7 (80.9)	78.8 (78.9)	76.2 (76.3)	72.8 (-)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

### □ 예산기조: 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② 경제성장(Growth), 그리고 ③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재정지속가능성) FY2017-18까지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100억파운드 절약 등의 재정긴축 시행
- (경제성장) 사회기반시설(도로, 홍수방지시설, 과학단지조성) 투자, 고속열 인력양성·고용 지원, 북부 Powerhouse 조성
- (공정성) 개인 소득공제 금액을 100파운드 인상하고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정책수행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15-16 경상세입은 GDP 대비 35.5%로 전년과 동일
  - 3월 전망 대비 149억파운드 감소한 6,703억파운드로 예측되고 감소는 주로 개인 소득공제 금액 상향, 주택구입 취득세 개정과 관련
- (지출) FY2015-16 총관리지출(TME)은 GDP 대비 39.5%로 전년 대비 1%p 감소
  - 채무 이자지출 감소 등으로 3월 전망 대비 72억파운드 감소한 7,462억파운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FY2014-15에 1,050억파운드, FY2015-16에 1,22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추진할 계획
  - FY2015-16에 공공서비스 연금 개정으로 연간관리지출(AME)을 335백만파운드 감축할 예정
  - 진행되어온 공공부문 임금 억제로 FY2014-15까지 120억파운드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
  - 충분히 이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토지를 15만 가구에게 제공
- (경제성장)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 2015~21년 동안 총 364억파운드의 장기 자본투자 계획을 실행할 예정
  - 도로 개선에 총 150억파운드 가량의 투자를 할 예정
  - 과학기반시설에 총 69억파운드 가량의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
  - 홍수 방지 및 홍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6년간 23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

## 7. 호주(FY2014-15: 2014. 7 ~ 2015. 6)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실업률과 물가 또한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FY2014-15 실질GDP 성장률은 2.5%,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실업률은 6.25%, 소비자물가지수는 2.25%로 전망(Budget 기준)
- (재정전망) FY2014-15 예산안(Budget)에서는 예산수지 및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FY2017-18 재정수지 흑자 전환 기대

<표 II-13>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sup>1)</sup> 전망

(단위: %)

	예측(Forecasts)					전망(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실질GDP 성장률	2.75	2.5	2.5	3	3	3.5	3.5	3.5	3.5
고용률	0.75	1.5	1	1.5	1.75	2.25	2	2	2.25
실업률	6	6.25	6.5	6.25	6.5	6	6	5.75	5.75
소비자물가지수	3.25	2.25	2.5	2.5	2.5	2.5	2.5	2.5	2.5
명목GDP 성장률	4	3	1.5	4.75	4.5	5	5.25	5	5.25

주: 1) 실질GDP 성장률과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표 II-1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Budget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sup>1)</sup>	3,743	3,913	3,859	4,196	4,117	4,498	4,410	4,804	4,732
GDP 대비 비율	23.6	24.0	24.0	24.5	24.5	25.1	25.0	25.5	25.5
재정지출(Expenses) <sup>1)</sup>	4,153	4,148	4,229	4,311	4,365	4,538	4,561	4,754	4,753
GDP 대비 비율	26.2	25.4	26.3	25.2	26.0	25.3	25.8	25.3	25.6
재정수지(Fiscal Balance) <sup>2)</sup>	-451	-259	-398	-122	-272	-66	-178	10	-50
GDP 대비 비율	-2.8	-1.6	-2.5	-0.7	-1.6	-0.4	-1.0	0.1	-0.3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sup>3)</sup>	-499	-298	-404	-171	-312	-106	-208	-28	-115
GDP 대비 비율	-3.1	-1.8	-2.5	-1.0	-1.9	-0.6	-1.2	-0.2	-0.6
순채무(Net debt)	1,979	2,264	2,448	2,464	2,796	2,613	3,044	2,642	3,158
GDP 대비 비율	12.5	13.9	15.2	14.4	16.7	14.6	17.2	14.0	17.0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 예산기준: FY2014-15 예산안은 FY2024-25 GDP 대비 1%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향후 4년간 438억호주달러 절감 계획

- (예산 균형 회복) 정부의 경제활성화 전략(Economic Ac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절감 계획
- (적자 감축을 위한 고통분담) 복지부문 및 정부기관 축소, 임시 예산회복 부담금 신설 등
- (호주의 미래 건설) 인프라 성장 패키지 실시, 고등교육 개혁, 의료연구미래펀드 설립 및 투자, 노동시장 참여 지원 등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4-15 재정수입은 3,913억호주달러(GDP 대비 24.0%)로 전년 대비 4.6% (171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출) FY2014-15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148억호주달러(GDP 대비 25.4%)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예산적자 감축 및 FY2024-25 GDP 대비 1% 흑자 전환 달성을 위한 긴축정책 발표
  - FY2013-14 예산적자 499억호주달러에서 FY2017-18 28억호주달러까지 적자폭을 감축할 계획
    - 사회보장 및 복지, 교육, 노동 등의 부문에 대한 예산절감 추진
    - 임시 예산회복 부담금 신설 등 세입확충 정책 포함
- (성장정책) 인프라 성장 패키지 지원, 대학교육 개혁, 노동시장 참여지원, 의료연구 미래펀드 설립, 규제 감축 등 성장정책 실시
  - 경제성장 및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성장 패키지 지원
  - 고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대학 등록금 자율결정권 등의 내용을 포함
  -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재취업프로그램 지원
  - 세계적 의료 연구 및 기술 수준 확보를 위한 의료연구미래펀드 설립·투자
  - 기업 장려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 광산세 및 탄소세 폐지
  - 불필요한 규제감축

제 2 부

# 각국 예산안 분석





## I. 미국

□ FY2016: 2015년 10월 ~ 2016년 9월

□ 출처:

-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5 to 202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5.1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 환율: 1USD = 약 1,095.04원(2013년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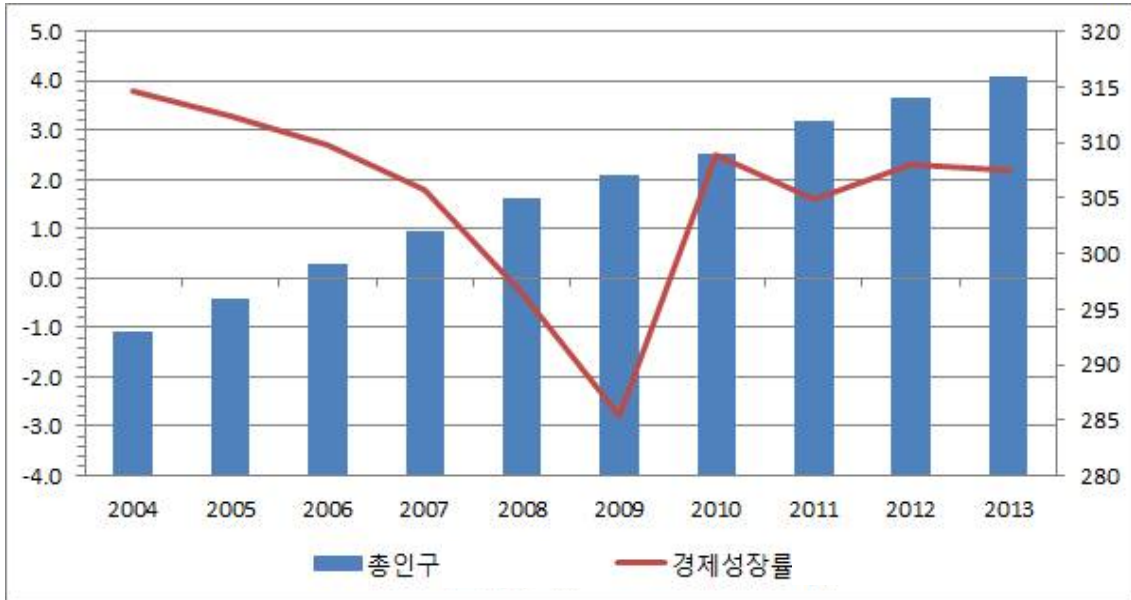
□ 경제규모: 2013년 경상GDP 16조 7,681억 달러(우리나라의 약 10.1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3년 기준 30.0%(우리나라는 102.8%)

□ 인구: 3억 1,647만명(2013년 추정치)

□ GDP 및 인구 추이:

(단위: %, 백만명)



## &lt;요 약&gt;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10년 하반기 이후로 '14년 3/4분기까지 2.3%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
  - '15~'16에는 3%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나, 이후 '17년도에 2.8%대로 다시 하락
- (재정전망) FY2016 재정수지는 전년(5,830억달러) 대비 1.9% 감소한 4,740억달러 적자를 기록. 오바마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국가채무) FY2016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전년(1조 3,506억달러) 대비 4.5% 증가한 14조 1,080억달러(GDP 대비 75.0%)를 전망

## □ 예산기조

- '중산층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가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 사회 기반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에 집중
- 3대 정책과제(① 보건·의료, ② 조세, ③ 이민정책)를 필두로 재정절감 달성

##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6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조 5,250억달러(GDP 대비 18.7%) 전망
  - FY2016 재정수입의 높은 증가율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에 기인
- (지출) FY2016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3조 9,999억달러(GDP 대비 21.3%) 전망

##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세제허점 개선 및 세금회피 차단을 위한 세제개선 및 이민과 보건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 달성
- (중산층 경제력 증대)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과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등
- (성장잠재력 지원) R&D와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을 통해 경기부양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4. 1.17.	FY2014 Omnibus(일괄세출법안) 상·하원 통과 후 공표	2014 상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2014. 2.27.	FY2013 결산 발표	
2014. 3. 4.	FY2015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2014. 4. 1.	하원, FY2015 예산 결의안 발표	
2014. 7.11.	FY2015 Mid-Session Review 발표	2014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참고
2014. 7.15.	2014년 『장기재정전망보고서』	
2014. 9.19.	FY2015 단기 연속세출결의안 대통령 승인	
2014.10.29.	3차 양적완화 프로그램 종료	
2014.11.10.	월별 예산보고서 통해 FY2014 결산발표	
2014.11.20.	재정적자 감축 전망 보고서 발표	

##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sup>6)</sup>

- (경제성장률) '10년 하반기 이후로 '14년 3/4분기까지 2.3%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 '15~'16에는 3%대의 성장률을 전망하나, 이후 '17년도에 2.8%대로 다시 하락
- CBO의 ['15~'25년 경제·예산 전망<sup>7)</sup>]에서는 '15~'17년도의 경제회복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통령 예산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망한 것이 특징
  - 낮은 정책이자율을 통한 통화 정책적 지원 및 실업율의 큰 하락이 긍정적 신호이나, 유럽과 아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lt;표 I-1&gt;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경제전망	실적				구분	추정 2014	전망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	2025
실질 GDP <sub>1)</sub>	3.0	1.8	2.8	2.2	정부	2.2	3.1	3.0	2.8	2.6	2.4	.....	2.3
					CBO	1.5	3.2	3.5	3.0	2.4	2.3	.....	N/A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 (실업률) 견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5년 말에는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7년에는 4.8% 전망
- '19년에 5.0%로 소폭 상승한 후, '20년을 기점으로 5%초반대에서 안착 예상
  - 최근 실업률<sup>8)</sup>의 일시적 감소(temporary reduction)는 연방준비제도의 2%대 이하의 물가상승률 목표에 기인한 결과로서, 추후 FRB의 목표물가를 초과하지 않고도 실업률 하락에 대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물가) 낮은 수준의 대내·외 수요로 인해 물가가 낮게 유지되다 경기의 회복과 실업률 감소로 연방준비제도의 장기물가목표인 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6) 경제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7)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5~2025*, 2015.1.

8)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긴 하나 장기실업률(6개월 이상 무직)은 높은 상황으로 평가

※ '15년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는 1.4%로 내년('16년)까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전망  
 → '16년에 2%대로 진입 후 향후 2.3% 수준 유지

<표 I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전망	실적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 <sup>1)</sup>	2.2	2.2	3.1	3.0	2.8	2.6	2.4	2.3	2.3	2.3	2.3	2.3	2.3
실업률 <sup>2)</sup>	7.4	6.2	5.4	5.1	4.9	4.9	5.0	5.1	5.2	5.2	5.2	5.2	5.2
CPI-U <sup>1)</sup>	1.5	1.7	1.4	1.9	2.1	2.2	2.3	2.3	2.3	2.3	2.3	2.3	2.3
국채 91일물 <sup>3)</sup>	0.1	*	0.4	1.5	2.4	2.9	3.2	3.3	3.4	3.4	3.5	3.5	3.5
국채 10년물	2.4	2.6	2.8	3.3	3.7	4.0	4.3	4.5	4.5	4.5	4.5	4.5	4.5

주: 1. \* 0.05 percent or less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 나. 재정전망

□ (재정수입) FY2016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0.9%(3,490억달러) 증가한 3조 5,250억달러 (GDP 대비 18.7%) 전망

□ (재정지출) FY2016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3조 9,990억달러로 편성  
 ○ (재량지출) FY2016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조 1,680억달러 전망  
 ○ (의무지출) FY2016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 5,430억달러 전망  
 - 메디케어 지출이 전년 대비 큰 폭(10.0%)으로 증가, 사회보장과 메디케이드 지출은 각각 5.3%, 5.4%로 동일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기타 지출) 순이자지출(net interest)과 단기재난비용으로 총 2,890억달러 소요 계획

□ (재정수지) FY2016 재정수지는 전년(5,830억달러)대비 1.9% 감소한 4,7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오바마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FY2019에 5천억달러를 초과, FY2021부터는 6천억달러를 초과하여 FY2025 적자규모는 6,870억달러 예상

□ (국가채무) FY2016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전년(13조 5,060억달러) 대비 4.5% 증가한 14조 1,080억달러(GDP 대비 75.0%)를 전망

- 재정적자 감축 노력에 따라 GDP 대비 FY2016에 75.0%로 개선 후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여 FY2025에 73.3%까지 감소할 전망

### <표 I-3> 미국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GDP 대비 %)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3,021	3,176	3,525	3,755	3,944	4,135	4,332	4,525	4,746	4,986	5,236	5,478
지출	3,506	3,759	3,999	4,218	4,423	4,653	4,886	5,126	5,372	5,621	5,875	6,165
재정적자	485	583	474	463	479	518	554	600	626	635	639	687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2,780	13,506	14,108	14,705	15,315	15,959	16,635	17,349	18,085	18,830	19,577	20,371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7.5	17.7	18.7	19.1	19.1	19.2	19.3	19.3	19.4	19.5	19.6	19.7
지출	20.3	20.9	21.3	21.4	21.5	21.6	21.7	21.9	21.9	22.0	22.0	22.2
재정적자	2.8	3.2	2.5	2.3	2.3	2.4	2.5	2.6	2.6	2.5	2.4	2.5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74.1	75.1	75.0	74.6	74.3	74.1	74.0	74.0	73.9	73.7	73.5	73.3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

<참고 I -1> CBO 경제 및 재정전망('15.1월)

- (경제전망) 2015년 성장률은 3.2%로 2017년까지 3%대 성장세를 유지하나, 2018년에 2.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고용 증가로 '14년 4분기에 실업률이 5.7%로 하락. '17년 4분기에는 5.3%를 기록하여 자연실업률에 근접한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 (금리)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금리는 향후 몇 년간 인상폭이 높을 것으로 전망

CBO 경제전망 (단위: %)

경제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024
	추정	전망				연간 평균 전망치
실질GDP <sup>1)</sup>	1.5	3.2	3.5	3.0	2.4	2.2
실업률 <sup>2)</sup>	6.2	5.9	5.8	5.7	5.6	5.6
CPI-U <sup>1)</sup>	2.0	2.2	2.0	2.1	2.2	2.4
국채 91일물 <sup>3)</sup>	0.1	0.3	1.1	2.1	3.1	3.5
국채 10년물	2.8	3.2	3.8	4.2	4.6	4.7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2) 연평균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5 to 2025*, 2015.1.

- (재정전망) 연방정부의 FY2016 재정적자는 4,670억달러(GDP 대비 2.5%)로 '07년 이후로 GDP 대비 재정적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 연방채무 이자율 증가에 기인
  - 비정부부문이 소유한 채무는 FY2016에 GDP 대비 73.8%로 재정적자 감소세에 따라 '18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후, FY2019년부터 재정적자가 높은 증가추세로 전환되면서 74.3%까지 증가 전망

CBO 재정전망 (단위: 십억달러)

재정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적	전망										
예산총량												
수입	3,021	3,189	3,460	3,588	3,715	3,865	4,025	4,204	4,389	4,591	4,804	5,029
지출	3,504	3,656	3,926	4,076	4,255	4,517	4,765	5,018	5,337	5,544	5,754	6,117
재정적자	483	468	467	489	540	652	739	814	948	953	951	1,088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12,779	13,359	13,905	14,466	15,068	15,782	16,580	17,451	18,453	19,458	20,463	21,605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5 to 2025*, 2015.1.

## 2. 예산기조

◇ 기회(opportunity)와 성장(growth), 재정건정성(sustainable fiscal path)을 강조

- 지출효율화를 통해 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을 종료하고, “중산층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가구에 대한 경제적 안정, 사회기반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에 집중
  - 직업교육·기술훈련 기회 제공 등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투자 확대
  - 자본이득(capital gains)세 개혁 및 고소득자의 사회보장세 등의 세제허점 차단
  - 중산층, 근로가구를 위한 유아(pre-kindergarten) 보육 지원 등
  - 사회기반시설(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 등) 개선 및 건설
  - 창조(과학)적 연구(scientific discovery) 진흥 및 제조업 강화
  
- 3대 정책과제(① 보건·의료, ② 조세, ③ 이민정책)를 필두로 향후 10년간 1.8조달러 규모의 재정절감 목표 달성
  - (보건) 건강보험법상(affordable care act)의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여 낮은 건강보험 비용증가율 유지 유인책을 제공하고, 기타 의료 프로그램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4천억달러의 보건지출 절감<sup>9)</sup> 계획
  - (조세) 고소득 가구의 세제 혜택(tax benefits)을 감소하여 향후 10년간 6천 400억달러 세입 증가<sup>10)</sup> 기대
  - (이민개혁) 향후 10년간 1천 600억달러의 지출절감이 예상되며, 향후 20년간 최대 1조달러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9) 연방공무원의료혜택(FEGBP) 및 보건사회복지부(HHS)의 모든 절감비용 포함

10) 조세지출 감소안 및 버핏룰(Buffett Rule) 이행을 통한 ‘Fair Share Tax’ 부과 계획 포함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FY2016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3조 5,250억달러(GDP 대비 18.7%) 전망
- 향후 3년(FY2016~19)간 평균 5.5%의 증가율을 보여 FY2019년에 최초로 재정수입 4조달러 규모(4조 1,350억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FY2016 재정수입의 높은 증가율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sup>11)</sup>에 기인하며, 소비세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
    - 3대 정책과제중 하나인 이민개혁 충당금은 FY2016에 20억달러를 시작으로 FY2025까지 총 4,560억달러(누적액 기준) 충당 계획

&lt;표 I-4&gt; 분야별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추정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개인소득세	1,395	1,478	1,646	1,770	1,887	2,000	2,118	2,244	2,374	2,508	2,643	2,781
법인세	321	342	473	500	503	507	513	493	490	505	519	53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1,024	1,065	1,111	1,173	1,229	1,281	1,331	1,402	1,474	1,538	1,609	1,676
소비세	93	96	112	120	122	124	126	129	131	134	137	141
유산세 및 증여세	19	20	21	30	33	36	39	42	46	49	54	59
관세	34	37	38	42	45	47	50	52	55	58	61	64
기타수입 *연방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포함	136	139	120	107	98	101	109	116	122	129	135	140
이민개혁 충당금	-	-	2	12	28	39	45	47	55	64	77	87
<b>총 재정수입</b>	<b>3,021</b>	<b>3,176</b>	<b>3,525</b>	<b>3,755</b>	<b>3,944</b>	<b>4,135</b>	<b>4,332</b>	<b>4,525</b>	<b>4,746</b>	<b>4,986</b>	<b>5,236</b>	<b>5,478</b>
<b>GDP 대비 %</b>	<b>17,5</b>	<b>17,7</b>	<b>18,7</b>	<b>19,1</b>	<b>19,1</b>	<b>19,2</b>	<b>19,3</b>	<b>19,3</b>	<b>19,4</b>	<b>19,5</b>	<b>19,6</b>	<b>19,7</b>

주: \*는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11) 개인소득세: ('15) 5.9% → ('16) 11.4%, 법인세: ('15) 6.5% → 38.3%, 소비세: ('15) 3.2% → 16.7%

## 나. 세출

- FY2016의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3조 9,999억달러(GDP 대비 21.3%) 전망
  - 전년도 GDP 대비(20.9%) 0.4%p 증가한 수치이며, 보건분야(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사회보장(24%)등의 분야 지출이 총지출의 52%를 차지
  
- 주요 기능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국방) 전년 대비 3% 증가한 6,16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5%
    - FY2019까지 소폭 감소한 후, FY2020부터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건) 전년 대비 7.6% 증가한 5,177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3%
    -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보건자원센터 운영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메디케이드<sup>12)</sup> 관련 주정부 보조금(grants to states) 등의 지출증가에 기인
  - (사회보장) 전년 대비 5.4% 증가한 9,443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24%
    -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 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OASDI<sup>13)</sup>,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과 장애연금(DI)이 꾸준히 증가하여 FY2018에 1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메디케어<sup>14)</sup>) 전년 대비 10% 증가한 5,897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5%
    - 향후 3년간(~FY2018) 1~2%의 소폭 증가세를 보이면서 5천억달러 후반대를 유지한 후, FY2019에 10%대로 증가하면서 6,52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전년 대비 약 22.2% 감소한 1,063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3%
    -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및 학생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고등교육관련 연방 대출 프로그램(direct loan) 회수 등에 기인한 감소세가 특징

12)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의료지원 제도

13)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14)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제도

&lt;표 I -5&gt; FY2016 예산안 (기능별)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추정		전망	증감	
	2014	2015 (a)	2016 (b)	금액 (b-a)	증가율
Defense	603,457	597,503	615,515	18,012	3.0
International Affairs	46,684	54,970	55,951	981	1.8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28,570	29,848	30,968	1,120	3.8
Energy	5,270	9,887	6,224	-3,663	-37.1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6,171	41,743	44,311	2,568	6.2
Agriculture	24,386	21,797	22,288	491	2.3
Commerce and Housing Credit	-94,861	-28,617	-22,568	6,049	-21.1
Transportation	91,915	92,893	98,742	5,849	6.3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20,670	27,234	21,816	-5,418	-19.9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90,615	136,756	106,342	-30,414	-22.2
Health	409,449	481,232	517,726	36,494	7.6
Medicare	511,688	536,427	589,720	53,293	9.9
Income Security	513,644	522,496	546,350	23,854	4.6
Social Security	850,533	896,294	944,338	48,044	5.4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149,616	161,424	180,324	18,900	11.7
Administration of Justice	50,457	58,672	58,512	-160	-0.3
General Government	26,913	22,810	26,983	4,173	18.3
Others	140,912	95,208	155,925	60,717	63.8
<b>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b>	<b>3,506,089 (20.3)</b>	<b>3,758,577 (20.9)</b>	<b>3,999,467 (21.3)</b>	<b>240.890</b>	<b>6.4</b>

자료: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6, 2015.2.2.

<표 I -6> 항목별 (재량)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재량지출 프로그램</b>												
안보	596	589	605	594	582	581	588	595	608	621	633	646
비안보	525	558	563	581	586	592	594	599	594	597	608	619
<b>합계</b>	<b>1,121</b>	<b>1,146</b>	<b>1,168</b>	<b>1,175</b>	<b>1,169</b>	<b>1,172</b>	<b>1,182</b>	<b>1,194</b>	<b>1,202</b>	<b>1,218</b>	<b>1,241</b>	<b>1,265</b>
<b>법정지출 프로그램</b>												
사회보장	845	891	938	992	1,051	1,115	1,182	1,251	1,323	1,400	1,481	1,566
메디케어	505	530	583	584	585	645	689	735	820	842	857	954
메디케이드	301	333	351	364	382	404	427	450	476	504	534	567
기타 법정지출 프 로그램	504	628	662	723	785	800	825	860	858	907	959	962
이민개혁 충당금	-	-	8	11	18	24	28	29	35	41	48	56
<b>합계</b>	<b>3,506</b>	<b>3,579</b>	<b>3,999</b>	<b>4,218</b>	<b>4,423</b>	<b>4,653</b>	<b>4,886</b>	<b>5,126</b>	<b>5,372</b>	<b>5,621</b>	<b>5,875</b>	<b>6,165</b>
순이자	229	229	283	361	424	483	544	597	649	700	744	785
재해복구 및 구호 비용	-	2	6	8	8	9	9	10	10	10	10	10
<b>총재정지출</b>	<b>3,506</b>	<b>3,759</b>	<b>3,999</b>	<b>4,218</b>	<b>4,423</b>	<b>4,653</b>	<b>4,886</b>	<b>5,126</b>	<b>5,372</b>	<b>5,621</b>	<b>5,875</b>	<b>6,165</b>
<b>GDP 대비 %</b>	<b>20.3</b>	<b>20.9</b>	<b>21.3</b>	<b>21.4</b>	<b>21.5</b>	<b>21.6</b>	<b>21.7</b>	<b>21.9</b>	<b>21.9</b>	<b>22.0</b>	<b>22.0</b>	<b>22.2</b>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5.2.2.

&lt;표 I -7&gt; 기관별 (재량)지출 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2015 승인규모	2016 예산요청	후속년도 전망			
			2017	2018	2019	2020
Agriculture	23.8	23.5	25.2	25.5	25.7	26.0
Commerce	8.8	9.8	10.3	10.7	11.9	15.5
Census Bureau	1.1	1.5	1.8	2.1	3.2	6.7
Defense	496.1	534.3	547.3	556.4	564.4	570.0
Education	67.1	70.7	71.7	72.7	73.2	73.7
Energy	27.3	29.9	29.3	29.9	30.6	31.0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1.4	12.6	11.5	11.7	12.2	12.3
Health & Human Services	80.2	79.9	86.3	88.0	88.8	89.7
Homeland Security	38.2	41.2	41.6	42.2	42.5	43.0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34.8	41.0	41.8	42.6	43.0	43.4
Interior	12.1	12.9	12.9	13.1	13.3	13.4
Justice	27.3	14.9	29.4	30.0	30.3	30.6
Labor	11.9	13.2	13.4	13.6	13.7	13.8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40.1	46.3	47.2	48.1	48.6	48.9
Transportation	13.8	14.3	14.6	14.9	15.1	15.2
Treasury	12.2	12.8	14.0	14.3	14.5	14.8
Veterans Affairs	65.1	70.2	74.8	76.4	78.0	79.6
Corps of Engineers	5.5	4.7	4.8	4.9	5.0	5.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1	8.6	8.8	8.9	9.0	9.1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4	0.8	0.3	0.3	0.3	0.3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18.0	18.5	18.9	19.3	19.5	19.7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3	7.7	7.9	8.0	8.1	8.2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9	0.7	0.7	0.7	0.7	0.7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9.0	9.6	9.4	9.6	9.7	9.8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1.1	1.2	1.2	1.2	1.2	1.3
Other Agencies	19.0	20.0	20.0	20.4	20.6	20.8
Allowances	-	-	-23.1	-22.7	-21.7	-26.5
합계	1,027.4	1,086.8	1,108.4	1,129.3	1,146.2	1,157.1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5.2월 (Table S-11)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 □ 세제허점 개선 및 세금회피 차단

- 최고 소득계층(상위 0.1%) 가구의 자본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세율을 인상 (28%)하여,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080억달러 세원 확대 기대
  - ※ 동 세율은 레이건 대통령 임기 이후 가장 높은 세율
- 글로벌 기업들의 국외소득에 19%의 최저한세(minimum tax) 신설
  - 이미 해외에서 얻은 해외 보유금(2조 1천억달러)에 대해서는 14%의 일회성 세율 적용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 대해 28%를 최소 부과기준으로 설정
  - 개인별 연소득 25만달러 초과(부부합산, 독신 20만달러)자에 한해 적용

#### □ 보건 개혁

- 메디케어 지정 의료사업자의 고품질 및 효과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과도한 지급청구 등은 개선하여 향후 10년간 2,220억달러 절감 계획
-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deductible system을 도입하여 동 프로그램의 불필요한 이용자를 차단하는 등의 제도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840억달러 절감
  - '19년부터는 medigap<sup>15)</sup>을 선택하는 새로운 메디케어 가입자로부터 프리미엄 부가금(surcharge) 적용 예정
- 메디케어 D 프로그램(의약 보험)을 개선하여 지나치게 비싼 의약품 비용 및 처방비용의 감소가 가능한 제도 도입을 통해 향후 10년간 1,260억달러 절감
  - ※ 생물학적치료제(biologics) 및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HHS)장관이 의약계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 to negotiate)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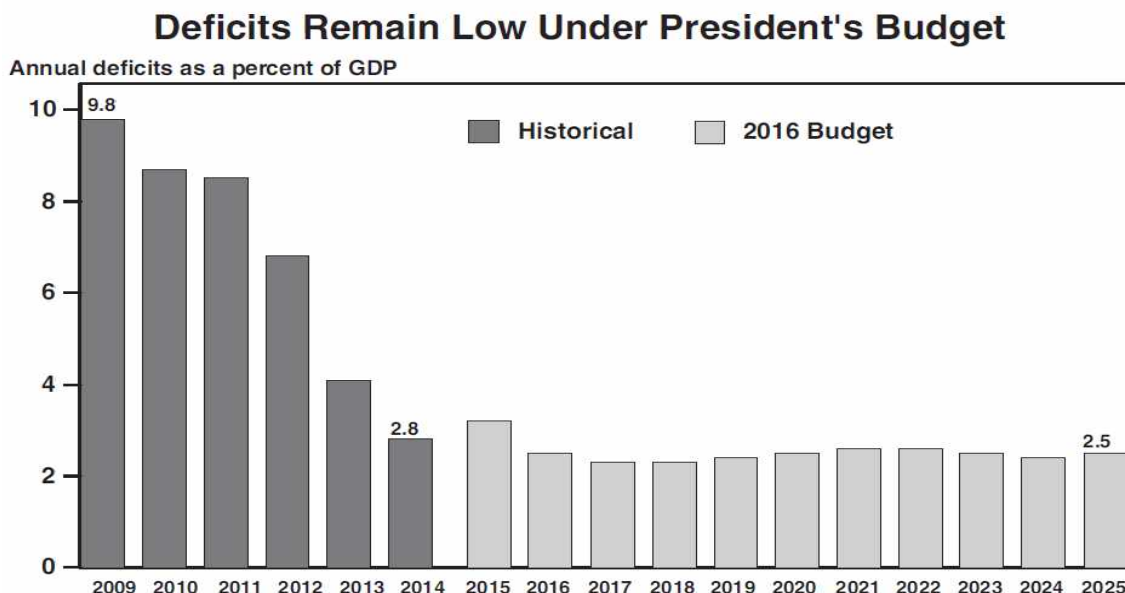
#### □ 이민 개혁

-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표방하며, 이민종합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도 이끌면서 공고한 사회보장정책도 함께 추진

15) 메디갭: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보조받지 못하는 의료비의 부족분을 메우는 민간의료보험을 뜻함

[그림 I-1] 대통령예산안의 GDP 대비 재정적자 감소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Fiscal Year 2016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5.2월

## 나. 중산층 경제 향상 및 저소득층 지원

## □ 세제 지원

-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연소득 12만달러까지)의 경우, 자녀·피부양가족 세액 공제(CDCTC,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를 최대 세 배 이상 확대(자녀당 3,000달러까지)
  - 동 정책으로 인해 510만가구, 670만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유소득 배우자(a new second earner)가 있는 경우, 최대 500달러의 세액 공제 계획
  - 동 정책으로 240만명(부부)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
- 상속 관련,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본소득 최대 20만달러(부부합산, 독신 10만달러), 주택 최대 50만달러(부부합산, 독신 25만달러)까지 면제

## □ 양질의 교육 제공

-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사다리 제공을 표방하며 향후 10년 동안 600억달러를 배정하여 2년제 전문대학 수업료를 무료 추진

- 동 정책 추진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파트너십(federal-state partnerships) 프로그램에 모든 주가 동참할 경우, 9백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
- FY2025까지 중-저소득(low and moderate income) 가구의 만 4세의 모든 아동들이 프리스쿨(preschool)에 진학할 수 있도록 7억 5천만달러 배정
  - 연방-주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행되며, 주정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산층 자녀까지 혜택 확대 계획
    - 현재 18개주가 교육부의 프리스쿨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9억달러를 추가 배정하여 장애아동의 초기개입(early intervention) 및 프리스쿨 진학 지원
      - ※ 동 정책의 재원은 담뱃세(tobacco tax) 인상을 통해 마련할 예정
- 중-저소득 근로가구의 3세 이하 유아보육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의무지출을 통해 820억달러 투자

□ 주택 구입 용이 (Easing access to credit for housing)

- 연방주택관리청(FHA)에서 제시하는 모기지 보험료율(Mortgage Insurance Premium)을 인하
  - 동 정책을 통해 주택구입자들이 연간 평균 9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향후 3년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5만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

다. 성장 잠재력 강화

□ R&D

- 정부는 장기적 경제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에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총 1,460억달러 배정
  - 미국 에너지국<sup>16)</sup>의 기초연구 지원과 국립과학재단(NSF)에 각각 53억달러, 77억달러를 배정하여 첨단 제조기술, 기후과학 등의 분야 연구 지원
  - 국립보건원(NIH)에 313억달러를 배정하여 알츠하이머(Alzheimer) 및 암 등의 생명공학 및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연구 지원
  -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위한 클린 에너지 기술 연구지원에 74억달러를 배정하여 에너지 보안(energy security) 강화

16) 미국의 원자력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행정기관. 약칭은 DOE(Department of Energy)

□ 사회기반 시설 투자(Building a 21st century infrastructure)

- 육상교통(surface transportation) 인프라 개선을 위해 6년간 총 4,780억달러의 예산 권한 재조정(reauthorization) 제안
  - 고속도로, 운송 네트워크(freight networks), 버스, 고속철도(rapid transit) 등 전국 각 대도시 및 지방의 육상교통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예산 배정
- 편당 재원기관의 성격인 전국사회간접자본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을 신설하여 사회 간접 시설 건설에 투자 지원 계획

□ 기업 경쟁력 강화

- 국내 제조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여 실효세율 25%가 되도록 조정
  - 세율인하 재원은 조세지출 및 구조개혁을 통해 마련 예정
- 중소기업 등이 이용 가능한 국세청(IRS)의 법률자문 서비스 및 조세 시스템 등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개선을 위해 129억달러를 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감축

## II. 캐나다

□ FY2014-15: 2014.4~2015.3

□ 출처

- *Budget 2014*, 2014.2
- *Supplementary Estimates (A) 2014-15*, 2014.5.
-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4*, 2014.9.
- *Supplementary Estimates (B) 2014-15*, 2014.11.
-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 캐나다의 예산안은 통상 매년 3월에 발표되므로 『주요국 예산안 2015』 중 캐나다의 내용은 2014년 예산(Budget 2014) 및 2014년 11월에 발표된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을 위주로 정리하였음

- *Supplementary Estimates (C) 2014-15*, 2015.2.

□ 환율: 1캐나다달러 = 953.53원 (2014년 평균)

□ 경제규모: 2013년 경상 GDP 1조 5,130억달러(우리나라 약 0.91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3년 기준 62.0%(우리나라는 약 102.8%)

□ 인구: 3,554만명(2014년 추정치)

□ GDP 및 인구추이 :

(단위: %, 백만명)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2014년 11월 기준,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2.6%, 실업률은 6.8%로 전망
- (재정전망)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FY2015-16이후 재정수지는 균형 달성될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 2014년 예산안은 2012년 및 2013년 예산안과 동일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장기적 번영(Jobs, Growth, Long-term Prosperity)」을 주제로 함
  - 세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 지원,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 자원개발, 캐나다 자연유산 보존, 인프라 및 교통에 투자,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 세입·세출(2014. 11)

- (세입) FY2014-15 세입 전망은 2,77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2%)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9% 상승 전망
- (프로그램지출) FY2014-15 총지출은 2,527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9%)로 전망,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과 정부부문 기타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을 포함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Economic Action Plan 2014에서는 정부의 관리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개선, 2015-1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
- (경기부양정책) Budget 2014 예산기조 참고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4. 2월	FY2014-15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4) 발표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FY2013-14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C) 발표		
2014. 3월	FY2014-15 세출예산안(Estimates) 및 사업계획·우선순위보고서(RPPs) 의회 제출		
2014. 5월	FY2014-15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 발표		
	FY2013-14 재정적자(4~3월 잠정 누계액) 발표		
2014. 8월	의회예산처(PBO), 최근 재정건전화 시행 중 성과예산분석보고서 발표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4. 9월	통계청, 재정통계(GFS) 발표		
	의회예산처(PBO), 「2013년 재정지속가능성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발간		
2014. 10월	FY2013-14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4. 11월	FY2014-15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 발표		
	경제 및 재정전망 조정(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발표		
	재무위원회, 부처별 성과보고서(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s) 하원 상정		
	FY2014-15 분기별 세출예산 집행결과보고서 발표		
2014. 12월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Report) 2013-14 보고서 발간		

## 1. 경제 및 재정전망<sup>17)</sup>

### 가. 경제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15년 실질GDP 성장률은 2.6%로 Budget 2013 전망치와 큰 차이는 없이 긍정적으로 전망
  - 2014~2018년 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2.4%로 전망되며, 2016년부터는 실질 GDP 성장률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명목 GDP 성장률) FY2014 예산안 전망치와 큰 변화는 없으나, 2014년 1분기 물가 상승으로 인해 3.9%에서 4.4%로 상향 조정
  
- (실업률) 2015년 실업률은 *Budget 2014* 전망치 대비 상향 조정된 6.8%로 전망
  - 향후 5년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에는 6.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2014년에 2.0%, 2015년에 1.9%로 FY2014 예산안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
  - 2016년부터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17) 본 장의 내용은 캐나다 재무부에서 15개 그룹의 민간부문\* 경제전망 서베이(2014.9)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발표한 경제 및 재정전망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2014.11)」를 위주로 작성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표 II-1> 캐나다 경제전망(2014년 11월 기준)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4-2018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4	2.3	2.5	2.5	2.3	2.2	-	2.4
2014 Fall Update	2.4	2.6	2.4	2.3	2.2	2.1	2.4
GDP 인플레이션							
Budget 2014	1.5	2.0	2.0	2.0	2.0	-	1.9
2014 Fall Update	1.9	1.6	2.0	2.1	2.0	2.0	1.9
명목GDP 성장률							
Budget 2014	3.9	4.5	4.5	4.4	4.2	-	4.3
2014 Fall Update	4.4	4.3	4.4	4.4	4.2	4.1	4.4
실업률							
Budget 2014	6.8	6.6	6.4	6.3	6.2	-	6.5
2014 Fall Update	7.0	6.8	6.5	6.4	6.3	6.3	6.6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Budget 2014	1.5	1.9	2.0	2.0	2.0	-	1.9
2014 Fall Update	2.0	1.9	2.0	2.0	2.0	2.0	2.0
U.S. 실질GDP 성장률							
Budget 2014	2.7	3.1	3.0	2.9	2.6	-	2.9
2014 Fall Update	2.1	3.1	2.9	2.8	2.5	2.5	2.7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Table 2.1 일부 발췌

나. 재정전망

- (재정수지) FY2013-14 재정수지는 △52억캐나다달러로 *Budget 2014* 전망치(△179억 캐나다달러)보다 개선되었으며, 당초 목표인 FY2015-16에 균형재정 달성
- (총수입) FY2013-14 총수입은 *Budget 2014* 전망치보다 약 62억캐나다달러 증가한 2,717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프로그램지출 및 공공채무비용) FY2013-14 프로그램지출 및 공공채무비용은 *Budget 2014* 전망치 대비 각각 26억캐나다달러, 4억캐나다달러 감소 조정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sup>18)</sup>비율은 FY2012-13 33.1%에서 FY2013-14 32.3%로 감소 전망
- '13년 11월 전망과 동일하게 FY2017-18에는 경기 침체 이전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8-19에는 25.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IMF 기준, 캐나다의 GDP 대비 총정부순채무가 G7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그림 II-1 참조)

<표 II-2> 캐나다 재정전망(2014년 11월 기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3-14	Projection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총수입	271.7	277.6	294.5	307.6	318.6	332.8	347.9
프로그램 지출	248.6	252.7	263.9	273.0	281.3	292.2	299.6
이자지출	28.2	27.7	28.7	30.4	32.3	33.8	35.2
총지출	276.8	280.5	292.6	303.3	313.6	326.1	334.8
재정수지	△5.2	△2.9	1.9	4.3	5.1	6.8	13.1
연방채무 <sup>1)</sup>	611.9	615.8	613.9	609.5	604.4	597.6	584.5
GDP 대비 %							
총수입	14.3	14.2	14.5	14.5	14.4	14.4	14.5
프로그램 지출	13.1	12.9	13.0	12.9	12.7	12.7	12.5
이자지출	1.5	1.4	1.4	1.4	1.5	1.5	1.5
총지출	14.6	14.3	14.4	14.3	14.2	14.2	14
재정수지	△0.3	△0.1	0.1	0.2	0.2	0.3	0.5
연방채무	32.3	31.5	30.3	28.8	27.3	25.9	24.3

주: 1) 2014-15년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포함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Table 3.3.

18)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 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II-3> 2014년 예산안 재정전망치 대비 조정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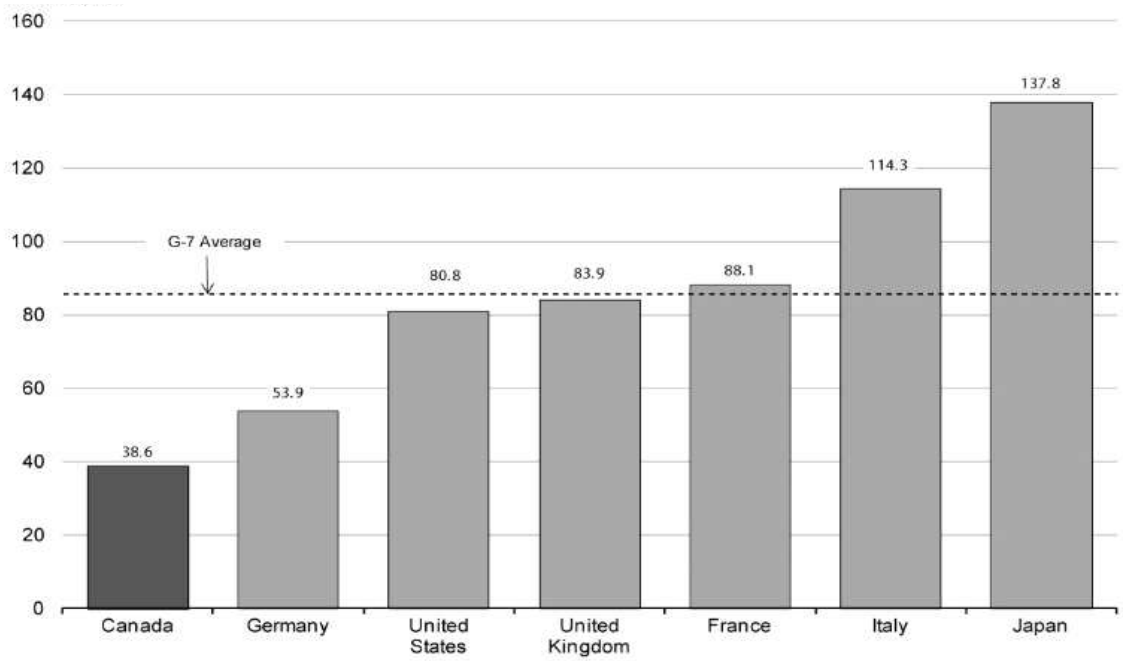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3-14	Projection					2019-20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4년 예산안 재정수지		-16.6	-2.9	6.4	8.1	8.1	10.3	n/a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Add(+): 총수입	6.2	3.2	1.0	0.6	0.5	0.1	
	Less(-): 프로그램지출	2.6	-1.2	-1.8	-1.3	-0.9	-0.7	
	Less(-): 공공채무비용	0.4	1.2	1.2	1.8	2.1	1.9	
Update된 재정수지		-5.2	-2.9	1.9	4.3	5.1	6.8	13.1

자료: 캐나다 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Table 3.2 일부 발췌

[그림 II-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net debt) 비율(2014년 기준)

(단위: GDP 대비 %)



주: 국가 포괄범위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계획을 포함

자료: 캐나다 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Chart 1.5.

## 2. 예산기조(Budget 2014)

- 캐나다 2014년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4)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에 중점을 둠
  - 2014년 예산안은 2012년 및 2013년 예산안과 동일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장기적 번영(Jobs, Growth, Long-term Prosperity)」를 주제로 함
  
- 노동시장 진입 지원(Connecting Canadians With Available Jobs)
  - FY2014-15부터 노동시장협약(Labour Market Agreements)<sup>19)</sup>으로 전문기술직 고용이나 직업 연수프로그램 등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캐나다 임금보조금(Canada Job Grant) 유지
  - FY2014-15년부터 장애인을 위해 노동시장협약(Labour Market Agreements)으로 향후 4년간 매년 2.2억캐나다달러 지원
    - 발달장애 및 자폐증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개설 및 지원
  - 신생기업을 위해 4천만캐나다달러 지원, 고령 실업자를 위한 향후 3년간 7천 5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Job Matching Service를 강화하기 위해 2년간 1,180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Fostering Job Creation, Innovation and Trade)
  -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새로운 세제 도입이 없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규정 완화 및 규제부담을 감소시킴
  - 향후 10년간 캐나다는 캐나다연구펀드(Canada First Research Excellence Fund)를 신설하여 15억캐나다달러 자금 지원
  - 자동차부문의 연구개발프로젝트 및 장기투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혁신기금(the Automotive Innovation Fund)에 2년간 추가 5억캐나다달러 지원

19) 주정부와 해당기업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용

- 자원개발, 캐나다 자연유산 보존, 인프라 및 교통에 투자(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Conserving Canada's Natural Heritage, and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 주요 천연자원프로젝트는 캐나다 전 지역개발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므로 자연유산 보존 및 새로운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등 조치를 취함
  - 국가에너지위원회의 프로젝트 리뷰 및 참가자 자금조달프로그램에 2년간 2천 8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 그 외에도 항구, 선박, 공공기반 시설 및 교통서비스도 지원하도록 계획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 농촌 및 캐나다 북부지역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강화를 위해 5년간 3억 5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낮은 세금 유지, 가족 및 의료서비스 향상, 문화예술커뮤니티를 지원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자연재해복구 지원, 의료 및 식수에 대한 투자, 원주민 지역사회의 안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2014년 11월 발표된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보고서에 따르면, FY2014-15 세입 전망은 2,776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2%)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9% 상승 전망
- (개인소득세) FY2014-15 개인소득세 수입은 약 34억캐나다달러(2.6%) 증가한 1,342억 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6%<sup>20)</sup>로 명목GDP 성장률에 비해 다소 빠르게 증가될 전망
- (법인세) FY2014-15 법인세 수입은 38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9% 증가 전망
- (비거주자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비거주자 소득세는 FY2014-15 64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화 및 용역세) FY2014-15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수입은 과세 소비 대상 증가에 기반하여 전년 대비 2.6% 증가, 향후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관세) FY2014-15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5억 캐나다달러로 전망
- (기타 소비세)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약 115억캐나다달러이며, 향후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고용보험) FY2014-15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22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2015~16년 고용보험료를 1.60캐나다달러로 인하  
※ 2014년 고용보험료를 '13년 수준인 1.88캐나다달러로 동결, '14년 9월 캐나다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하 및 규제 완화 등의 정부대책 마련에서 2015~16년 고용보험료를 인하

20) 실질소득수입과 결합된 소득세제시스템의 누적적인 성격 반영

<표 II-4> 세입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3-14	Projection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조세수입(Income taxes)							
개인소득세	130.8	134.2	143.9	152.3	160.1	167.1	175.1
법인세	36.6	38.3	40.4	42.6	44.3	46.1	48.2
비거주자소득세	6.4	6.4	6.5	7.0	7.5	7.9	8.3
총 소득세(A)	173.8	178.9	190.9	201.9	211.9	221.1	231.6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31.0	31.8	33.5	35.4	37.2	38.9	40.6
관세	4.2	4.5	5.0	4.6	4.8	5.0	5.2
기타소비세	10.9	11.5	11.5	11.5	11.5	11.5	11.5
총소비세(B)	46.1	47.8	50.0	51.4	53.5	55.4	57.3
총조세수입 (C=A+B)	219.9	226.7	240.9	253.3	265.4	276.5	288.9
고용보험(D)	21.8	22.6	23.3	22.9	19.4	20.1	21.0
기타세입(E)	30.0	28.3	30.3	31.4	33.9	36.2	38.0
총세입(F=C+D+E)	271.7	277.6	294.5	307.6	318.6	332.8	347.9
GDP 대비 %							
개인소득세	6.9	6.9	7.1	7.2	7.2	7.2	7.3
법인세	1.9	2.0	2.0	2.0	2.0	2.0	2.0
재화 및 용역세	1.6	1.6	1.7	1.7	1.7	1.7	1.7
총조세수입	11.6	11.6	11.9	12.0	12.0	12.0	12.0
고용보험	1.1	1.2	1.2	1.1	0.9	0.9	0.9
기타세입	1.6	1.4	1.5	1.5	1.5	1.6	1.6
총세입	14.3	14.2	14.5	14.5	14.4	14.4	14.5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Table 3.4.

## 나. 세출

- 2014년 11월에 발표된 프로그램지출 전망에 따르면 FY2014-15 총지출은 2,527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9%)로,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과 정부부문 기타이전지출, 직접프로그램지출을 포함
- (노인지원) 노인지원지출은 FY2014-15 439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9-20 573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5.5%로 이는 명목GDP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노인지원지출은 노령연금, 소득보장보조금 및 수당 지급(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Allowance payments)으로 구성
- (고용보험) FY2014-15 고용보험지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7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연평균 3.0%의 증가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동지원) 아동 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과 아동복지급여(Universal Child Care Benefit)를 포함한 아동지원지출은 인플레이션의 상향 조정과 급여대상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부부문 이전지출) 정부부문 이전지출은 FY2014-15 62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9-20 766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이는 캐나다 보건지출(The Canada Health Transfer: CHT), 사회보장프로그램지출, 재정균등화교부금 및 준주교부금(Equalization and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등을 포함
- (직접 프로그램 지출) 직접 프로그램 지출은 FY2014-15 1,14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19-20 1,255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직접 프로그램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의 경우 지출규모와 달리 FY2014-15 5.8%에서 FY2019-20 5.2%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직접 프로그램 지출은 운영비용, 부처 이전지출경비, 자본상각(capital amortization) 등을 포함

&lt;표 II-5&gt;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13-14	Projection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b>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41.8	43.9	46.2	48.8	51.4	54.3	57.3
고용보험(EI)	17.3	17.6	18.2	18.8	19.5	20.3	21.0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13.1	14.5	18.3	18.5	18.7	18.9	19.1
소계(A)	72.2	76.0	82.7	86.1	89.7	93.4	97.5
<b>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b>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30.3	32.1	34.0	36.1	37.7	39.3	41.0
사회보장 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2.2	12.6	13.0	13.3	13.7	14.2	14.6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8.7	19.4	20.1	20.9	21.8	22.6	23.5
연료세기금(Gas Tax Fund)	2.1	2.0	2.0	2.1	2.1	2.2	2.2
기타 주요 이전지출	0.7	0.2	0.2	0.1	0.1	0.0	0.0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3.5	△3.7	△3.9	△4.1	△4.3	△4.5	△4.7
소계(B)	60.5	62.6	65.4	68.4	71.0	73.8	76.6
<b>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b>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74.7	73.0	74.5	75.1	76.7	79.7	80.1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6.7	35.9	35.6	37.4	37.6	38.4	38.5
자본상각(Capital amortization)	4.5	5.2	5.7	6.0	6.3	6.9	7.0
소계(C)	115.9	114.1	115.7	118.5	120.6	125.0	125.5
총프로그램지출(A+B+C)	248.6	252.7	263.9	273.0	281.3	292.2	299.6
<b>GDP 대비 %</b>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3.8	3.9	4.1	4.1	4.1	4.0	4.1
정부부문 간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2	3.2	3.2	3.2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6.1	5.8	5.7	5.6	5.4	5.4	5.2
총프로그램지출	13.1	12.9	13.0	12.9	12.7	12.7	12.5

자료: 캐나다재무부, *Update of Economic and Fiscal Projections*, 2014.11, Table 3.5.

<참고 II-1> 캐나다 추경예산 내용

- FY2014-15 추경예산은 2013년 5월 14일 추경(A), 2013년 11월 5일 추경(B), 2015년 2월 19일 추경(C)가 상정되어 총 3회 편성
- FY2014-15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A)은 약 24.6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24.5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약 0.1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고용 및 사회개발 5억캐나다달러, 교량 건설 및 유지 사업에 2.5억캐나다달러, 자원개발 2억캐나다달러 등
- FY2014-15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B)은 32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 약 29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 약 3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국방비 8.4억캐나다달러, 정부서비스 1억캐나다달러, 재무위원회 사무국비 1.5억캐나다달러 등
- FY2014-15 추경안(Supplementary Estimates)(C)은 5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 18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 -13억캐나다달러로 편성
    - 퇴직급여 지급 등 재무위원회 사무국비 4억캐나다달러, 학생용자 대출 등을 포함한 고용 및 사회발전에 2억 9천캐나다달러, 군 관련 지원금 약 2억캐나다달러 등

<표 II-6> 추경예산 편성내역

(단위: 억캐나다달러)

구분		예산 내 지출 (Budgetary)	예산 외 지출 (Non-Budgetary)
추경(A)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4.1	0.4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0.1	0
	합계	24.2	0.4
추경(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9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	0
	합계	32	0
추경(C)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18	0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13	0
	합계	5	0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 □ 균형예산 달성계획((Return to Balanced Budgets))

- Economic Action Plan 2014에서는 정부의 관리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개선, 2015-16년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발표
- 정부의 관리효율성 및 공공서비스 개선
  - 정부의 장애 및 질병관리시스템(the Government's disability and sick leave management system)의 현대화(공식적인 단기장애급여의 도입 등)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증대
    - 단기장애급여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65%는 장기장애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병가(13주)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25% 이하는 10일 이하의 병가만 제출하고 있음
  - 공공의료서비스계획(The Public Service Health Care Plan: PSHCP): 정부는 공무원들이 은퇴한 후 향후 2~6년간 발생하는 공공의료서비스 비용의 75%를 부담하기로 함
    - 공공의료서비스계획(PSHCP)으로 인해 6년간 74억캐나다달러(발생주의회계 기준)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 균형예산 달성 계획
  - 2014 예산안에서 향후 6년간 91억캐나다달러 추가재정절감을 통해 균형예산을 달성
  - 세금제도의 공정성 및 무결성(the fairness and integrity of the tax system) 개선을 위한 조치 발표
    - 다국적 기업의 국제 조세회피 해결,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 및 지방정부의 수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에 대한 혜택을 강화
    - 사업 또는 임대주택 소득에 대한 세금확대, 소비세 거짓신고 등 의도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규정 및 벌금 강화, 특정신탁과세에 대한 세금혜택 제거 등

<표 II-7> 균형예산 달성계획(Plan to Return to Budget Balance)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6Year Total
Managing Compensation Costs	△1,109	△1,537	△1,390	△1,221	△1,113	△1,005	△7,375
Improving the Fairness and Integrity of the Tax System, and Strengthening Tax Compliance	△10	△44	△389	△439	△429	△454	△1,765
Total savings measures	△1,119	△1,581	△1,779	△1,660	△1,542	△1,459	△9,140
Responsible Management of National Defence Capital Funding	△592	△575	△900	△1,075			△3,142
Total	△1,711	△2,156	△2,679	△2,735	△1,542	△1,459	△12,282

자료: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 2014.2, Table 4.1.1.

□ 국내외 채무관리를 위한 FY2014-15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

- FY2014-15 채무관리전략은 ‘저비용 자금 조달 및 채무 안정성 증진’을 목표로 함
- (총시장채무) FY2013-14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14-15 총시장채무는 6,480억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계획
- (단기공채 및 유가증권) FY2014-15 유가증권은 약 4,970억캐나다달러, 단기공채는 약 1,300억캐나다달러로 FY2012-13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계획
- (소매채무 및 외채) 소매채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채는 FY2013-14 대비 소폭 증가한 150억캐나다달러로 예상

<표 II-8> FY2014-15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2010-11	2011-12	2012-13	2013-14(전망)	2014-15(계획)
유가증권(Marketable bonds)	416	448	469	474	497
단기공채(Treasury bills)	163	163	181	152	130
소매채무(Retail debt)	10	9	7	6	6
외채(Foreign debt)	8	11	11	14	15
<b>총시장채무</b>	<b>597</b>	<b>631</b>	<b>668</b>	<b>647</b>	<b>648</b>

자료: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 2014.2, Table A1.2.

## 나.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

-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에 향후 6년에 걸쳐 약 58억캐나다달러 지원 예정
  - 노동시장 진입지원,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 자원개발, 자연유산 보존, 인프라와 교통 투자 등에 집중 지원
    - 낮은 세금정책을 유지, 조세 부담 감축, 지속적인 사업 및 투자자 제공 등으로 각 부문에 지원할 예정
    - 노동시장 진입지원 및 강화를 위해 취업보조금(Canada Job Grant)을 지원, 고령층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3년간 7,500만캐나다달러,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에 2년간 약 1,200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요율 하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
      - ※ 캐나다 재무장관은 '14년 6월 회의에서 2009년 이후 약 백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이중 80% 이상이 고임금 정규직이었고, 이는 G7국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가장 큰 성과임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FY2014-15 예산 기조 내용 참조

<표 II-9>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예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3-14	2014-15	2015-16	Total
노동시장 진입 지원(Connecting Canadians With Available Jobs)				
Ensuring Training Reflects Labour Market Needs		7	8	15
Training the Workforce of Tomorrow		66	194	259
Strengthening Canada's Labour Market	2	43	43	89
소계	2	116	245	363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Fostering Job Creation, Innovation and Trade)				
Keeping Taxes Low for Job-Creating Businesses		5	15	20
Fostering Trade and Canadian Entrepreneurship		195	302	497
Supporting Advanced Research and Innovation		423	410	833
Promoting Canada's Financial Sector Advantage		1	2	3
소계		624	729	1,354
자원개발, 캐나다 자연 유산 보존, 인프라 및 교통 투자 (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Conserving Canada's Natural Heritage, and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48	47	94
Supporting Mining, Forestry and Agriculture		86	11	97
Asserting Canada's Sovereignty by Investing in the North		47	43	90
Conserving Canada's Natural Heritage		13	21	3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160	216	376
소계		353	337	691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Consumers First		63	150	214
Investing in Families	3	52	54	108
Investing in Stronger Communities	103	187	352	641
소계	106	302	555	964
총계	108	1,396	1,867	3,371
순재정비용	86	730	1,003	1,819

자료: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 Table 3.0.

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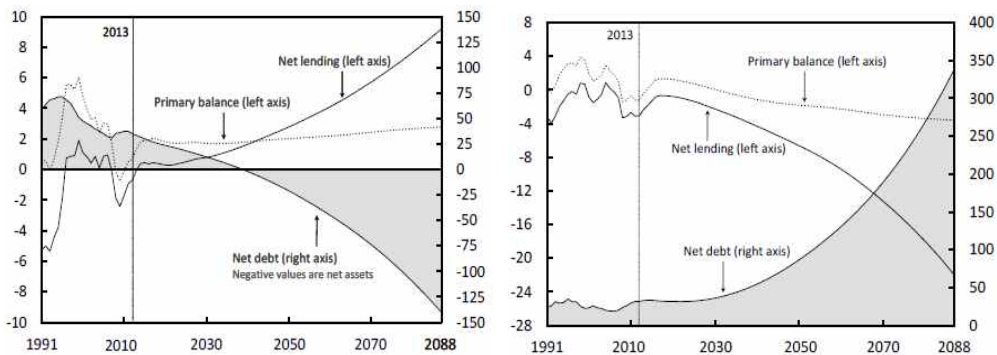
□ 의회예산처(PBO,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2014년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sup>21)</sup> 발표

- PBO는 통계청의 인구 및 거시부문 전망치를 바탕으로 향후 75년 기간의 정부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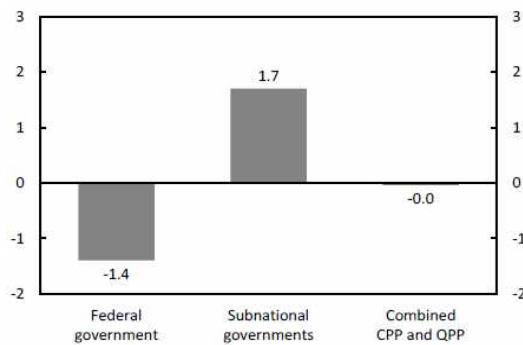
21) 의회예산처(PBO)는 2010년부터 매년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연방정부 및 CPP, QPP<sup>22)</sup>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은 지속가능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
  - (순채무<sup>23)</sup>) 연방정부 순채무는 2013년 말 GDP 대비 35.1%, 2040년에는 순자산 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 31.8% 수준에서 2088년 338.1% 수준까지 증가 예상
  - (재정갭<sup>24)</sup>) 75년을 기준으로 재정갭(fiscal gap)을 추정한 결과, 연방정부 재정갭은 GDP 대비  $\Delta 1.4\%$ 로 나타남 반면 지방정부는  $1.7\%$ 로 나타남

[그림 II-2]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 연방정부 (단위: % of GDP) [그림 II-3]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순채무: 지방정부 (단위: % of GDP)



[그림 II-4] 재정갭 전망 결과 (단위: % of GDP)



자료: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4*, 2014.9.

22) CPP,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연금제도, QPP, Quebec Pension Plan: 퀘벡 연금제도

23) 순채무는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을 의미

24) 재정갭이란 현 부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기초재정수지에서 현 기초재정수지를 뺀 값

### Ⅲ. 일본

□ FY2015: 2015.4. ~ 2016.3.

□ FY2015 예산편성 일지

- 2014. 7.25. FY2015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기준
- 2014. 9. 3. FY2014 각 부처의 예산요구 금액
- 2014. 12.27. FY2015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
- 2015. 1.14. FY2015 예산 정부안 결정
- 2015. 2.12. FY2015 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 출처

- 「平成27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14.7.25.
-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 2014.7.25.
- 「平成27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14.9.3.
- 「平成27年度予算の編成等に関する建議」, 2014.12.25.
- 「平成27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4.12.27.
- 「平成26年度補正予算案」, 2015.1.9.
- 「平成27年度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5.1.12.
- 「平成27年度予算政府案」, 2015.1.14.
- 「我が国の財政事情」, 2015.1.14.
- OECD, *Economic Outlook no.96*, 2014.11.

□ 환율: 100엔 = 약 996.19원(2014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3년 경상GDP 4조 6,126억달러 추정(우리나라 약 2.8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3년 기준 35.1%(우리나라 102.8%)

□ 인구: 1억 2,733만명(2013년 기준)

□ 지난 10년간 성장률 및 인구 추이 :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2015년도 일본경제는 긴급경제대책 등 정책 추진과 고용 및 소득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교역조건 개선 등 경기회복 전망
  - 일본 정부는 2015년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률은 전년 대비 1.5%, 명목성장률은 전년 대비 2.7%로 전망
- 2015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사회보장기금제외)은 약 6.6%, GDP 대비 국채비율은 233.8%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 2015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도 예산에 이어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

◇ 예산안 내용

- FY2015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4,596억엔(0.5%) 증가한 96조 3,420억엔 수준
- FY2015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96조 3,420억엔으로 편성

◇ 주요재정정책

-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2015년도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개발, 경쟁력 강화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재정건전화
  - FY2015 예산안에서는 일본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세출 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4. 4.28.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대책’ 진행상황 발표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4. 5.30.	‘재정건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발표	
2014. 7.25.	‘2015년 예산 개산요구의 기본방침’ 각의 승인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중장기 경제 재정전망’ 발표	
	‘2014년도 연차경제재정보고’ 발표	
2014. 9. 3.	‘2015년도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발표	2015년 1월 제1호 「재정동향」
2014.10.31.	‘일본의 재정관계자료’ 발표	
2014.12.25.	재정제도분과회, ‘20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 발표	
2014.12.27.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	2015년 1월 제2호 「재정동향」
2015. 1. 9.	FY2014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15. 1.12.	‘2015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 각의 승인	
2015. 1.14.	FY2015 정부예산안 발표	2015년 2월 제1호 「재정동향」
2015. 1.26.	FY2014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제출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일본의 2014년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Delta 0.5\%$ , 명목성장률은  $1.7\%$ 로 전망
  - 2014년도 일본경제는 「세 개의 화살」<sup>25)</sup>에 의해 완만한 회복 기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개인 소비 악화 등에 따라 상반기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 이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감소와 수입물가의 상승 등에 기인
  - 소비자물가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낮은 유가 등에 따라  $3.2\%$ 정도로 전망
  
- 2015년도 일본경제는 긴급경제대책 등 정책 추진과 고용 및 소득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교역조건 개선 등 경기 회복이 전망
  - (성장률) 2015년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은  $1.5\%$ , 명목성장률은  $2.7\%$ 를 기록할 전망
  - (물가) 2015년 소비자물가(종합) 상승률은  $1.4\%$ 로 전년도보다 상승률이 낮을 것이며, GDP 디플레이터도 전년도보다 상승률이 낮을 전망
  - (고용) 고용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여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참여 확대로 고용자 수가 완만하게 증가, 완전실업률은 소폭 감소 전망
    - [고용자 수] 전년 대비  $0.3\%$  증가한 5,617만명으로 전망
    - [완전실업률] 전년 대비  $0.1\%p$  감소한  $3.5\%$ 로 전망
  
- 주요기관에서는 소비세 인상과 기술적 침체(technical recession) 등의 영향으로 2015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쟁력 및 잠재 성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0.6\%$ (2015.1), 세계은행(WB)은  $1.2\%$ (2015.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8\%$ (2014.11)로 전망
  - 일본 민간경제연구소 전망치를 종합한 닛케이NEEDS에서는  $1.3\%$ (2014.10)로 전망

25)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

- 일본 중앙은행(BOJ)은 FY2015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을 1.5%(2014.10)에서 2.1%(2015.1)로 상향 조정

<표 Ⅲ-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13	2014	2015	전년 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3		2014		2015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	483.1	491.4	504.9	1.8	2.1	1.7	△0.5	2.7	1.5
민간최종소비지출	296.5	295.3	303.5	2.7	2.5	△0.4	△2.7	2.8	2.0
민간주택투자	15.9	14.6	14.9	12.5	9.3	△7.8	△10.7	1.9	1.5
민간설비투자	68.2	69.6	73.3	4.9	4.0	2.2	1.2	5.3	5.3
민간재고품증가 (기여도)	△3.9	△1.5	△1.5	(△0.5)	(△0.5)	(0.5)	(0.4)	(△0.0)	(△0.0)
재화서비스수출	80.0	87.2	93.8	13.6	4.7	9.0	6.0	7.5	5.2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95.9	100.8	103.6	18.7	6.7	5.1	2.5	2.8	3.9
내수기여도				3.0	2.6	1.2	△1.0	2.0	1.4
민간				2.2	1.8	0.3	△1.3	2.5	2.0
공공				0.8	0.8	0.9	0.3	△0.5	△0.6
외수기여도				△1.2	△0.5	0.5	0.5	0.8	0.1
노동·고용	만명			%					
노동력인구	6,578	6,589	6,596	0.3		0.2		0.1	
취업자 수	6,322	6,354	6,364	0.7		0.5		0.2	
고용자 수	5,564	5,601	5,617	1.0		0.7		0.3	
완전실업률	3.9	3.6	3.5						
생산	%								
광공업생산지수	3.2	△0.5	2.7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1.9	3.1	△1.0						
소비자물가지수	0.9	3.2	1.4						
GDP디플레이터	△0.3	2.2	1.2						
국제수지	조엔			%					
무역서비스수지	△14.4	△11.7	△8.2						
무역수지	△11.0	△8.3	△4.8						
수출	69.8	74.5	80.9	12.2		6.8		8.6	
수입	80.8	82.8	85.7	19.7		2.5		3.5	
경상수지	0.8	5.1	10.2						
GDP 대비 경상수지 (명목, %)	0.2	1.0	2.0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5.1.12.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sup>1)</sup>	△8.6	△8.3	△8.4	△7.7	△6.6
재정수지 <sup>2)</sup>	△9.5	△9.0	△9.1	△8.3	△7.3
국채 비율	209.5	216.5	224.2	230.0	233.8
채권잔액 비율	141(670조엔)	149(705조엔)	154(744조엔)	158(778조엔)	160(807조엔)
국가 및 지방 장기 채무 비율	189(895조엔)	196(932조엔)	201(972조엔)	205(1,009조엔)	205(1,035조엔)
국채의존도 <sup>3)</sup>	47.9	47.6	46.3	43.0	38.3

주: 1) 일반정부를 기반으로 OECD, *Economic Outlook 96*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일반정부를 기반으로 OECD, *Economic Outlook 96*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단년도 특수요인은 제외, 2015년 예산 정부안 내용 포함하지 않음

3)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 2015.1.14.

## 2. 예산기조

### □ 2015년 예산 개산요구의 기본방침(2014.7.25.)

- 2015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14년도 예산에 이어 민간수요 주도의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신축성 있는 예산으로, 정책의 우선순위 재검토,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예산내용을 증점화
  - (연금·의료) 전년도 당초 예산의 자연증가분(8,3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편성
  - (지방교부세교부금) 「중기재정계획」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편성
  - (의무적 경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며, 국세(國勢)조사경비의 증가 등 특수 요인에 대해서는 가산 또는 감산
  - (동일본대지진특별회계에의 세입) 기존 방침에 따라 소요액 요구
  - (기타경비) 전년도 예산액의 90%(요망 기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골태 방침 2014’<sup>26)</sup>, ‘일본재부흥전략 개정 2014’<sup>27)</sup> 등을 바탕으로 한 모든 과제에 대해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범위’를 설정, 각 부처는 요망 기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요구
-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각 부처의 요청·요구 등에 대해서 시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나 각 비용 간 우선순위 선택을 통한 조사를 실시
  -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범위」에서 요구된 경비는 세수 및 세출 등의 동향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에서 설정한 기초재정수지 개선목표 달성가능 범위 내에서 편성
  - 사회보장 4경비<sup>28)</sup>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18조에 따른 판단을 바탕으로 2015년도 증가분 동향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검토
  - 기타 사회보장세제일체개혁 등에 따른 경비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따라 소요 금액을 요구

26) 2014년 6월 24일 각의 결정된 2014년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상반기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27)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중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2014년 개정 내용

28) 사회보장 4경비는 ‘제도로서 확립된 연금, 의료 및 간호의 사회보장 수당 및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2015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2014.12.27.)

○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및 재정의 신뢰 확보)

- 2015년도 예산에서는 재량적 경비 및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세출 재검토, 낭비를 최대한 감축, 민간수요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구하는 정책 중점화를 도모

• 민간 수요 및 이노베이션 유발효과가 높고 긴급성이 높은 것, 규제개혁과 통합하여 논의할 것을 중시하고 유연성 있는 예산 편성

•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제재생과 201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 적자 반감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

• 이를 위해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비사회보장경비를 2014년 대비 최대한 억제, 사회보장경비의 자연증가 재검토 및 효율화·적정화를 도모하여 증가를 최소화 억제

※ 소비세율 10% 인상 시 예정된 정책을 소비세율 8%를 전제로 우선순위 책정

• 또한, 2015년도 예산에서 당면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 중기 재정계획 -을 바탕으로 국가의 일반회계를 최대한 개선, 신규 국채발행액을 2015년도 예산 대비 감소

○ (주요 세출 분야의 노력)

- 국가의 일반회계 세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사회보장, 사회자본경비, 지방재정, 행정 효율화) 및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점화·효율화를 진행

□ 2015년 예산의 포인트<sup>29)</sup>

○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FY2014 추경예산과 FY2015 세제개정과 함께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실현을 추구하는 예산 편성

○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

- i) 지방경제활성화 관점에서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 범위’와 지방재정계획의 세출 프레임 활용, 마을·사람·일자리 만들기 추진

29) 재무성, 「平成2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5.1.14.

- ii) ‘여성이 빛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소비세 증가분을 활용, 어린이·육아 지원을 충실(국가 및 지방: 0.3조엔→0.5조엔)
  - 또한, 의료·개호 분야의 충실(국가 및 지방: 0.2조엔→0.8조엔), 생활의 안전화 확보(국가 및 지방: 1.35조엔) 등을 활용한 사회보장충실(국가 및 지방: 1.36조엔)
- iii)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개호서비스요금(개호보수)을 인하, 개호보험료 상승을 억제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개정률: △2.27%)
- iv) 사전방재·감재 대책의 충실, 노후화 대책 등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후쿠시마 재생을 가속화
- v) 외교 및 안보 재건의 관점에서 외교 예산과 방위비 정비
- 재정건전화 목표
  - 2015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반감(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도 중기재정계획 상 목표 달성)
  - 전년 대비 국채발행액 4조엔 감액

### 3. 예산안 내용

<표 III-3> FY2015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4	FY2015	비교증감액	증감률
	당초(A)	전망(B)	(B-A)	(%)
<b>세 입</b>				
1. 조세 및 인지수입	500,010	545,250	45,240	9.0
2. 기타 수입	46,313	49,540	3,226	7.0
3. 공채금(국채발행)	412,500	368,630	△43,870	△10.6
(1) 공채금	60,020	60,030	10	0.0
(2) 특례공채금	352,480	308,600	△43,880	△12.4
<b>계</b>	<b>958,823</b>	<b>963,420</b>	<b>4,596</b>	<b>0.5</b>
<b>세 출</b>				
1. 국채비	232,702	234,507	1,805	0.8
2.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726,121 (161,424)	728,912 (155,357)	2,791 (△6,067)	0.4 (△3.8)
<b>계</b>	<b>958,823</b>	<b>963,420</b>	<b>4,596</b>	<b>0.5</b>

자료: 재무성, 「平成27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15.1.14.

#### 가. 세입

- FY2015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4,596억엔(0.5%) 증가한 96조 3,420억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 FY2014 예산(당초) 대비 9.0% 증가한 54조 5,250억엔 예상
    - 전년 대비(당초예산) 상속세(14.0%), 원천소득세(11.7%), 소비세(11.6%), 법인세(9.7%) 등이 큰 폭 증가한 반면, 항공기연료세(△3.8%), 자동차중량세(△3.4%), 휘발유세(△3.1%) 등은 감소
  - (기타수입) FY2014 예산(당초) 대비 3,226억엔(7.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채발행액) FY2014 예산(당초) 대비 4조 3,870억엔(△10.6%) 감소한 36조 8,630억엔으로 조세 및 인지수입(세수)보다 하회할 것으로 예상

<표 Ⅲ-4> FY2015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4		FY2015	전년 대비			
	예산 (당초)	추경	예산안	예산 (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22,620	131,450	137,010	14,390	11.7	5,560	4.2
신고소득세	25,280	26,720	27,410	2,130	8.4	690	2.6
(소득세 계)	(147,900)	(158,170)	(164,420)	(16,520)	(11.2)	(6,250)	(4.0)
법인세	100,180	105,130	109,900	9,720	9.7	4,770	4.5
상속세	15,450	17,480	17,610	2,160	14.0	130	0.7
소비세	153,390	153,390	171,120	17,730	11.6	17,730	11.6
주 세	13,410	13,410	13,080	△330	△2.5	△330	△2.5
담배세	9,220	9,220	9,060	△160	△1.7	△160	△1.7
취발유세	25,450	25,450	24,660	△790	△3.1	△790	△3.1
석유가스세	100	100	100	0	0.0	0	0.0
항공기연료세	530	530	510	△20	△3.8	△20	△3.8
석유석탄세	6,130	6,130	6,280	150	2.4	150	2.4
전원개발촉진세	3,270	3,270	3,230	△40	△1.2	△40	△1.2
자동차중량세	3,870	3,870	3,740	△130	△3.4	△130	△3.4
관세	10,450	10,450	11,170	720	6.9	720	6.9
톤세	100	100	100	0	0.0	0	0.0
인지수입	10,560	10,560	10,270	△290	△2.7	△290	△2.7
<b>합계</b>	<b>500,010</b>	<b>517,260</b>	<b>545,250</b>	<b>45,240</b>	<b>9.0</b>	<b>27,990</b>	<b>5.4</b>

자료: 재무성, 「平成27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5.1.14.

## 나. 세출

□ FY2015 세출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0.5% 증가한 96조 3,420억엔으로 편성

-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FY2014 추경예산과 FY2015 세제개정과 함께 경제재생과 재정 건전화의 양립 실현을 추구
  - 사회보장관계비(3.3%)와 방위관계비(2.0%) 증가, 연금관계비(△11.5%)와 에너지 대책비(△6.8%)의 감소가 두드러짐
  - 국채비는 0.8% 증가한 23조 4,507억엔으로 전망됨

□ FY2015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전년 대비 1조 30억엔(3.3%) 증가한 31조 5,297억엔 편성
  - 소비세 증가분(1.35조엔)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을 충실히 시행, 건강보험 및 난치 병 대책 등 의료·개호 서비스 개혁 추진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전년 대비 717억엔(△1.3%) 감소한 5조 3,613억엔 편성
  - [교육예산] 초·중·고등학교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 보습지도원 등 외부인제 확충, 글로벌 인재 육성, 무이자장학금 대출인원 확충 등 '교육재생'에 이바지하는 시책 중점화
  - [과학기술] 연구개발법인을 핵심으로 한 국제적인 산학관 공동연구거점(혁신허브) 구축 등 시스템 개혁 추진
- (공공사업관계비) 전년 대비 26억엔(0.0%) 증가한 5조 9,711억엔 편성
  - 인프라노후화 대책 가속 및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방재대책 강화
  - 물류네트워크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 (방위관계비) 전년 대비 953억엔(2.0%) 증가한 4조 9,801억엔 편성
  - 경계감시 능력강화 및 연안 감시 체제 정비, 도서 지역 공격에 대한 대응 강화, 오키나와 재일본군 재편사업도 꾸준히 추진

<표 Ⅲ-5> FY2015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4	FY2015	비교증감액	증감률
	당초(A)	전망(B)	(B-A)	(%)
사회보장관계비	305,266	315,297	10,030	3.3
문교 및 과학진흥비	54,330	53,613	△717	△1.3
국채비	232,702	234,507	1,805	0.8
연금관계비	4,443	3,932	△511	△11.5
지방교부세교부금	161,424	155,357	△6,067	△3.8
방위관계비	48,848	49,801	953	2.0
공공사업관계비	59,685	59,711	26	0.0
경제협력비	5,098	5,064	△34	△0.7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853	1,856	3	0.2
에너지대책비	9,642	8,985	△657	△6.8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0,507	10,417	△90	△0.9
기타 경비	61,526	61,379	△147	△0.2
예비비	3,500	3,500	-	-
<b>합계</b>	<b>958,823</b>	<b>963,420</b>	<b>4,596</b>	<b>0.5</b>

자료: 재무성, 「平成27年度一般会計歳入歳出概算」, 2015.1.14.

<참고 III-1> FY2015 부흥 특별회계예산의 개요

(단위: 억엔)

세 입	
부흥특별세	3,436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5,882
세외수입	1,144
부흥채	28,625
<b>계</b>	<b>39,087</b>
세 출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32,269
부흥관계공공사업 등	9,872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5,898
동일본대지진재해 부흥 교부금	3,173
원자력 재해 부흥 관계 경비	7,717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로의 전입	818
부흥가속화·후쿠시마재생 예비비	6,000
<b>계</b>	<b>39,087</b>

자료: 재무성, 「平成27年度予算政府案」, 2015.1.14.

<참고 Ⅲ-2> FY2014 1차 추경예산

□ 지방의 선순환 확대를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위해 약 3.5조엔 규모의 FY2014 추가 경정예산 편성

- 지방경제활성화 약 6,000억엔,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 약 1조 2,000억엔, 재해복구와 부흥에 약 1조 7,000억엔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
-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의 엔저효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소비세 인상 후 가계의 소비 위축 등을 완화시키기 위함이 목적
- 재정재원은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당해 연도 세수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충당할 계획

<FY2014 1차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출		세입	
내역	금액	내역	금액
1. 생활자(가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관련 경비	11,854	1. 세수	17,250
2.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 경비	5,783	2. 세외수입	1,036
3. 재해위기 대응 경비	7,578	3. 전년도잉여금수입	10,622
4. 지방교부세교부금	9,538		
5. 기타 경비	4,463		
6. 기본경비 감액	△17,880		
(1) 국채비	△15,142	4. 채권금	△7,571
(2) 기타	△2,738	5. 전년도잉여금수입(부흥재원)	9,731
7. 동일본대지진 부흥특별회계로의 전입	9,844	6. 세외수입(부흥재원)	113
<b>합계</b>	<b>31,180</b>	<b>합계</b>	<b>31,180</b>

-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권금의 경우 건설국채를 증액시키고 적자 국채를 감액  
 3) 경제대책의 국비: 35,289억엔(일반회계의 세출 1~3, 7, 특별회계(재정투융자특별회계투자계정) 세출 230억엔의 합계)  
 4)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회계로의 전입 중 7,247억엔(재정법 제6조 순잉여금의 2분의 1에 상당)에 대해서는 부흥채권의 상환재원으로 충당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補正予算案」, 2015.1.9.

## 4. 주요 재정정책

###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2015년도 예산의 중점 정책(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 추진범위)<sup>30)</sup>

□ 2015년도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및 혁신개발, 경쟁력 강화 등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과제를 중점화

- 마을·사람·일자리 만들기, 여성의 활약추진
  -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쟁력 강화: 66억엔
    - 외부 인력을 활용한 방과 후 아이교실(12,000개소→14,000개소), 토요일 학습(4,850개소→12,000개소) 확충 등 실시
  - 농림수산업 인재확보 및 육성: 262억엔
    - 농림수산업에 취농 전후의 청년에 대한 지원 등
  - 혁신적인 제조 산업의 창출: 129억엔
    - 중소기업 사업자와 대학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혁신적인 제조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
  - 지역경제순환창조사업교부금(23억엔), 지역의 거주기능 재생(195억엔),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142억엔)
- 교육재생
  - 대학 장학금 사업 총실: 748억엔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장학금 신규 대출 인원을 8,600명 증원
- 혁신개발(혁신촉진)
  - 과학기술혁신개발: 249억엔
    - 연구개발법인을 핵심으로 한 국제적인 산학관 공동연구거점(혁신허브) 구축과 지역에서 혁신거점 형성 등 혁신시스템 개혁 추진

30) FY2015 정부 예산안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경쟁력 강화
  -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본격화: 190억엔
    - 농지 집약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운영 농지에 대한 협력금의 교부 등 지원
- 개방적인 나라 만들기
  - 전략적 대외발신의 강화: 199억엔
    - 해외에서의 일본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전략적 대외발신을 강화

나. 재정건전화

1) 세출 분야의 효율화<sup>31)</sup>

□ 일본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세출 분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

- 개호보수
  - (개호보험료 상승 억제) 향후 예정된 약 15%의 개호보험료 인상을 억제
  -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경감) 평균 2.27% 감소
    - 입소자의 이용자 부담: 월 2.8만엔(식비, 주거비 제외)
  - (개호직원 월급 인상) 직원 처우 개선(월 1.2만엔, 약 140만명)
    - 현재까지 월 3만엔 정도 개선, 향후 총 4.2만엔정도 실현
    - 확실한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 집행을 엄격화
  - (개호 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확보)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마진 확보(평균 4%, 약 19만 사업소)
    -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의 정비 등 지역지원사업에 총 961억엔 편성
- 생활보호의 재검토
  - (주택부조기준의 재검토)
    - 임대료에 대한 주택부조 지급기준에 대해 각 지역 가구 규모별 임대료 실태를 반영하여 최근 집세물가동향(전국평균  $\Delta$ 2.1%) 등을 감안하여 검토

31) FY2015 정부 예산안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 (동계 가산 재검토)

- 겨울철 광열비 등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1~3월 생활부조비용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동계 가산에 대해 동계 증가액의 지역별 실태와 최근 광열비 물가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

○ 지방교부세, 의무교육비 국고보조금, 대학개혁

- 리먼브라더스 쇼크 후 위기 대응인 지방교부세의 별도 기준 가산 감액(0.6조엔→0.2조엔)에 의해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을 감액(16.1조엔→15.5조엔)
- 공립 초등·중학교 교직원 수에 대해 기존 정원 합리화 감축(△1,000명)하는 한편, 과제 해결형 수업(활성학습)의 추진 등 개별 교육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일반 운영비 교부금의 5%를 학장재량경비로 마련, 학교 내 자원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구조를 시범적으로 도입

2) 「FY2015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건의」<sup>32)</sup>

□ 재정현황과 문제점

- 사회보장 및 지역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 현 세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재정악화의 요인

□ 재정건전화의 기본방침

- 정부는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에 대해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계획 필요
-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
- 사회보장 이외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행정서비스 재검토와 세출효율화를 통해 세출을 최대한 억제

32) 본 내용은 2014년 12월 25일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의 「平成27年度予算の編成等に関する建議」를 요약한 내용이며, 일본 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건전화의 기본방침과 201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함

□ 2015년도 예산편성의 과제

- (소비세율 인상 연기<sup>33</sup>) 및 재정건전화 목표)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인해 어려워진 201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반감목표 달성을 철저한 세출 감소 및 세입확보를 통해 착실히 달성해야 함
  - 또한, 소비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로 했던 사회보장 충실화 정책 재검토는 불가피하므로 2015~2016년도에 우선순위 책정이 필요
- (경제대책과 FY2014 추경예산 편성) 경제대책 및 FY2014 추경예산 규모 및 각 사업 내용에 대해 확실히 조사할 필요
  - 향후 인구감소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재검토 및 계획과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
- (마을·사람·일자리 창출) 기존 보조금의 통합 등을 통한 재원확보, 명확한 성과지표를 활용한 정책목표 설정, 정확한 효과검증 실시가 필요
- (기금의 적정화) 매 회계연도 PDCA사이클<sup>34</sup>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예산조치 억제 및 불용액 국고반납에 노력해야 함
- (2015년 하반기 재정건전화 계획) 2015년 여름까지 2020년도의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 4월에 소비세율을 확실히 인상해야 함

<참고 Ⅲ-3> 중장기 경제재정전망(2014.7.25.)

- (경제) 향후 10년(2013~2022년) 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2%, 평균 명목GDP 성장률은 3%를 나타낸 전망
  - (가정)
    - 세계경제 상승 추이에서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대담한 금융정책, 구조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현
  -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중기적으로 2%대에 근접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낼 전망

33) 2014년 11월 18일 아베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10월 소비세율 인상(10%)을 18개월(2017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

34) Plan, Do, Check, Action의 4단계

□ (재정) 2020년도 GDP 대비 국가 및 지방 기초재정수지는  $\Delta 1.8\%$ 로 흑자달성 목표를 위한 수지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GDP 대비 채무잔고(부흥채 제외)는 약 185.5%로 안정적인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가정)

- 201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고령화 요인 등에 의한 사회보장 세출 증가, 사회보장 외 일반세출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

- 또한, '부흥채원확보법' 등을 바탕으로 한 복구·부흥대책 실시 및 부흥특별세 실시, 부흥채 발행을 가정

○ 2015년도 GDP 대비 국가 및 지방 기초재정수지(복구·부흥대책 경비 및 재원 금액 제외 베이스)는  $\Delta 3.2\%$ 로 재정적자 반감목표(2010년 수준의 절반, GDP 대비  $\Delta 3.3\%$ )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단위: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실질GDP 성장률	2.3	1.2	1.4	1.8	1.9	2.1	2.3	2.3	2.3	2.4	2.4
명목GDP 성장률	1.9	3.3	2.8	3.6	3.4	3.5	3.6	3.6	3.7	3.7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0.9	3.2	2.5	2.7	2.0	2.0	2.0	2.0	2.0	2.0	2.0
완전실업률 <sup>1)</sup>	3.9	3.5	3.5	3.4	3.3	3.3	3.2	3.2	3.3	3.3	3.3
기초재정수지 (명목GDP 대비)	$\Delta 6.2$	$\Delta 5.1$	$\Delta 3.2$	$\Delta 2.4$	$\Delta 2.2$	$\Delta 2.1$	$\Delta 2.0$	$\Delta 1.8$	$\Delta 1.5$	$\Delta 1.3$	$\Delta 1.1$
채무잔고 (명목GDP 대비)	192.3	192.7	192.5	190.4	189.0	187.7	186.4	185.5	184.6	183.9	183.5

주: 1) 완전실업자는 직업이 없으나 직업이 생기면 바로 취업가능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완전실업률은 노동력인구(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합계)에서 완전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4.7.25.

<참고 Ⅲ-4> 소비세 증가분을 활용한 사회보장 충실·안정화

-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에 의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포함한 소비세 수(국가·지방, 현행 지방소비세수 제외)는 모두 사회보장 재원화함
- 2015년도 소비세 증가분 8.2조엔은 사회보장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건전화 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사용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의 50% 인상에 대해 약 3조엔 충당
  - 사회보장 경비는 후대의 부담 경감에 사용
- 2015년도 소비세 증가분 내역
  -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 50% 인상('13, '14년도 포함): 3조엔
  - 사회보장 충실: 1.35조엔
    - 어린이·육아지원, 의료·개호 충실, 연금제도 개선 등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사회보장 4경비 증가: 0.35조엔
    - 진료보수, 개호보수, 연금 등에 대한 물가 상승에 따른 증가
  - 후대의 부담 경감: 3.4조엔

<2015년도 사회보장 충실 개요>

(단위: 억엔)

		사업내용	'15년 예산안	국가	지방
어린이·육아지원		새로운 어린이·육아지원 실시	4,844	2,195	2,649
		사회적 양호의 충실	283	142	142
		육아 휴직 중의 경제적 지원 강화	62	56	6
의료·개호	의료·개호 서비스 제공 체제개혁	기능 분화, 제후혜택 의료의 추진 등			
		지역의료간호 종합보장기금(의료분)	904	602	301
		2014년도 진료보수개정의 소비세 재원 활용분	392	277	11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지역의료간호 종합보장기금(개호분)	724	483	241

		사업내용	'15년 예산안	국가	지방
		소비세 재원 활용에 따른 2015년도 개호보수개정의 개호직원처우개선 등	1,051	531	520
		재택의료 및 개호 연계 등 지역지원 사업 충실	236	118	118
의료·개호보 험제도개혁		국민건강보험 등의 저소득보험료 경감 조치 확충	612	0	61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원 확충	1,864	1,032	832
		피고용자 보험 출금에 대한 지원	109	109	0
		고액 요양비 제도의 재검토	248	217	31
		개호보험 제1호 보험료의 저소득자 경감 강화	221	110	110
난치병·소아 만성질병에 대한 대응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 확립 등	2,048	894	1,154
연금		유족기초연금의 부자(父子)가정에 대한 대상 확대	20	20	0
합계			13,620	6,786	6,833

자료: 재무성, 「平成27年度予算政府案」, 2015.1.14.

## IV. 프랑스

□ FY2015: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출처

- 2015년 예산법안(PLF 2015: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 2015년 예산안 관련 부속서류
  - Le dossier de presse du PLF 2015, L'essentiel du PLF 2015,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등
- 2014-2019 중장기 예산법안(LFPF 2014 a 2019: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14 a 2019)
- 201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LFSS 2015: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FY2014 2차 수정예산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4)

□ 환율: 1유로 = 약 1398.8원(2014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3년 경상GDP 2조 4,748억달러(우리나라 1.5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3년 기준 58.0%(우리나라는 102.8%)

□ 인구: 약 6,589만명(2013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lt;요 약&gt;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2015년은 2014년보다 경제활동이 회복되어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1%로 전망되며, 이후 2016년은 1.7%, 2017년은 1.85%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재정전망) 2015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1.8% 정도 감소한 3,679억유로이며,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2,926억유로로 전망

## ◇ 예산기조

-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00억유로의 지출 절감을 계획
-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고용과 투자, 청년과 교육, 가계 구매력 강화와 불평등 감소, 건설 및 주택마련의 4가지 분야

##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5년 재정수입은 2,926억유로이며 이 중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2.1%(56억유로) 증가한 2,789억유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4억유로) 감소한 137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15년 재정지출은 3,679억유로로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반면, 국방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 주요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2015-17년 500억유로의 지출절감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210억유로, 2016-17년에 연간 145억유로씩 290억유로를 감축할 계획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가계 구매력, 건설 및 주택, 에너지전환, 해외영토의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세제혜택 확대 정책과 교육, 사법 및 치안 분야에 중점을 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할 계획
- (사회보장) 2015년 사회복지기관 관리 5억유로, 가족수당 7억유로 등 56억유로의 지출절감을 통해 재정적자 목표 134억유로를 달성할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4년 3월 20일	FY2013 사회보장예산 집행결과 발표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4년 3월 31일	FY2013 재정 집계결과 발표	
2014년 4월 23일	2014-2017 안정화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 발표	
2014년 5월 28일	FY2013 결산보고서 발표	
2014년 6월 5일	FY2013 사회보장예산 결산 발표	
2014년 6월 11일	FY2014 수정예산안(PLFR) 발표	
2014년 6월 18일	FY2014 사회보장수정예산안(PLFRSS) 발표	
2014년 7월 1일	FY2014 수정예산안(PLFR) 채택	
2014년 9월 30일	FY2015 사회보장예산법안(PLFRSS) 발표	
2014년 10월 1일	FY2015 예산법안(PLF) 및 2014-2019 중장기 예산법안(PLPFP) 발표	
2014년 11월 12일	FY2014 2차 수정예산안(PLFR) 발표	
2014년 12월 1일	FY2015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의회 통과	2015년 1월 1호 「재정동향」
2014년 12월 18일	FY2015 예산법안 의회 통과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2015년은 2014년보다 경제활동이 회복되어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6%p 증가한 1%로 전망되며, 이후 2016년은 1.7%, 2017년은 1.85%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물가)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는 0.9%로 저인플레이션을 나타낼 전망
  - (소비) 2015년 소비는 저인플레이션과 구매력상승으로 전년 대비 1%p 상승한 1.3%로 전망
  - (기업투자) 2015년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sup>35)</sup>와 책임·연대 협약(Pacte de responsabilité et de solidarité)<sup>36)</sup>의 시행으로 기업투자는 전년 대비 1.5%p 상승한 0.9%로 전망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책임·연대 협약의 시행은 기업의 노동비용을 감소
  - (무역) 수출은 유럽무역상대국의 수요 증가로 2014년 2.8%에서 2015년 4.6%로 가속화될 전망

&lt;표 IV-1&gt; 프랑스 거시경제전망

(단위: %)

	2013년	2014년	2015년
프랑스 GDP	0.3	0.4	1.0
가정소비	0.2	0.3	1.3
기업투자	-0.9	-0.6	0.9
수출 <sup>1)</sup>	2.2	2.8	4.6
수입 <sup>1)</sup>	1.7	2.6	3.6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0.7	0.5	0.9

주: 1) 성장률

자료: *L'essentiel du PLF 2015*.

35) 기업의 연구, 혁신 그리고 신시장 발굴 등의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2013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IV. 프랑스 참고)

36) 사회연대분담금세(C3S) 폐지, 고용주 사회보장 부담금 폐지, 법인세율 인하(2020년까지 28%) 등

나. 재정전망

1) 세입 및 세출전망

□ (지출) 2015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3,746억유로) 1.8% 정도 감소한 3,679억유로로 전망

- 2015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전년 대비 0.4%p 감소한 56.1%이며, 2016년에 55.5%, 2017년에 54.5%로 점차 하락할 전망
- 명목지출 증가율은 2014년 1.4%에서 2015년 1.1%로 하락하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인플레이션율에 근접하게 변화할 전망
  - 실질지출 증가율은 2014년 0.9%에서 2017년 0%로 하락할 전망

□ (수입) 2015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2,873억유로) 1.8% 증가한 2,926억유로로 전망되며, 이 중 조세수입은 2,789억유로, 세외수입은 137억유로

-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인 조세부담 경감조치로 2014년에 44.7%, 2015년에 44.6%, 2016년에 44.5%, 2017년에는 44.4%로 점점 하락하여, 2014년과 2017년 사이에 총 0.3%p 감소할 전망
  - 조세부담 경감은 주로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책임·연대 협약에 기인하며, 2017년까지 총 400억유로 감소 전망

<표 IV-2> 프랑스 FY2015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3 결산	2014			2015 예산법안
		본예산	1차 수정	2차 수정	
재정지출(Dépense nettes)	373.1	379.7	376.3	374.6	367.9
재정수입(Recettes nettes)	297.7	298.2	293.4	287.3	292.6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84.0	284.4	279.0	273.2	278.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3.7	13.8	14.4	14.1	13.7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75.4	-81.6	-82.9	-87.3	-75.3
부속예산(Solde du budget annexes)	0.0	0.0	0.0	0.0	0.0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0.6	-1.0	-1.0	0.3	-0.4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74.9	-82.6	-83.9	-87.0	-75.7

자료: PLF 2015.

&lt;표 IV-3&gt;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세부담률	44.7	44.7	44.6	44.5	44.4
재정지출	56.4	56.5	56.1	55.5	54.5
명목지출 증가율(%)	2.0	1.4	1.1	1.9	1.8
실질지출 증가율(%)	1.3	0.9	0.2	0.5	0.0
인플레이션(%)	0.7	0.5	0.9	1.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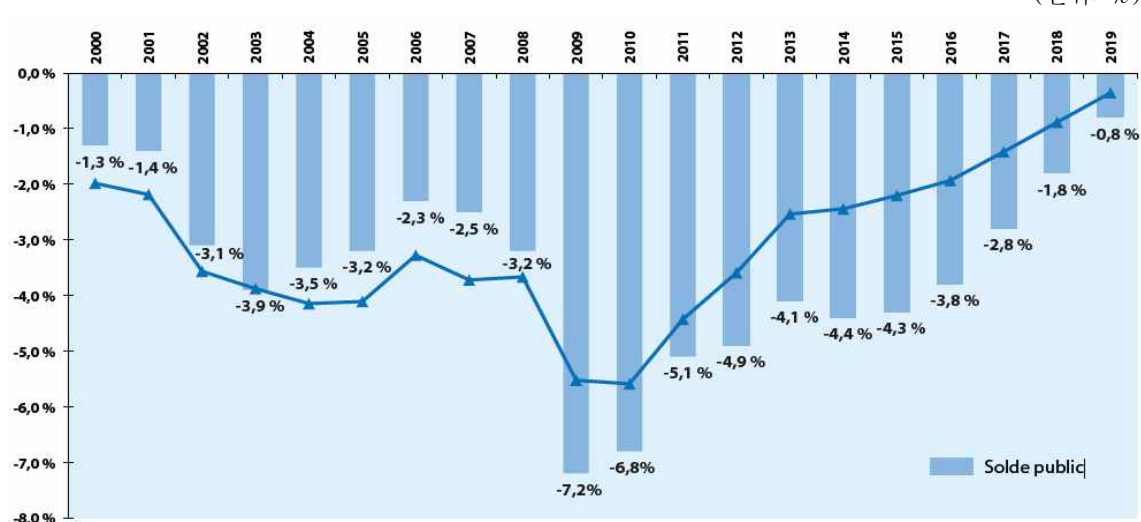
자료: LPFP 2014-2019.

## 2) 재정수지

- GDP 대비 재정적자 3% 달성을 2017년으로 계획하여 재정적자는 2015년 GDP 대비 4.3%에서 2016년 3.8%, 2017년 GDP 대비 2.8%로 감소할 전망
  - 구조적 재정적자의 중기목표<sup>37)</sup>인 GDP 대비 0.5% 미만 달성을 4월 안정화프로그램 보다 2년 늦춘 2017년→ 2019년으로 연기

[그림 IV-1] 2000-2019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단위: %)



Sources : 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자료: PLF 2015.

37) 유럽통화동맹의 안정, 협력 및 지배구조 협약(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하의 중기재정목표(medium-term objective)

<표 IV-4> 2014~2019년 재정수지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조적 재정수지	-2.4	-2.2	-1.9	-1.4	-0.9	-0.4
재정수지	-4.4	-4.3	-3.8	-2.8	-1.8	-0.8

자료: LPFP 2014-2019.

### 3) 부채비율

□ 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2015년 GDP 대비 97.2%에서 2016년 98.0%의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를 이어가 2019년 92.9%를 기록할 전망<sup>38)</sup>

- 2015년의 부채증가속도는 경제상황 및 재정수지의 개선으로 2014년보다(3.1%) 완화된 1.9%이며, 부채비율 안정화수지<sup>39)</sup>와 재정수지의 차이는 2015년 전년 대비 0.8%p 감소한 2.5%로 전망

<표 IV-5> 2014년~2019년 부채비율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채무 <sup>1)</sup>	95.3	97.2	98.0	97.3	95.6	92.9
국가채무 <sup>2)</sup>	92.1	94.0	94.9	94.4	92.7	90.2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포함(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제외

자료: LPFP 2014-2019.

<표 IV-6> 부채비율 안정화 수치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3	2014	2015
국가채무 <sup>1)</sup>	89.2	92.1	94.0
국가채무 <sup>2)</sup> (1)	92.2	95.3	97.2
명목GDP 성장률(%) (2)	1.1	1.2	1.9
부채비율 안정화수지 $(3)_n \approx (1)_n \times (2)_n$	-1.0	-1.1	-1.8
재정수지 (4)	-4.1	-4.4	-4.3
부채비율 안정화수지의 차이 (5) = (3)-(4)	3.2	3.3	2.5
융자 등 채권 (6)	-0.2	-0.2	-0.6
부채비율의 변화율 (7) = (5)+(6)	3.0	3.1	1.9

주: 1)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제외

2)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효과포함(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tome I.

38)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지원 포함(마스트리히트 조약기준)

39) 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재정수지의 적정 수준

## 2. 예산기조

- 증세 없이 지출감축에 주력하는 재정건전화를 시행하며, 지출감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투자
- 2017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재정지출관리 프로그램으로 2015-17년간 500억유로의 지출절감<sup>40)</sup>을 계획하였으며, 이는 2015-17년간 연평균 실질지출 증가율을 0.2%\*로 제한
    - ※ 지출의 자연증가율은 연금, 의료지출 등을 고려하여 1.7% 정도
  - 지출감축을 통해 마련한 500억유로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인 고용과 투자, 청년과 교육, 가계 구매력 강화와 불평등 감소, 건설 및 주택마련의 4가지 부문에 투입할 예정
    - (고용과 투자)
      - 기업의 노동비용 감축, 고용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책임·연대 협약 이행을 위해 향후 3년간 200억유로 투자
      - 에너지혁신에 기여한 업무에 적용하는 지속가능개발 세액공제율(credit d'impôt développement durable) 30%로 인상
      - 미래투자프로그램(PIA: programme d'investissement d'avenir)<sup>41)</sup>의 지출규모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새로운 세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획계약(CPER: Contrats de Plan État-régions)<sup>42)</sup>으로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체계 정비
      -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프랑스 도로인프라 재정조달청(AFITF: Agence de Financement des Infrastructures de Transport de France)에 2개의 새로운 수입원 할당: 대형트럭 통행요금, 디젤연료 소비세 1리터당 2센트씩 인상

40) 자세한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의 재정건전화' 참고

41) 기술과 혁신을 촉진시켜 프랑스 경제 재건과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프로그램(2014년 주요국 예산안 참고)

42) 프랑스는 1983년 이후부터 국가와 지역 간의 '계획계약(CPER: Contrats de plan Etat-Région)'을 통해 지역개발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14.12.2에 2015-202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획계약(CPER)으로 총 125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청년과 교육)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내 각각 9,561개와 1,000개의 일자리 창출
- 시민자원봉사 단체(Service Civique)에 1억 2,500만유로를 지원하여 16-25세 청년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연대의식과 자립심 고취
- 18-25세 실직 청년층에 '연대촉진수당(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sup>43)</sup>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을 위해 1억유로 재정투입
- 저소득층의 장학금 연간 1,000유로 지원을 위해 7,750만유로 재정투입

- (가계 구매력 강화와 불평등 감소)

- 소득세의 최저 과세표준 구간 6,011유로~11,991유로에 적용되는 세율 5.5% 폐지

- (건설 및 주택마련)

- 제로금리 대출(PTZ: Prêt à Taux Zéro)과 사회주택 마련 대출을 혼합시켜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며, 제로금리 대출(PTZ) 제도를 '17.12.31까지 연장 시행
- 도시재생정책으로 개발된 1,300개 신시가지에서 저소득층의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율 5.5% 감면
- '15.1.1부터 신규주택 증여 시 10만유로 세금감면
- '15.12.31 이전에 완료된 부동산 매도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30% 특별공제 적용

---

43) 실업 수당보다 적은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재취업하는 실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

### 3. 예산안 내용(PLF 2013)

- 2015년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5)은 2014년 10월 1일에 발표되어 12월 18일 예산법(LF 2015: Loi de finance)으로 통과

#### 가. 세입내역

- 2015년 재정수입은 2014년 수정전망 대비 1.8% 증가한 2,926억유로로 전망
- 2015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2.1%(56억유로) 증가한 2,789억유로로 전망되며, 56억 유로의 전년 대비 증가분 중 48억유로(1.7%)는 경제성장에 의한 자연증가분<sup>44)</sup>
    - 나머지 조세수입 증가분은 2015년 예산안 이전 조치의 효과(22억 1,500만유로), 2015년 예산안의 새로운 세금정책(-28억유로), 기타 이전(transfert) 수입(11억 900만유로)로 구성
      - 새로운 세금정책으로 28억유로의 세수감소 전망: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세 개편 -32억유로, 에너지 전환(transition énergétique) 세액공제 시행 -2억유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1억유로, 디젤연료 소비세율 인상 8억유로 등
    - 2015년 세입 중 부가가치세 51.1%, 소득세 24.9%, 법인세 11.9%순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15년 소득세는 전년 대비 0.8%(6억유로) 증가, 법인세는 전년 대비 약 6.5% (-23억유로) 감소,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약 3.5%(48억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4억유로) 감소한 137억유로로 전망
    - 2015년 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4억유로 감소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입 감소(금융기업 -2억유로, 비금융기업 -5억유로)와 무역회사인 코파스(COFACE)<sup>46)</sup>의 부채상환(-2억유로)가 외국차관 수입증가(5억유로)와 상쇄되어 발생

44) 조세수입의 변화는 경제활동에 따른 세수기반 자연역학(natural dynamics of the tax base)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세외수입은 국가와 기관 간 협약이나 특정한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음

45) 조세수입의 자연증가분은 원래 51억유로이나 소송 등 예외적인 사건의 영향을 교정하여 48억 유로이며, 48억유로는 주로 소득세 18억유로, 부가가치세 19억유로 증가에 기인

46) 코파스(Compagnie française du Commerce extérieur, COFACE)는 프랑스의 기업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수출보험업무를 수행

<표 IV-7> FY2015 세입전망

(단위: 십억유로)

	2014 본예산	2014 1차 수정	2014 2차 수정	2015 예산법안
I.재정수입	298.2	293.4	287.3	292.6
II.조세세입	284.4	279.0	273.2	278.9
소득세	74.4	71.2	68.9	69.5
법인세	38.9	36.0	35.4	33.1
에너지제품소비세	13.3	13.6	13.4	14.6
부가가치세	139.5	140.0	137.8	142.6
기타 세입	18.4	18.3	17.7	19.1
III.세외수입	13.8	14.4	14.1	13.7

자료: PLF 2015.

나. 세출내역

- 2015년 재정지출은 3,679억유로로 2014년 수정전망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지출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30개의 미선별 지출 중 20개 분야가 전년 대비 감소되거나 동결
- 지출절감 노력에 참여한 주요 미선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교 분야: 외교부 인원삭감, 국제기구 분담금과 평화유지활동 축소, 프랑스 대학의 해외분교 지원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0.02% 감소한 28억유로
    - 농업·임업·수산업 분야: 농업부 산하의 농업공제조합(Mutualite Sociale Agricole: MSA)<sup>47)</sup>의 공제 축소로 5,000만유로 절감 등 전년 대비 0.25% 감소한 약 26억 8,000만유로
    -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분야: 수자원공사 운영자본 1억 7,500만유로 축소 등 전년 대비 0.41% 감소한 약 67억유로
    - 경제 분야: 중앙은행의 보조금 1,100만유로 삭감,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조금 2% 축소 등 전년 대비 0.08% 감소한 약 16억유로
    - 퇴역군인 지원 분야: 국방 기념일의 운영비 60만유로 감소, 반유대주의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600만유로 감소, 퇴역군인 연금 1억 5,000만유로 감소 등 전년 대비 0.15% 감소한 약 27억유로

47) 농업공제조합은 농업의 피용자나 자영자의 질병이나 산재 등을 보장

- 노동 및 고용 분야: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와 책임·연대 협약의 시행으로 노동시장이 성장하여 정부보조금 300억유로 절감 등 전년 대비 0.34% 감소한 약 111억유로
-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 반면, 국방 분야 지출이 가장 크게 감액됨
  - 교육 분야: 2015년 학교 내 9,56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사의 보상체계 개선, 초등학교 수업 일수 증가(주4일→4.5일) 관련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장애 학생지원 강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474억유로
  - 국방 분야: 전년 대비 0.5% 감소한 291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군사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militaire)에 의한 314억유로 규모의 추가 특별수입으로 보완되어 군사체제 개편, 안보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

&lt;표 IV-8&gt; 2015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십억유로)

미션	2014 본(수정)예산 (A)	2015 예산법안 (B)	B-A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4	2.82	-0.02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17	2.17	0.00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2.93	2.68	-0.25
공공보조 - 저소득층·외국인 이민자 지원 감소 (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87	2.79	-0.08
퇴역군인 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89	2.74	-0.15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49	0.50	0.01
문화(Culture)	2.39	2.39	0.00
국방(Défense)	29.60	29.10	-0.50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14	1.18	0.04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7.06	6.65	-0.41
경제 - 산업 및 기업 지원(Economie)	1.63	1.55	-0.08
주택 및 건설(Egalité des territoires et logement)	13.11	13.21	0.10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국채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1.00	0.90	-0.10
교육(Enseignement scolaire)	46.30	47.43	1.13

미션	2014 본(수정)예산 (A)	2015 예산법안 (B)	B-A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 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8.70	8.55	-0.15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0.65	0.67	0.02
법무부(Justice)	6.28	6.38	0.10
언론(Media,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81	0.71	-0.10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01	2.02	0.01
균형발전정책(Politique des territoires)	0.81	0.75	-0.06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0.99	0.99	0.00
예비비(Provisions)	0.02	0.02	0.0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5.73	25.70	-0.03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51	6.41	-0.10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68	2.68	0.00
건강 복지(Santé)	1.17	1.20	0.03
치안(Sécurité)	12.15	12.17	0.02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5.38	15.55	0.17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0.45	0.43	-0.02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1.41	11.07	-0.34
미션별 합계	212.17	211.41	-0.76

자료: PLF 2015.

## &lt;참고 IV-1&gt; 프랑스 수정예산안 내용

- FY2014 2차 수정예산안(PLFR: projet de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4) 발표(2014.11.12)
- (경제전망) 2014년 경제성장률은 1차 수정예산 대비 0.6%p 하향 조정된 0.4%로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1차 수정예산 대비 0.6%p 하향 조정된 4.4%로 전망
    - (재정수지) 재정적자는 1차 수정예산(839억유로) 대비 43억유로 증가한 882억유로로 전망
    - (지출) 재정지출은 1차 수정예산 대비 9억유로 감소한 3,754억유로
    - (수입) 재정수입은 1차 수정예산 대비 63억유로 감소한 2,871억유로
  - (주요 내용)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근로자 구매력 향상, 조세포탈 강력 대응, 조세시스템 효율화 등의 정책 우선순위 내용을 포함

## &lt;표 IV-9&gt; FY2014 2차 수정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2013 (실적)	2014 본예산	2014 1차 수정예산 (A)	2014 2차 수정예산 (B)	B-A
총지출	373.1	379.7	376.3	375.4	-0.9
총수입	297.7	298.2	293.4	287.1	-6.3
조세수입	284.0	284.4	279.0	272.9	-6.1
세외수입	13.7	13.8	14.4	14.2	-0.2
특별회계	0.6	-1.0	-1.0	0.0	1.1
재정수지	-74.9	-82.6	-83.9	-88.2	-4.3

자료: PLFR 2014.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 2015-17년 500억유로의 지출절감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210억유로, 2016-17년에 연간 145억유로씩 290억유로를 감축할 계획
  - 중앙정부에서 2015년 77억유로, 2015-17년 총 190억유로의 지출절감
    - 2015년 지출절감 계획에는 공무원 임금 14억유로 삭감, 정부조달 계획 및 부동산정책 등 생산 부문 21억유로 절감, 국가의 집행자(opérateurs de l'Etat)<sup>48)</sup>의 지출 19억유로 삭감, 기업보조금 및 가족수당 등 이전지출 24억유로 절감을 포함
  - 지방정부에서 2015-17년 동안 연간 37억유로씩 총 110억유로의 지출절감
    - 2015년 지방정부의 3개 부문인 레지옹(Région), 데парта트망(Département), 코뮌(Commune)<sup>49)</sup>에 운영수입 실적에 따라 절감 노력을 배분
      - 레지옹(Région)에 12%인 4억 5,100만유로, 데парта트망(Département)에 31%인 11억 4800만유로, 코뮌(Commune)에 56%인 20억 7100만유로
  - 사회보장부문은 2015년 96억유로, 2015-17년 총 200억유로의 지출절감
    - 의료보험지출(ONDAM)은 2015년 2.1%의 증가율을 목표로 32억유로 절감, 2015-17년 동안에는 연평균증가율을 2%로 제한하여 100억유로를 절감할 계획
    - 의료보험지출을 제외한 사회보장부문은 2015년 64억유로, 2015-17년 100억유로의 지출절감

48) 국가의 집행자(opérateurs de l'Etat)의 예로 대학, 프랑스 기상청, CNRS 등 공공기관이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부담

49) 레지옹은 광역자치단체, 데парта트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행정단위, 코뮌은 기초자치단체

&lt;표 IV-10&gt; 2015-17년 지출절감 프로그램

(단위: 십억유로)

	2015년	2015-2017년
중앙정부	7.7	19.0
지방정부	3.7	11.0
사회보장	9.6	20.0
의료보험(d'assurance maladie)	3.2	10.0
기타 사회보장지출	6.4	10.0
<b>총합계</b>	<b>21.0</b>	<b>50.0</b>

자료: PLF 2015.

##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 가계 구매력, 건설 및 주택, 에너지전환, 해외영토의 4가지 분야의 세제혜택 확대

## ○ 가계의 구매력 강화

- 저소득층의 소득세 경감을 위한 최저소득구간 세율 5.5% 폐지로 32억유로의 비용 소요와 추가 60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 건설 및 주택, 공공사업 부문의 활성화

- '14.9.1~'15.12.30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30% 인하에 2015년 1억 5,600만유로, 2016년 2억 7,700만유로, 2017년 2억 5,000만유로, 2018년 1억 5,600만유로 비용 소요 예상

- 토지 무상 수취시 토지수취인의 4년 이내 건물신축을 조건으로 10만유로 한도내 일시적인 세금면제

- 도시재생정책에 의한 700개 지방에 정비된 1,300개 신시가지에서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율을 5.5% 감면에 2015년 1,000만유로, 이후 2018년까지 1억 500만유로 비용 소요 예상

-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금리 대출(PTZ: Prêt à Taux Zéro) 확대에 2016년 1억 4,000만유로, 2017년 3억 4,000만유로 비용 소요 예상

## ○ 에너지전환 및 녹색성장 이행

- 농업의 생물가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인 토지세 면제에 2016년 500만유로, 2017년 800만유로 비용 소요 예상

- 프랑스령 해외영토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경제활동 지원
  - R&D 세액공제율 30%→ 50% 인상으로 2015년부터 연간 400만유로 비용 소요 예상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율 6%→ 9%로 인상을 위해 2016년 1억 1,000만유로, 2017년 2억 3,000만유로 비용 소요 예상

- 고용 안정을 위해 교육, 사법 및 치안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교육 분야에 총 10,561개, 사법 및 치안 분야에 총 1,04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예정
    - 학생지원, 학교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9,421개, 농업교육 140개, 대학교 1,000개
    - 테러 대비, 범죄우발 지역의 군력증강을 위해 국립경찰과 헌병대 405개, 교도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무부 600개, 행정 법원 35개

<표 IV-11> 2012-2017년 일자리 창출 계획

(단위: 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교육부	6,728	8,781	8,804	9,421	8,561	11,662
국가(État)	4,228	8,781	8,804	9,421	8,561	11,662
지방공립학교	2,500					
농업교육	50	230	180	140	140	140
국가(État)	50	200	150	140	140	140
지방공립학교		30	30			
대학교		1,000	1,000	1,000	1,000	1,000
<b>합계-교육 분야(1)</b>	<b>6,778</b>	<b>10,011</b>	<b>9,984</b>	<b>10,561</b>	<b>9,701</b>	<b>12,802</b>
치안		480	405	405	500	500
사법		520	590	635	685	619
법무부		480	555	600	650	584
행정 법원		40	35	35	35	35
<b>합계-사법 및 치안 분야(2)</b>		<b>1,000</b>	<b>995</b>	<b>1,040</b>	<b>1,185</b>	<b>1,119</b>
(1)+(2)	6,778	11,011	10,979	11,601	10,886	13,921
누적		17,789	28,768	40,369	51,255	65,176

자료: PLF 2015.

##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FY2015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5)에서 재정적자 목표를 2014년 예산안의 2015년 적자 전망치인 154억유로보다 20억유로 감소한 134억유로\*로 설정
- 2015년 사회복지기관 관리 5억유로, 가족수당 7억유로 등 56억유로(190억유로-134억유로)의 지출절감을 통해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할 계획
  - ※ 지출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재정적자는 190억유로
  - 2014-2019 중장기 예산법안(LPFP)의 사회보장부문 전망에서 재정적자는 2015년 65억유로, 2016년 4억유로이며, 2017년에는 65억유로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
    - 2013-17년 동안 연평균 노령보험 지출증가율을 2.4%, 가족수당 지출증가율은 1.3%로 제한

&lt;표 IV-12&gt; 201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의료보험(Maladie)	-6.8	-6.2	-6.9
산재보험(AT-MP)	0.6	0.1	0.2
법정연금기금(Vieillesse)	-3.1	-1.2	-1.5
가족지원금(Famille)	-3.2	-2.3	-2.3
일반 제도 수지 (Total Regime general)	-12.5	-9.6	-10.5
노령연대기금(FSV)	-2.9	-3.2	-2.9
총액	-15.4	-12.8	-13.4

자료: LFSS 2015.

&lt;표 IV-13&gt; 2014-2019 중장기 예산법안(LPFP)의 사회보장부문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	26.6	26.9	26.6	26.4	26.1
수입	26.2	26.4	26.3	26.4	26.3
재정수지	-0.5	-0.5	-0.3	0.0	0.3
재정수지(십억유로)	-10.1	-10.6	-6.5	-0.4	6.5

자료: LPFP 2014-2019.

## V. 독 일

□ FY2015: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FY2015 예산편성 일지

- (2014. 3.12.) FY2015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 (2014. 7. 2.) FY2015 예산안 및 FY2014-18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14.11.28.) FY2015 예산안 및 FY2014-18년 중기재정계획 의회 통과

□ 출처

- 재무부: *Hausaltsgesetz 2015*, 2014.7

*Finanzplan des Bundes 2014 bis 2018*, 2014.7

*Finanzbericht 2015*, 2014.8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15 und Finanzplan bis 2018*,  
2014.7

- 연방은행: *Monatsbericht Dezember 2014*,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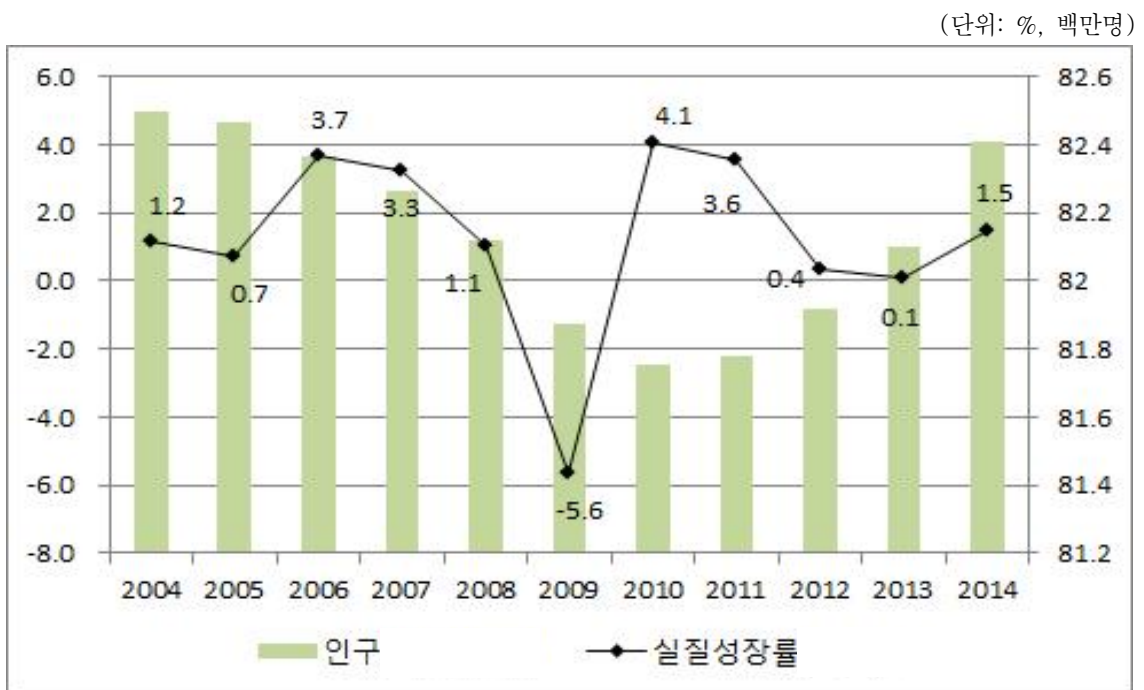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 1,398.82원(2014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4년 경상GDP 3조 6,409억달러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4년 기준 84.8%(2013년 한국은 102.8%)

□ 인구: 약 8,241만명(2014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연방은행의 '14.12월 발표에 따르면, '15년 경제성장률은 1.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 실업률은 6.7%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 전망
- (재정전망) FY2014-18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5년 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 모두 균형, 부채는 GDP 대비 72.5% 수준으로 낙관적으로 전망

◇ 예산기조: 지속가능한 재정균형 달성과 미래를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의 지속

- 신규차입 규모 0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 재정균형을 지속하며, 향후 10년 내 국가부채 규모를 GDP 대비 60% 이하로 달성
- 교육·연구 분야와 운송·교통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지출을 강화

◇ 예산안 내용

- (수입) '14년 대비 3.3% 증가한 2,995억유로 편성, 특히 조세수입에 있어 강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지출) '14년 대비 1% 증가한 2,995억유로 편성, 특히 미래를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 강화로 교육연구부 예산이 '14년 대비 8.6% 증가

◇ 주요정책

- (재정건전화)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금융거래세 도입 지지, 에너지세 지침 조정 등의 조세정책을 실시
- (미래 지향적 투자)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직업교육 및 훈련, 빈곤층 영·유아 지원, 첨단기술연구 등을 강화하고 철도, 간선도로, 수로 등에 대한 '교통 인프라 기본계획(BVWP)'을 수립하여 미래 교통에 대처
-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정책) 16.8억유로의 기금을 조성, CO<sub>2</sub> 저감 건물 보수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lt;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gt;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4. 1.15.	FY2013 잠정결산 발표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4. 1.23.	경제에너지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표	
2014. 1.29.	연방내각, 연금 개혁안 승인	
2014. 3.12.	FY2015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결의	
2014. 3.12.	FY2014 두 번째 예산안 승인	
2014. 4. 8.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4」 채택	
2014. 5. 8.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14. 6.27.	FY2014 두번째 예산안 의회 통과	
2014. 6.30.	FY2013 결산보고서 발표	
2014. 7. 2.	FY2015 예산안 및 2014-2018 중기재정계획 결의	
2014. 7.10.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에 2013-2017 중기재정전망 제출	
2014. 8.14.	2013년 공공부채 현황 발표	
2014.10.13.	FY2015 예산계획 EU집행위원회에 제출	
2014.11. 6.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발표	
2014.11.28.	FY2015 예산안 및 2014-2018 중기재정계획 의회 통과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연방은행의 '14.12월 발표에 따르면, '15년 독일은 낮은 실업률과 완만한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경제성장률)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되어 '15년 1.0%의 성장률 전망
    - '14년은 2, 3분기에 모멘텀을 잃으면서 기대보다는 낮은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이는 공급 측면에서 생산부문 성적이 기대보다 저조하였고, 지출 측면에서는 투자가 상당한 약세를 보였기 때문
  - (물가) 원유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4년 대비 0.2%p 하락한 1.1% 전망
  - (실업률) 이민자의 증가로 '14년 고용자 수는 17만명 증가하였으나, '15년 실업률은 '14년과 동일한 수준인 6.7% 전망

<표 V-1> 경제전망

(단위: %)

	2013	2014(e)	2015	2016
실질GDP 성장률	0.1	1.4	1.0	1.6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1.6	0.9	1.1	1.8
실업률	6.9	6.7	6.7	6.7

자료: 연방은행, *Monatsbericht Dezember 2014*, 2014.12.

<참고 V-1>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5*)<sup>50)</sup>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sup>51)</sup>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원과 상원에 제출
- (경제전망) '15년 경제성장률은 '14년 추정치와 같은 1.5%, 실업률은 고용자 수의 증가로 '14년보다 0.1%p 낮은 6.6%로 전망
  - 연방은행은 '14.12월 월간보고서에서 '15년 경제성장률을 1.0%, 실업률을 6.7%로 전망한 바 있음
- (정책방향) 독일과 유럽의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ition)와 혁신(Innovation)을 강화
  - 교육, 연구, 에너지 효율화,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을 강화하고, 경제부문에서는 산업, 중산층, 디지털 혁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표 V-2>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2013	2014(e)	2015년
실질GDP 성장률	0.1	1.5	1.5
실업률	6.9	6.7	6.6

자료: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5*, 2015.1.28., p.7.

#### 나. 재정전망

- FY2014-18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15년 독일은 재정수지 균형과 국가부채 감소 등 낙관적인 재정상황이 계속될 전망
  - (재정수지) 연방정부는 '14년에 이어 '15년에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15년부터 재정 균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국가부채) '15년 GDP 대비 72.5%로 '14년 대비 3%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5.2 No.2」, 2015.2.

51) StWG;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러한 감소추세는 계속 이어져 '16년 60%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표 V-3>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재정수지	-0.1	0	0	0	0	0
구조적 재정수지	-0.1	-0.1	0	0	0	0
국가부채 <sup>1)</sup>	78.4	75.5	72.5	69.5	67	65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자료: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4 bis 2018*, 2014.7.

<참고 V-2> 자국 및 EU 재정준칙에 대한 이행상황<sup>52)</sup>

- (National Fiscal Rules) '14년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28% 흑자로, '13년에 이어 '14년에도 부채제한법 기준을 초과 달성
- (EU Fiscal Rules) 신재정협약과 안정성장협약상의 재정준칙을 모두 이행
  - '14년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9% 흑자, 재정수지는 0.4%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지준칙을 모두 준수
  - '14년 국가부채가 기준치를 초과한 GDP 대비 74%를 기록하였으나 과다 적자시정조치에 따른 기준치가 76%로 산정<sup>53)</sup>되어 부채준칙도 준수\*
    - \* 안정성장협약에서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6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과거 3년 기준 연평균 20분의 1 이상 줄이면 부채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1/20 rules)

<표 V-4> 재정준칙과 이행상황

(GDP 대비 %)				
구분	지표	내용	2013	2014(잠정)
<b>National Fiscal Rules</b>				
부채제한법 (Debt Brake)	구조적 재정수지 (연방정부)	적자 0.35% 이하 ('16년부터)	-0.14	0.28
<b>EU Fiscal Rules</b>				
신재정협약 (Fiscal Compact)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0.5% 이하	0.8	0.9
안정성장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재정수지	적자 3% 초과 금지	0.1	0.4
	국가부채	60% 초과 금지	76.9	74

자료: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 2014.10.13, 2014.10.31, 2015.1.22

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5.2 No.1」, 2015.1.

---

53) 산정식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정책분석 12-03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p.74  
참고 바람

## 2. 예산기조

- '15년 연방정부 예산은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투자정책에 우선순위를 둠
- 지속가능한 재정균형 달성
    - 1969년 이래 처음으로 '14년 신규차입 규모 0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지속
    - 향후 10년 내 국가부채 규모를 GDP 대비 60% 이하로 달성
  - 미래를 위한 성장친화적 투자 지속
    -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 지출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 폭넓게 지원
    - 운송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강화

<표 V-5> FY2015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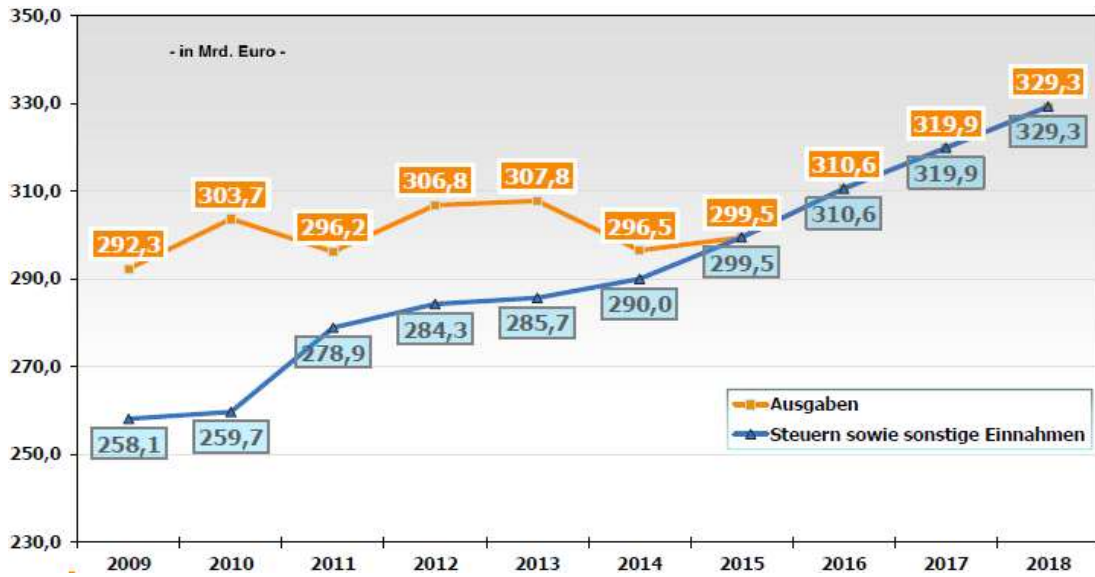
(단위: 억유로, %)

	2014	2015 (정부안)	중기재정계획		
			2016	2017	2018
재정지출	2,965 (△3.7)	2,995 (1.0)	3,106 (3.7)	3,199 (3.0)	3,293 (2.9)
재정수입	2,900	2,995	3,106	3,199	3,293
조세수입	2,682	2,785	2,929	3,007	3,118
세외수입	218	210	177	192	175
신규차입	65	0	0	0	0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14 bis 2018*, 2014.7.

[그림 V-1]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격차



자료: 재무부,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15 und Finanzplan bis 2018*, 2014.7.

<참고 V-3> FY2014 잠정결산<sup>54)</sup>

-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동일 수준을 나타내면서 신규차입 0 기록
  - (재정지출) 예산 대비 10억유로 낮은 2,955억유로 기록, 이는 '09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로 낮은 이자지급 등에 기인
  - (재정수입)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예산을 상회하면서 2,955억유로 기록, 이는 예산 대비 55억유로 높은 수치로 법인세 증가 등에 기인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0.28% 흑자를 기록, 이는 '10년 하반기 전망 대비 1.25%p, 부채제한법 대비 0.63%p 각각 높은 수치

<표 V-6> FY2014 잠정결산

(단위: 억유로)

	예산(A)	잠정결산(B)	B-A
재정지출	2,965	2,955	△10
재정수입	2,900	2,955	55
조세수입	2,682	2,708	26
세외수입	218	247	29
신규차입	65	0	△65

자료: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4*, 2015.1.

[그림 V-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주: 점선은 부채제한법 기준선

자료: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4*, 2015.1.

5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5.1 No.2」, 2015.1

### 3. 예산안

#### 가. 재정수입

- '15년 연방정부의 재정수입은 '14년 대비 3.3% 증가한 2,995억유로 편성
  - (조세수입) '14년 대비 3.8% 증가한 2,785억유로 규모이며, 특히 강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세수는 실질GDP 성장률 '14년 1.8%, '15년 2.0% 등을 기본전제로 추계
  - (세외수입) '14년 대비 3.7% 감소한 210억유로 규모이며,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 수익 등이 대부분을 차지

<표 V-7> 항목별 재정수입

(단위: 억유로, %)

	2014 (A)	2015정부안 (B)	증감률 [(B-A)/A]
<b>조세수입</b>	<b>2,682</b>	<b>2,785</b>	<b>3.8</b>
소득세 <sup>1)</sup>	906	961	6.1
소득세·법인세 <sup>2)</sup>	207	224	8.2
부가가치세	1,046	1,087	3.9
수입부가가치세	16	17	6.3
담배세	143	139	△2.8
코냑세	21	20	△4.8
에너지세	322	321	△0.3
전기세	69	71	2.9
기타연방세	-48	-58	20.8
<b>세외수입</b>	<b>218</b>	<b>210</b>	<b>△3.7</b>
<b>재정수입</b>	<b>2,900</b>	<b>2,995</b>	<b>3.3</b>

주: 1)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분과 연말정산분을 의미

2)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분과 이자원천징수분을 의미

자료: 재무부, *Hausaltsgesetz 2015*, 2014.7, p.36.

재무부, *Finanzbericht 2015*, 2014.8, p.61.

## 나. 재정지출

- '15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14년 대비 1% 증가한 2,995억유로 편성, 특히 교통인프라부, 보건부, 교육연구부의 증가가 두드러짐
- (경제에너지부) 71억유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성장, 혁신,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 중산층 지원, 에너지 정책 등을 시행
  - (노동사회부) 기초사회보장,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주거 및 난방 보조 등을 위해 '14년 대비 2.3% 증가한 1,248억유로 편성
  - (교통인프라부) 231억유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약 55%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투자지출 중 최대 규모 기록
  - (국방부) 군수품 조달(44억유로), 국제안보지원군 ISAF\* 미션 수행 등을 위해 323억유로 규모의 예산 편성
    -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 및 발전을 맡은 군대
  - (보건부) 건강보험 관련 예산의 증가로 '14년 대비 9.1% 증가한 121억유로 규모의 예산 편성
  - (환경부) 39억유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환경 및 기후 변화, 국제환경보호위원회 관련 정책에 집중 배정(2.6억유로)
  - (교육연구부) 교육·과학·연구 분야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14년 대비 8.6% 증가한 153억유로 규모의 예산 편성

<표 V-8> 부문별 재정지출

(단위: 억유로, %)

구분	2014 (A)	2015 정부안 (B)	증감률 [(B-A)/A]
대통령실	0.3	0.3	1.7
연방하원	7.7	8.0	4.9
연방상원	0.2	0.2	3.5
총리실	21.0	21.0	0.4
외무부	36.4	34.2	△6.0
내무부	59.0	57.3	△2.8
법무부	6.5	6.6	2.3
재무부	52.1	54.4	4.5
경제에너지부	74.2	71.2	△3.9
식품농업부	53.1	53.2	0.2
노동사회부	1,219.8	1,248.4	2.3
교통인프라부	228.6	231.3	1.2
국방부	324.4	322.6	△0.5
보건부	110.5	120.6	9.1
환경부	36.7	39.1	6.5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79.6	84.6	6.2
헌법재판소	0.5	0.3	△36.9
회계검사원	1.4	1.4	0.0
경제협력발전부	64.4	64.5	0.0
교육연구부	140.5	152.7	8.6
연방부채	285.5	281.6	△1.4
일반조세행정	163.8	141.5	△13.1
<b>재정지출</b>	<b>2,965.0</b>	<b>2,995.0</b>	<b>1.0</b>

자료: 재무부, *Hausaltsgesetz 2015*, 2014.7, p.30.

&lt;표 V-9&gt; 기능별 재정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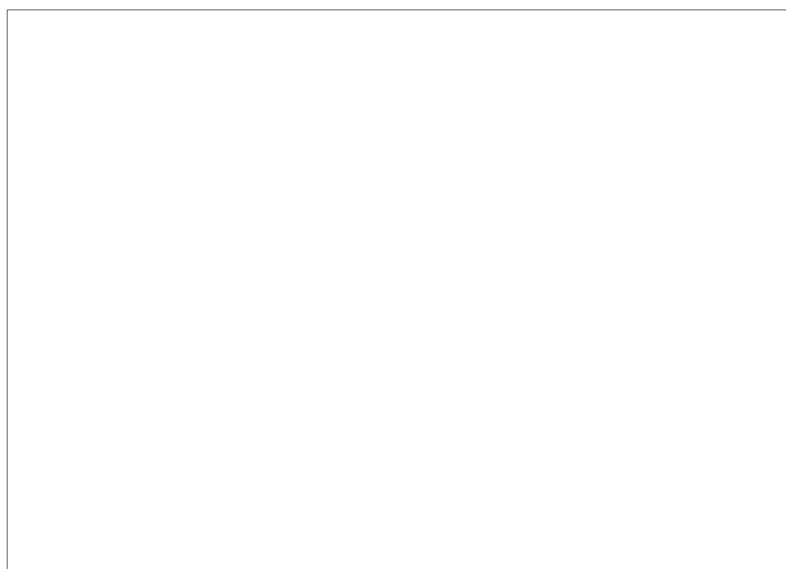
(단위: 억유로, %)

구분	2014 (A)	2015정부안 (B)	증감률 [(B-A)/A]
일반공공	696.0	647.0	△7.0
교육/과학/연구/문화	193.0	205.0	6.2
사회보장/가족·청소년/노동	1,478.8	1,524.4	3.1
건강/환경/체육·오락	20.1	19.7	△2.0
주거/도시/지역	21.9	20.3	△7.3
식품/농림	9.6	9.7	1.0
에너지·물/무역/서비스	41.8	44.1	5.5
교통·통신	164.2	167.5	2.0
재무관리	339.6	357.2	5.2
<b>재정지출</b>	<b>2,965.0</b>	<b>2,995.0</b>	<b>1.0</b>

자료: 재무부, *Hausaltsgesetz 2015*, 2014.7, pp.51~55.

[그림 V-3]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

자료: 재무부, *Hausaltsgesetz 2015*, 2014.7, pp.51~55.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 '14.4월 업데이트 된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을 통해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지속<sup>55)</sup>

\*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매년 안정화 프로그램을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과 EU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 제출

○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은 '14년 1.8%, '15년 2.0%로 예상되며, '17년까지 1.4%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재정전망) '12년에 달성된 일반정부 재정수지 균형이 '16년까지 유지되며, '17년부터는 GDP 대비 0.5% 수준의 흑자 달성도 기대

- 구조적 재정수지는 '12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8년까지 GDP 대비 0.5%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13년 국가부채비율은 78.4%로 전년 대비 2.6%p 하락하였고,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으로 '18년에는 부채비율이 65%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

○ (재정정책) 연방정부 수준의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 구조적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14년 연방예산을 준비, '15년 이후 신규차입목표를 0 이하로 설정

- 교육, 연구, 개발 분야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로 주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55)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4.4 No.2」, 2014.4.

&lt;표 V-10&gt;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14」 경제·재정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GDP 성장률(%)	0.4	1.8	2.0	1.4	1.4	1.4
재정수지	0.0	0.0	0.0	0.0	0.5	0.5
구조적 재정수지	0.7	0.5	0.5	0.5	0.5	0.5
신규차입	0.0	0.0	0.0	0.0	0.5	0.5
국가부채	78.4	76.0	72.0	70.0	67.5	65.0

자료: 재무부,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14*, 2014.4.

-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금융거래세 도입, 투자과세(Investmentbesteuerung)에 대한 개혁, 에너지세 지침 개정 등의 조세정책 실시
-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EU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
    - EU 집행위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단순화, 효율성 증진을 위해 매입자 납부제 확대, 조세피난처에 대한 최소의 조세기준 도입 등을 제시
  - 투기성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EU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지
  - 투자과세 개혁과 관련된 여러 안건에 대해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추후 절차를 확정 할 예정
  - EU 집행위의 「03년 에너지세 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11.4월 상정되었으나, 정치·경제적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계속 할 계획
    - 지침 개정안은 CO<sub>2</sub> 배출량과 열량으로 구분한 과세와 상대적 수준에 따른 주기적 조정, 에너지소비세 감면대상 축소 등이 주 내용

## 나. 미래 지향적 투자

- (교육·연구) 청소년들에 대한 재정 지원,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직업교육 및 훈련, 빈곤층 영·유아 지원, 첨단기술연구 등을 강화할 계획<sup>56)</sup>
  - 교육지원법(BAföG)에 근거한 대학 또는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자를 확대
    - 연방정부와 주정부 협력으로 진행되어 온 동 사업의 지원 확대로 인해 주정부는 매년 12억유로 규모의 재정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
  -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에 근거한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07년 이후 약 60억유로의 자금이 지원되었으나 '15년에만 18억유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23년까지 100억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
  - 교육품질협정(Qualitätspakt Lehre)에 따라 고등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2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첨단기술전략(Hightech-Strategie)에 따라 전기시스템, 생산·서비스 부문 연구 등에 '14년 대비 7%, 환경 기술, 생명과학 연구, 기술 이전 등에 3% 투자 증액
  
- (운송·교통) 미래 교통에 대처하기 위해 철도, 간선도로, 수로 등에 대한 '교통 인프라 기본계획(BVWP)'을 수립<sup>57)</sup>
  - 동 계획은 '03년부터 매년 약 100억유로의 자금을 투입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15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프라 확장과 현대화, 보전에 우선순위를 두되 환경 친화적이면서 최고의 시설로 구축
    -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하위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성, 안전, 환경, 공간 계획, 디자인 등 여러 측면에서의 재평가 실시
    - 미래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실시

56) 교육·연구부 예산 설명자료(<http://www.bmbf.de/en/96.php>)

57) 교통인프라부 BVWP 2015년 기본계획 설명자료

(<http://www.bmvi.de/SharedDocs/DE/Artikel/UI/bundesverkehrswegeplan-2015-grundkonzeption.html?linkToOverview=js>)

#### 다. 에너지 및 기후 기금(EKF; Energie- und Klimafonds) 정책

- 연방정부는 '11년 원전폐쇄 결의 후 미래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혁신 정책을 채택하고, 동 기금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전환 프로그램을 시행
- '15년 연방정부는 16.8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수입) 배출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금수입 부족분에 대해 연방정부가 7.8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지출) CO<sub>2</sub> 저감 건물 보수에 대한 지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집약 기업의 부담완화, 전기자동차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사용

<표 V-11>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2014	2015	2016	2017	2018
<b>수입</b>	<b>15.8</b>	<b>16.8</b>	<b>19.3</b>	<b>20.8</b>	<b>23.1</b>
탄소배출권 수익금	8.4	9.0	10.8	15.0	14.8
연방정부 지원금	6.6	7.8	8.5	5.8	8.4
준비금 인출	0.9	-	-	-	-
<b>지출</b>	<b>15.8</b>	<b>15.8</b>	<b>19.3</b>	<b>20.8</b>	<b>23.1</b>
CO <sub>2</sub>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4.2	7.0	8.8	10.5	12.8
에너지 집약 기업 보조	3.5	2.0	2.0	2.3	2.3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2.8	2.2	2.1	2.1	2.1
재생에너지	2.1	2.1	2.3	2.2	2.2
에너지 효율화	2.0	2.1	2.6	2.2	2.2
기후 변화 프로그램	1.5	1.4	1.4	1.5	1.5

자료: 재무부, *Finanzbericht 2015*, 2014.8.

## VI. 영국

□ FY2015-16: 2015년 4월 ~ 2016년 3월

□ 출처: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 2014.12.3.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3.

□ 환율: 1파운드 = 약 1734.67원 (2014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3년 경상GDP 2조 4,524억 달러(우리나라 약 1.47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3년 기준 62.2%(우리나라 102.8%)

□ 인구: 6,410만명(2013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단위: 백만명, %)



## &lt;요 약&gt;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2015년 2.4%, 2016년 2.2%로 전망되고, 대외수요와 소비약세로 3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성장 모멘텀이 2015년 동안 쇠퇴할 전망
- (재정수지) FY2015-16 공공부문 순차입은 GDP 대비 4.0%로 전년 대비 1%p 감소
- (국가채무) 공공부문 순채무는 FY2015-16에 81.1%(전년 대비 0.7%p 증가)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예산기조

- 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화, ② 경제성장(Growth), ③ 공정성(Fairness)을 기조로 함

##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5-16 경상세입은 GDP 대비 35.5%로 전년대비 동일
  - 3월 전망 대비 149억파운드 감소한 6,703억파운드로 예측되고 감소는 주로 개인소득공제 금액 상향, 주택구입 취득세 개정과 관련
- (지출) FY2015-16 총관리지출(TME)은 GDP 대비 39.5%로 전년 대비 1%p 감소
  - 채무 이자지출 감소 등으로 3월 전망 대비 72억파운드 감소한 7,462억파운드 전망

##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FY2014-15에 1,050억파운드, FY2015-16에 1,22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계획
  - FY2015-16에 공공서비스 연금 개정으로 연간관리지출(AME)을 335백만파운드 감축할 예정
  - 진행되어온 공공부문 임금 억제로 FY2014-15까지 120억파운드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
- (경제성장)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 2015~21년 동안 총 364억파운드의 장기 자본투자 계획을 실행할 예정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4. 2.13.	추가경정예산 및 신규세출안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4. 3.19.	Budget 2014	
2014. 3.27.	2014 재정법안(Finance Bill)	
2014. 4.29.	FY2014-15 본세출예산안	
2014. 6.10.	FY2012-13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12-13)	
2014. 7.10.	재정지속가능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4.10.21.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s) 현황	
2014.11.20.	공공지출 통계(Public Spending Statistics)	
2014.12. 3.	2014 가을보고서(Autumn Statement 2014)	
2014.12. 3.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15.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수정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lt;표 VI-1&gt; 영국 경제전망

(단위: %)

경제전망	실적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14. 3. 예산안 기준)	1.7 (1.8)	3.0 (2.7)	2.4 (2.3)	2.2 (2.6)	2.4 (2.6)	2.3 (2.5)	2.3 (-)
- 가계소비	1.6	2.3	2.8	2.2	2.4	2.3	2.4
- 정부소비	0.7	1.1	-0.4	-0.8	-0.9	-0.3	0.0
- 기업투자	4.8	7.7	8.4	6.3	6.3	6.3	6.3
- 정부투자	-7.3	2.1	3.3	1.6	2.2	1.6	2.3
물가상승률(CPI)	2.6	1.5	1.2	1.7	2.0	2.0	2.0
실업률(ILO)	7.6	6.2	5.4	5.2	5.3	5.3	5.3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

- (경제성장률) 3월 예산안 전망에 비해 강한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2014-15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에 비해 상향 조정하여 2014년 3.0%, 2015년 2.4%로 전망
  - 그러나 대외수요 약화와 소득증가율 둔화에 따른 소비성장률 감소로 인해 3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2015년 동안 성장 모멘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물가) CPI는 식품 및 유류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2014년 1.5%, 2015년 1.2%로 감소하여 목표치에 못 미칠 것이나 2017년 말에 목표치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 하락은 주로 파운드화 가치절상(appreciation)에 따른 유류·수입재 가격 하락과 단위노동비용 감소에 기인
- (실업률) 감소세가 견고하지는 않지만 2015년 중반부터 노동생산성의 점진적인 회복과 모멘텀 증가가 기대되는바 2015년 실업률은 5.4%, 2016년 5.2%로 감소 예측
  - '14년에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낮은 노동생산성과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 등의 공급측면을 고려할 때 실업률을 견고한 감소세로 확정하기에는 어려움

- 자영업자('14.9기준, 전체고용에서 14.7%차지)와 고용자 수 증가로 고용률은 73%로 증가

나. 재정전망

<표 VI-2> 영국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세입·세출</b>							
경상세입(a)	35.9	35.5	35.5	36.1	36.2	36.2	36.2
총관리지출(TME)(b)	41.5	40.5	39.5	38.2	36.9	36.0	35.2
공공부문 경상지출(c)	38.0	36.9	36.0	34.8	33.6	32.7	31.9
공공부문 순투자(d)	1.5	1.5	1.4	1.3	1.2	1.2	1.2
감가상각(e)	2.1	2.1	2.1	2.1	2.1	2.1	2.1
<b>공공부문 적자</b>							
공공부문 순차입(b-a)	5.6 (5.8)	5.0 (4.9)	4.0 (3.8)	2.1 (2.2)	0.7 (0.9)	-0.2 (-0.1)	-1.0 (-)
경상적자(c+e-a)	4.2	3.5	2.6	0.8	-0.5	-1.4	-2.3
경기조정 순차입	4.1	4.2	3.6	1.8	0.5	-0.3	-1.1
기초재정수지	-3.8	-3.3	-2.2	-0.1	1.4	2.3	3.2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2.3	-2.6	-1.8	0.2	1.6	2.4	3.2
<b>공공부문 순채무</b>	78.8 (77.9)	80.4 (80.2)	81.1 (81.6)	80.7 (80.9)	78.8 (78.9)	76.2 (76.3)	72.8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14년 3월 예산안 전망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Table B.5에서 발취

□ (세입·세출) FY2015-16 GDP 대비 경상세입은 전년과 동일한 35.5%(6,703억파운드), 총관리지출<sup>58)</sup>은 39.5%(7,462억파운드)로 전망되고 향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

58)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 TME)은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과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로 구성

- 최근 세입 감소는 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소득세수입 증가율과 금융부문의 이전손실금, 북해 유류수입 감소로 인한 법인세 수입 하락에 기인
  - 총관리지출(TME)의 경우 채무 이자지출의 감소와 실업률 하락에 따라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14-15에 GDP 대비 5.0%, FY2015-16 4.0%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FY2018-19에 -0.2%로 전환될 전망
-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FY2015-16에 759억파운드로 3월 전망 대비 77억파운드 증가
    - 이는 ① 재무부와 APF(Asset Purchase Facility) 사이 현금이전(Cash transfers)으로 69억파운드 증가, ③ 소득세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채무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지출 감소 등으로 66억파운드 증가, ④ 정부정책에 따라 10억파운드 증가에 기인

<표 VI-3> 3월 전망과 12월 가을보고서 공공부문순차입(PSNB)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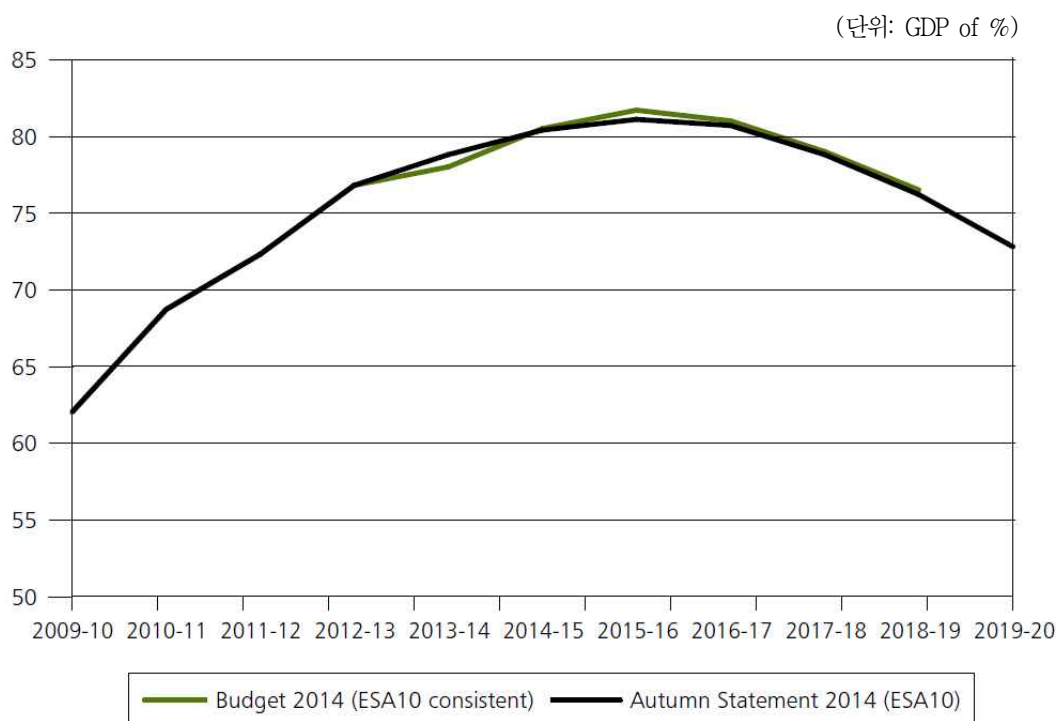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① APF(Asset Purchase Facility) 이전(transfer)							
(ESA95기준) '14.3 PSNB	107.8	95.5	75.2	44.5	16.5	-4.8	
<b>총변화분</b>	<b>+12.2</b>	<b>+11.6</b>	<b>+6.9</b>	<b>+2.9</b>	<b>-1.3</b>	<b>-3.7</b>	
APF 이전 후 (ESA95기준) '14.3 PSNB	95.6	83.9	68.3	41.5	17.8	-1.1	
② ESA10 개정&통계청 공공부문 재정검토 반영							
수입	-0.9	-4.7	-9.8	-13.9	-15.9	-16.8	
AME지출	4.5	7.3	9.8	13.8	13.9	14.2	
<b>총변화분</b>	<b>+3.6</b>	<b>+2.5</b>	<b>0.0</b>	<b>-0.1</b>	<b>-2.0</b>	<b>-2.5</b>	
ESA10 기준 '14.3 PSNB	99.3	86.4	68.3	41.5	15.8	-3.7	
③ 정부 수입·지출 전망 가정변화							
수입전망	-1.6	7.8	14.3	18.9	22.7	25.3	
지출전망	-0.1	-2.0	-7.7	-19.0	-21.9	-23.5	
AME	-2.5	-1.3	-9.3	-11.9	-15.9	-19.2	
DEL 계획	2.4	-0.7	1.6				
FY2015-16 이후 지출정책 가정변화				-7.1	-6.0	-4.3	
<b>총변화분</b>	<b>-1.7</b>	<b>+5.8</b>	<b>+6.6</b>	<b>-0.1</b>	<b>+0.8</b>	<b>+1.8</b>	
정부정책 효과반영 전 '14.12 시점 PSNB	97.5	92.1	74.9	41.3	16.6	-1.9	-6.5
④ 가을보고서 정부정책 영향							
가을보고서 정책수단	0.0	-0.9	1.0	-0.1	-0.4	-0.5	-0.4
새로운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가정 반영				-0.4	-1.6	-1.7	-16.2
<b>총변화분</b>	<b>0.0</b>	<b>-0.9</b>	<b>+1.0</b>	<b>-0.5</b>	<b>-2.0</b>	<b>-2.2</b>	<b>-16.6</b>
ESA10 기준 PSNB 예측	97.5	91.3	75.9	40.9	14.5	-4.0	-23.1
3월 예산안 대비 변화	-1.7	4.9	7.7	-0.6	-1.3	-0.3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 Table 1.2 발췌

- FY2014-15년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3월 전망에 비해 약간 증가(0.1%p)하여 80.4%로 전망되고, FY2015-16년에는 81.1%(0.5%p하락)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할 전망
- FY2015-1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19-20에 72.8%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중앙정부의 채무이자는 480억파운드로 전망되고, APF(Asset Purchase Facility) 이전(transfer) 후에는 122억파운드 감소하여 359억파운드로 전망

[그림 VI-1] 공공부문 순채무(3월 예산안과 가을보고서 비교)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Chart 1.8.

<표 VI-4> 재정목표(Fiscal Mandate) 및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단위: GDP 대비 %)

	실적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재정목표(Fiscal Mandate)·Supplementary target</b>							
경기조정 경상적자	2.6 (2.8)	2.7 (2.2)	2.2 (1.5)	0.5 (0.2)	-0.7 (-0.7)	-1.5 (-1.5)	-2.3 (-)
공공부문 순채무	78.8	80.4	81.1	80.7	78.8	76.2	72.8
<b>안정성장협약(SGP) 기준</b>							
일반정부 적자	5.8	5.3	4.3	2.3	0.9	0.0	-0.8
일반정부 경기조정적자	4.2	4.5	3.9	2.0	0.8	-0.1	-0.8
일반정부 채무	87.8 (89.6)	88.0 (91.8)	89.9 (93.1)	90.0 (91.9)	88.4 (89.4)	86.1 (86.6)	83.0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14년 3월 예산안 전망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Table B.5에서 발췌

- 2010년 기준 재정목표(Fiscal Mandate)는 경기조정 경상적자를 FY2019-20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 이보다 2년 이른 FY2017-18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
  - 경기조정 경상적자는 FY2014-15 2.7%에서 FY2015-16에 2.2%로 감소하고, 3월 예산안 전망에 비해서는 각각 0.5%p, 0.7%p 증가한 수치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FY2015-16에 감소하도록 하는 보완적인 재정목표는 기존 목표보다 1년 늦은 FY2016-17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른 일반정부<sup>59)</sup> 재정적자 상한선인 3% 이하를 FY2016-17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FY2015-16 4.3%, FY2016-17에 2.3%로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FY2019-20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일반정부 총채무는 FY2015-16에 GDP 대비 89.9%이고 FY2016-17에 최고치인 90.0%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59) 공기업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2. 예산기조

- 2009년 경제침체로 인한 높은 수준의 순차입은 공정성, 성장 및 경제 안정성을 약화시켰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을보고서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① 재정지속가능성 ② 경제성장 ③ 공정성을 예산기조로 설정
- (재정지속가능성)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은 규모의 재정긴축 시행
    - FY2017-18까지 공공부문 효율성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100억파운드 절약 계획
    - 스코틀랜드 정부에 조세와 복지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 및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부여
    - 투자 우선순위로 국민의료보험(NHS)에 대해 다년간 310억파운드 투자
  - (경제성장) 사회기반시설 투자, 고속련 인력양성·고용 지원, 북부 Powerhouse 조성
    - 도로건설에 150억파운드 투자, 홍수방지 설비 1400개 구축 등의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거점 연구기관 투자를 위한 Grand Challenges fund 29억파운드 조성
    - 고속련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용자제공과 완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25세 이하 견습생에 대한 고용주 국민보험료 폐지
    - 북부 Powerhouse를 건설함으로써 경제균형과 지역성장을 지원하고, 잉글랜드 북부 도로, 철도 프랜차이즈 등에 주요 투자 시행 예정
  - (공정성) 개인 소득공제 금액 인상,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추가 정책 시행
    - 가계지원을 위해서 FY2015-16에 개인 소득공제를 추가적으로 100파운드 인상
    - 주택구입 시 지불하는 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 개혁을 통해 왜곡을 감소시키고, 주택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s)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혜택을 부여
    - 가족여행 비용 감소를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항공 여객세를 면제
    -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모든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공정한 몫을 갖도록 규제
      - 예시로 은행 이월손실(carried-forward)을 상쇄하도록 이윤을 제한

### 3. 예산안 내용

#### 가. 세입

- 세입정책으로 FY2015-16에 총 5억 6천만파운드 규모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며, 주로 주택구입 취득세, 개인 소득공제, 비주거재산세 변화에 따른 수입 감소에 기인
- 정부는 주택구입 취득세율을 수정하여 FY2015-16에 7억 6천만파운드 세수감소 전망
    - 취득세율은 125,000파운드까지는 0%, 125,001~250,000파운드는 2%, 250,001~925,000파운드는 5%, 925,001~1,500,000은 10%, 그 이상은 12% 적용
  - 소득세 개인 소득공제액을 2015년 4월부터 10,600파운드로 상향시켜 FY2015-16에 해당 세수는 5억 3천만파운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규모기업 비주거재산세 감면 연장으로 FY2015-16에 5억파운드 세수 감소 예상

<표 VI-5> 가을보고서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가계</b>						
개인 소득공제: FY2015-16 10,600파운드로 증가	0	-530	-635	-640	-655	-655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s): 배우자에게 이전	0	* <sup>1)</sup>	*	-5	-5	-10
항공여객세: 어린이 면제	0	-40	-80	-85	-90	-95
<b>부동산</b>						
주택구입 취득세: 새 한계세율 적용	-395	-760	-840	-850	-815	-785
주택 관련: 2백만파운드 이상 재산 부과금 증가	+10	+95	+50	+45	+90	+140
<b>기업 및 고용</b>						
고용주 국민보험료 개정: 25세 이하 견 습생에 대해 폐지	0	0	-105	-110	-120	-125
비주거재산세: 소규모기업 비주거재산세 감면연장	0	-500	+70	+5	0	0
비주거재산세: '15~'16년 한도 2%로 증가	0	-125	-90	-85	-85	-85
비주거재산세: 2015-16 소매 할인 1,500 파운드로 증가	0	-130	+20	+5	0	0
비주거재산세: 일시적 경감	0	-10	-5	0	0	0
고용수당: 간병인으로 확장	0	-10	-10	-10	-10	-10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투자 및 성장</b>						
기업가(Entrepreneurs) 경감: 재투자 수익	0	0	-5	-5	-5	-5
사회적 투자 조세 경감	0	0	-10	-15	-20	-25
Peer to Peer 용자: bad debt 제거	0	0	-10	-15	-20	-25
<b>에너지 및 환경</b>						
유류 및 가스: 추가 징수 2% 감면	0	-55	-60	-50	-65	-60
유류 및 가스: 투자 지원	0	-5	-15	-15	-10	-95
홍수방지 시설설치 감면	*	-5	-5	-5	-5	-5
<b>커뮤니티</b>						
부가가치세 환급: 호스피스, 수색 및 구조 자선단체 지원	-5	-10	-5	-5	-5	-5
<b>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b>						
글로벌기업 이윤부과 세금	0	+25	+270	+360	+345	+355
법인세: anti-hybrids rule 도입	0	0	+15	+70	+85	+90
법인세: 국가 간 정보공유	0	+5	+5	+10	+10	+15
<b>조세회피·공정성</b>						
법인세: 공제 손실 회계처리	0	0	+5	+10	+240	+40
법인세: 은행 손실 규제	0	+695	+765	+705	+695	+625
비주거지: 송금기준 부과	0	0	+120	+90	+90	+90
Self-incorporation: 무형자산	+5	+30	+80	+110	+135	+155
투자 운용매니저 위장 수수료 소득	0	*	+160	+80	+65	+55
주식에 대한 인지세	*	+65	+65	+55	+50	+50
특별목적 주식	0	0	+45	+40	+40	+40
소득세: 기타 손실	0	+5	+5	+5	+5	+5
벤처캐피탈	0	-15	+30	+10	+10	+10
소득세: Salary sacrifice and expenses	0	0	+120	+90	+75	+75
세금간소화 사무소	0	-10	-5	-10	-10	-10
DOTAS <sup>2)</sup>	0	*	*	+30	+50	+70
HMRC <sup>3)</sup> : 운영 조치	0	-10	+260	+365	+145	+55
법인세: 조세회피에 대한 가중지출과 그룹 경감	0	+425	-345	-40	-30	0
<b>이전에 발표된 항목</b>						
연금 융통성	0	+60	-25	-25	+30	-10
<b>기타</b>						
Peer to Peer 용자: 원천징수	0	0	0	+60	+10	+35
<b>보건</b>						
외환 벌금 <sup>4)</sup>	+1,115	0	0	0	0	0
<b>총 조세 정책 효과</b>	<b>+735</b>	<b>-560</b>	<b>-165</b>	<b>+160</b>	<b>+190</b>	<b>-140</b>

주: 1)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2)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3) Her Majesty's Revenue & Customs

4) 정부는 외환규칙을 어긴 은행들로부터 징수한 10억파운드를 NHM 시스템의 일환으로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s practices)와 지역사회 헬스케어 시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Table 2.1에서 발췌

- 총경상수입은 소득세 및 국민보험기여금 등의 감소로 3월 예산안에 비해 전망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FY2015-16에는 6,703억파운드로 전망
- 전망기간 동안 세입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FY2019-20에는 8,030억파운드로 전망
  - 주요 수입 감소요인
    - (소득세 및 NICs) 고용성장에 비해 낮은 소득 증가율과 금리 전망으로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 민간소비 약화와 정부조달의 감소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
    - (자본수익세) 낮은 주식가격으로 인해 수입 감소 예상
    -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이자율이 낮아 정부 금융자산의 수익이 감소하여 이자 및 배당금 수입 감소가 예상
    - (유류 및 가스 수입) 유류·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입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담뱃세 수입은 2014년에 기대에 비해 수입이 낮아 향후에도 하락할 것으로 가정

<표 VI-6> 경상세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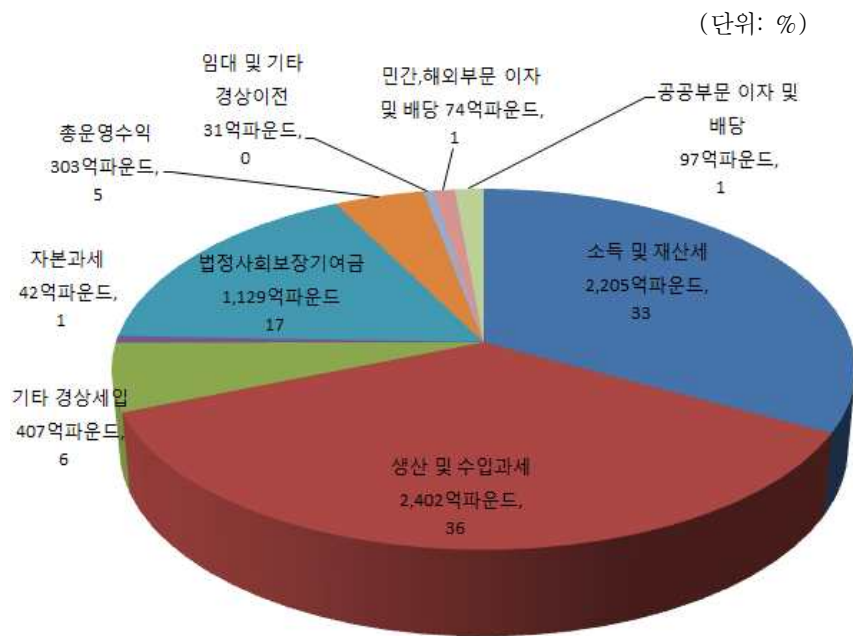
	실적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소득세	157.8	163.0	170.7	181.0	191.5	202.1	213.9
pay as you earn	135.5	137.9	142.8	151.2	161.3	171.4	181.8
self assessment	20.9	24.6	27.7	30.0	30.8	31.9	33.3
소득보전세제	-2.8	0.0	0.0	0.0	0.0	0.0	0.0
사회보장세(NICs)	107.3	109.0	112.9	122.9	128.2	134.1	140.2
VAT	106.5	110.0	114.1	117.7	121.6	125.7	130.2
법인세	40.3	41.7	43.2	43.8	44.5	45.6	45.9
onshore	36.7	39.4	41.5	42.0	42.9	43.6	45.9
offshore	3.6	2.3	1.7	1.8	1.6	2.1	1.7
법인세 세액공제	-1.0	-0.9	-0.9	-0.9	-0.9	-0.9	-1.0
석유세	1.1	0.5	0.5	0.6	1.0	1.0	1.0
연료세	26.9	27.0	27.0	27.7	28.3	29.0	29.8
비거주재산세	26.8	27.1	27.6	29.2	29.9	31.2	32.6
지방세(Council tax)	27.3	27.8	28.4	29.0	29.8	30.6	31.5
VAT 환급(refunds)	13.8	13.9	13.8	13.2	12.9	12.6	12.6

	실적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자본취득세	3.9	5.4	5.9	6.5	7.1	7.7	8.4
상속세	3.4	3.8	4.2	4.7	5.2	5.8	6.3
인지세	9.4	11.5	12.6	14.5	16.3	18.1	19.5
인지세(on shares)	3.1	2.9	2.9	3.0	3.1	3.2	3.4
담배세	9.6	9.1	9.0	9.0	9.1	9.2	9.3
산업용주정(spirits)세	2.9	3.1	3.2	3.4	3.6	3.7	3.9
와인세	3.7	3.9	4.1	4.4	4.8	5.2	5.6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7	3.6	3.5	3.6	3.7	3.8	3.8
항공여객세	3.0	3.2	3.1	3.2	3.4	3.6	3.8
보험료세	3.0	3.2	3.3	3.5	3.6	3.7	3.7
기후변화세	1.2	1.7	2.1	2.0	1.8	1.7	1.6
기타 국세(HMRC taxes)	6.5	6.7	6.9	7.1	7.3	7.5	7.8
자동차세	6.1	6.2	6.0	5.9	5.8	5.7	5.5
은행세(bank levy)	2.3	2.7	2.9	2.8	2.8	2.8	2.8
면허료 수입	3.1	3.2	3.2	3.2	3.3	3.4	3.5
환경부담금	3.3	4.8	5.8	7.0	7.6	8.2	9.1
스위스자본세	0.9	0.0	0.0	0.0	0.0	0.0	0.0
EU ETS 경매세	0.4	0.3	0.3	0.3	0.3	0.4	0.6
기타 조세	6.6	6.6	6.4	5.9	5.9	5.8	5.9
<b>National Accounts taxes</b>	<b>580.0</b>	<b>600.5</b>	<b>622.6</b>	<b>653.9</b>	<b>681.4</b>	<b>710.9</b>	<b>741.3</b>
EU 부담금 공제	-2.9	-3.0	-2.8	-2.5	-2.6	-2.8	-3.0
이자 및 배당	5.9	6.3	7.7	10.0	11.6	13.1	14.8
총운영수지	37.9	39.2	41.0	42.9	44.7	46.5	48.4
기타수입	1.5	2.8	1.5	1.5	1.6	1.6	1.6
<b>총경상수입</b>	<b>622.3</b>	<b>645.8</b>	<b>670.3</b>	<b>705.8</b>	<b>736.7</b>	<b>769.3</b>	<b>803.0</b>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1.6	-7.0	-14.9	-19.1	-22.5	-25.1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 Table 4.5.

- FY2015-16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생산 및 수입과세가 36%(2,402억파운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소득 및 재산세 33%(2,205억파운드),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7%(1,129억파운드), 기타 경상세입 6%(407억파운드)등의 순으로 구성

[그림 VI-2] FY2015-16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자료: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4.12, Table 2.29.

#### 나. 세출

- 지출정책을 통해 FY2015-16에 4억 7,000만파운드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 예상
  - 지출증가 정책은 GP(General Practitioner)관련 기금(2억 9,500만파운드)이 가장 크고, 대테러 작전기금(1억 1,000만파운드)과 철도요금 관련(9,500만파운드) 순으로 큰 규모
  - 지출감소 정책은 공공서비스 연금(3억 3,500만파운드), 재보험과 관련된 기금(1억 7,500만파운드), 복지상한 조치에 따른 영향(1억 5,000만파운드)순으로 큰 효과

&lt;표 VI-7&gt; 가을보고서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기업 및 고용</b>						
R&D 조세경감: 대기업, 중소기업 공제 증가	0	-40	-	-	-	-
R&D 조세경감: changes to qualifying expenditure	0	+20	-	-	-	-
<b>투자 및 성장</b>						
고가치 창출 연구기관	0	-25	-	-	-	-
R&D: 혁신 기금	0	-70	-	-	-	-
고등교육: 대학원생 대출	0	-15	-	-	-	-
신규 수출업자 지원	0	-20	-	-	-	-
<b>에너지 및 환경</b>						
가계 에너지효율적 사용 인센티브	-30	-70	-	-	-	-
가정 배출가스 배전관 지원	0	-30	-	-	-	-
<b>커뮤니티</b>						
학교 및 어린이	0	-40	-	-	-	-
문화 및 스포츠	-5	-30	-	-	-	-
교회 지붕 수선	-15	* <sup>1)</sup>	-	-	-	-
<b>이전에 발표된 항목</b>						
대테러 작전 기금	-20	-110	-	-	-	-
2015년 철도요금 상한	-25	-95	-	-	-	-
글래스고 도시 지원	0	-15	-	-	-	-
이주자 복지	0	+15	-	-	-	-
재보험 공동기금	+50	+175	+175	+175	+175	+175
<b>기타</b>						
공공서비스 연금	0	+335	+365	+375	+385	+390
별도적립금	+200	0	-	-	-	-
복지상한(Welfare cap)	-20	+150	-	-	-	-
<b>보건</b>						
NHS: GP 관련 기금	0	-295	-295	-295	-295	0
정신건강과 치매	0	-45	-	-	-	-
<b>총 지출정책 효과</b>	<b>+130</b>	<b>-470</b>	<b>+240</b>	<b>+250</b>	<b>+260</b>	<b>+56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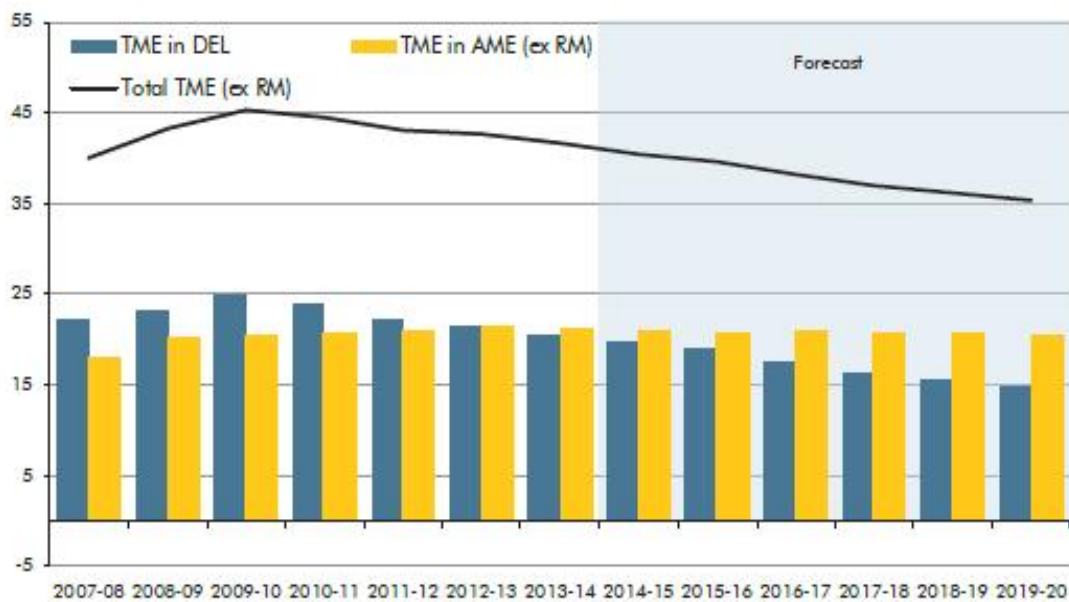
주: 1)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Table 2.1에서 발췌

- FY2015-16의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39.5%로 전망되고, 부처별 지출한도(DEL)의 감소로 인해 총관리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연간관리지출(AME) 비율은 전망기간 동안 안정적인 추세
    - 연간관리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인 복지지출은 노동가능 연령인구에 대한 수당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점과 일부 건수의 감소로 점차 하락할 전망

[그림 VI-3] GDP 대비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단위: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 Chart 4.3.

- FY2015-16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2014.3월 예산안 전망 대비 72억파운드 감소한 7,462억파운드이고, 전망 기간 동안 총관리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변화에 따른 영향(50억파운드), 기타 채무 이자비용(36억파운드), 국채율(Gilt rate)변화(14억파운드), 실업률 변화(13억파운드) 등이 주요 감소요인
  - 이에 반해 부처별 지출한도(DEL) 가정변화에 의한 영향(19억파운드), 사회보장 관련 모델링의 변화(10억파운드), 기타(5억파운드) 등이 주요 증가요인

&lt;표 VI-8&gt;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b>경상지출</b>							
자원 DEL	317.5	316.8	316.3	299.0	287.9	282.9	279.7
자원 AME	341.0	354.9	364.1	381.6	396.2	412.4	427.3
사회보장급여	206.7	215.0	218.3	222.5	227.5	234.1	240.7
세액공제	1.9	2.1	2.3	2.5	2.6	2.6	2.6
순공공서비스연금	10.9	11.8	10.4	11.4	12.2	13.2	14.3
국가복권	1.2	1.4	1.3	1.3	1.3	1.4	1.4
BBC 내국 서비스	3.2	4.0	3.7	3.9	3.9	4.0	4.1
철도네트워크	0.4	0.9	1.0	0.7	0.4	-0.2	-0.3
기타부처지출	1.4	1.0	1.0	1.1	1.1	1.1	1.1
EU분담금	11.1	11.0	9.9	11.5	9.6	10.7	11.2
지방재정지출	33.8	35.0	37.2	39.5	41.6	43.5	45.0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36.1	35.9	40.4	47.3	54.0	57.5	60.1
감가상각	27.7	28.9	30.3	31.8	33.3	34.9	36.5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1.6	11.7	11.7	11.0	10.6	10.4	10.3
R&D 지출	-7.1	-7.5	-7.8	-8.3	-8.3	-8.3	-8.3
단용(single use) 군사지출	0.3	0.3	0.2	0.2	0.2	0.2	0.2
환경부담금	3.6	4.4	5.6	6.8	7.6	8.9	9.9
지방정부 귀속연금	1.9	1.8	1.9	2.0	2.1	2.2	2.2
기타 회계 조정	-3.7	-2.9	-3.4	-3.5	-3.5	-3.6	-3.8
<b>공공부문 경상지출</b>	<b>658.5</b>	<b>671.7</b>	<b>680.4</b>	<b>680.6</b>	<b>684.1</b>	<b>695.3</b>	<b>707.0</b>
<b>자본지출</b>							
자본 DEL	38.4	41.4	41.0	40.0	40.1	44.8	48.0
자본 AME	23.0	24.0	24.8	26.0	27.0	25.2	24.9
국가복권	0.5	0.5	0.5	0.5	0.5	0.6	0.6
철도네트워크 자본지출	3.1	1.8	1.7	1.5	1.4	1.8	1.4
기타 자본지출	-0.5	0.3	0.2	0.0	0.2	0.2	0.2
지방재정 지출	6.4	6.1	5.9	7.4	8.1	6.4	6.2
공기업 지출	7.4	7.6	8.0	7.8	7.8	7.4	7.5
R&D 지출	7.1	7.5	7.8	8.3	8.3	8.3	8.3
회계 조정	-1.0	0.2	0.7	0.5	0.7	0.6	0.7
<b>공공부문 총투자</b>	<b>61.4</b>	<b>65.4</b>	<b>65.8</b>	<b>66.0</b>	<b>67.2</b>	<b>70.0</b>	<b>72.9</b>
감가상각 공제	-36.1	-37.7	-39.2	-40.9	-42.5	-44.3	-46.0
공공부문 순투자	25.3	27.7	26.5	25.2	24.6	25.7	26.9
<b>총관리지출</b>	<b>719.9</b>	<b>737.1</b>	<b>746.2</b>	<b>746.7</b>	<b>751.3</b>	<b>765.3</b>	<b>779.9</b>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0.1	-2.1	-7.2	-19.7	-23.8	-25.4	-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 Table 4.22.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 영국 의회는 FY2014-15에 1,050억파운드, FY2015-16에 1,22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계획
  - FY2015-16에 1,220억파운드 중 990억파운드는 지출절감을 통해서 나머지 230억파운드는 세수확대를 통해서 달성할 계획
  - '13년 가을보고서에 비해 60억파운드 가량 재정건전화 규모가 감소하였고, 이는 지출과 세입 재정건전화 규모가 각각 30억파운드 감소한 것에 기인
  - 재정건전화 규모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14-15에 약 78% 수준이고, FY2015-16에 81%로 증가할 전망

<표 VI-9> 재정건전화 총규모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

	2013-14	2014-15	2015-16
재정건전화 총 규모	91 (90)	105 (105)	122 (128)
지출	67 (65)	82 (82)	99 (102)
세입	24 (25)	23 (23)	23 (26)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74 (72)	78 (78)	81 (80)

주: 괄호 안 숫자는 2013년 가을보고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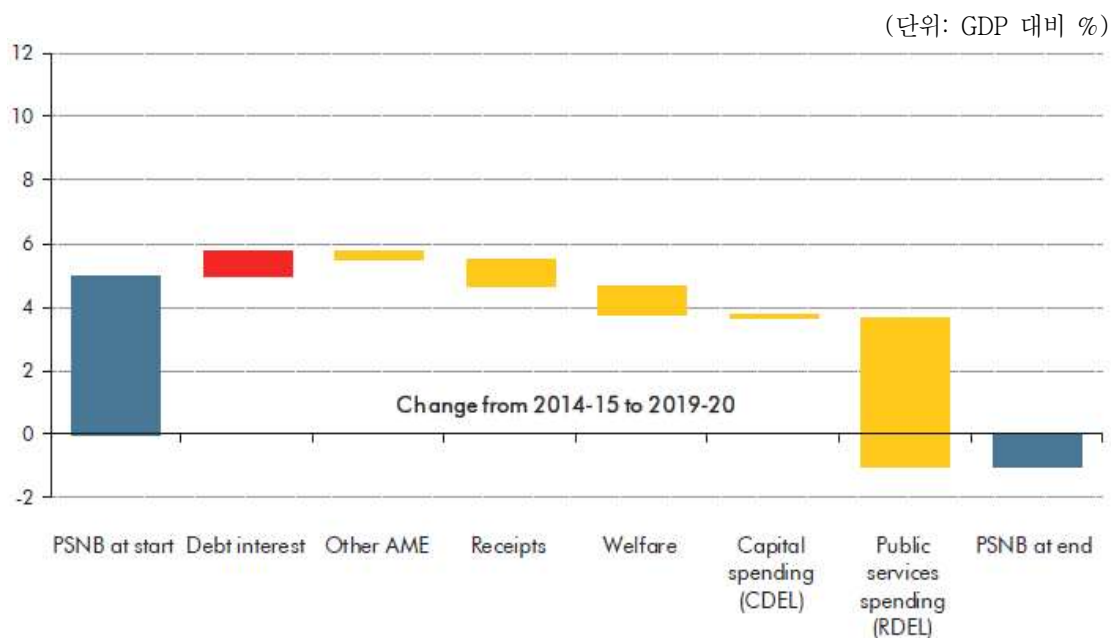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Table 1.2.

### □ 가을보고서에 도입된 주요 재정건전화 정책

- 공공서비스 연금의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고용주 기여율을 개정하여 FY2015-16 동안 연간관리지출(AME)를 335백만파운드 감축 예정
  - 군인 연금, 소방관 연금, 법원 연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부에 이양된 공공서비스 연금이 해당
-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임금 억제로 FY2014-15까지 120억파운드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FY2017-18까지 경상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불충분한 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토지를 2015~20년 사이에 15만가구에 제공할 것을 발표
- FY2014-15에서 FY2019-20 동안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항목은 공공 부분 지출로 감소분의 80%(GDP 대비 4.7%, 860억파운드)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복지 분야는 인플레이션 영향과 인구 대비 수혜자 건수 감소로 노동가능 인구 수혜<sup>60)</sup> (Working-age benefits) 지출이 감소하여 GDP 대비 0.9%의 재정적자 감축 예상
  - 수입측면에서는 총 GDP 대비 0.8%의 적자감축이 예상되고 이는 GDP 대비 조세수입 0.5% 증가와 비조세수입 0.3% 증가로 구성
    - (조세수입) 소득세와 NICs<sup>61)</sup>의 수입 전망이 긍정적이고 고소득 계층의 소득세 수입 증가 예상
    - (비조세수입) 이자율 상승에 따른 정부의 금융자산 이자수입 증가 예상

[그림 VI-4] 재정적자 증감에 기여요소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2, Chart 4.3.

60) 노동가능 인구 수혜는 구직자 수당, 고용지원 수당, 16세 미만 자녀를 둔 편부모 지원, 기타 소득관련 지원, 장애인 생계수당, 과부(Widow) 지원금 등으로 구성

61) 국민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 장기 자본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중요요소라는 점에서 2015~21년 동안 총 364억파운드의 장기 자본투자 계획을 실행할 예정
- 도로 개선에 FY2016-17 19억 5백만파운드, FY2017-18 23억 천만파운드 등 총 150억 파운드 가량의 투자를 할 예정
  - 과학기반시설에 총 69억파운드 가량의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29억파운드는 Grand Challenges 기금에 투자되고, 30억파운드는 실험실 개선에 사용
  - 홍수 방지 및 홍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6년간 23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30만 가구가 홍수방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

<표 VI-10> 장기 투자계획

(단위: 백만파운드)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총
도로	1,495	1,905	2,315	2,615	3,045	3,765	15,145
지방도로 유지보수	975	975	975	975	975	975	5,855
기타 교통시설	80	60	60	25	15	-	245
홍수 및 해변 방어물 설치	370	375	385	390	395	405	2,315
과학 기반시설	1,110	1,130	1,150	1,170	1,190	1,210	6,955
주택	955	955	955	955	955	-	4,785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공원 재개발	0	15	25	0	55	45	140
추가적 성장 조치	0	165	150	150	270	270	1,000
총지출	4,990	5,600	6,040	6,300	6,875	6,635	36,445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14.12, Table 1.7.

## VII. 호주

□ FY2014-15: 2014년 7월 ~ 2015년 6월

□ 출처 :

- *Budget Overview*, The Treasury, 2014.5.13.
- *Budget Paper No.1 ~ No.2 2014-15*, The Treasury, 2014.5.13.
- *Final Budget Outcome 2013-14*, The Treasury, 2014.9.25.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3-14*, The Treasury, 2013.12.17.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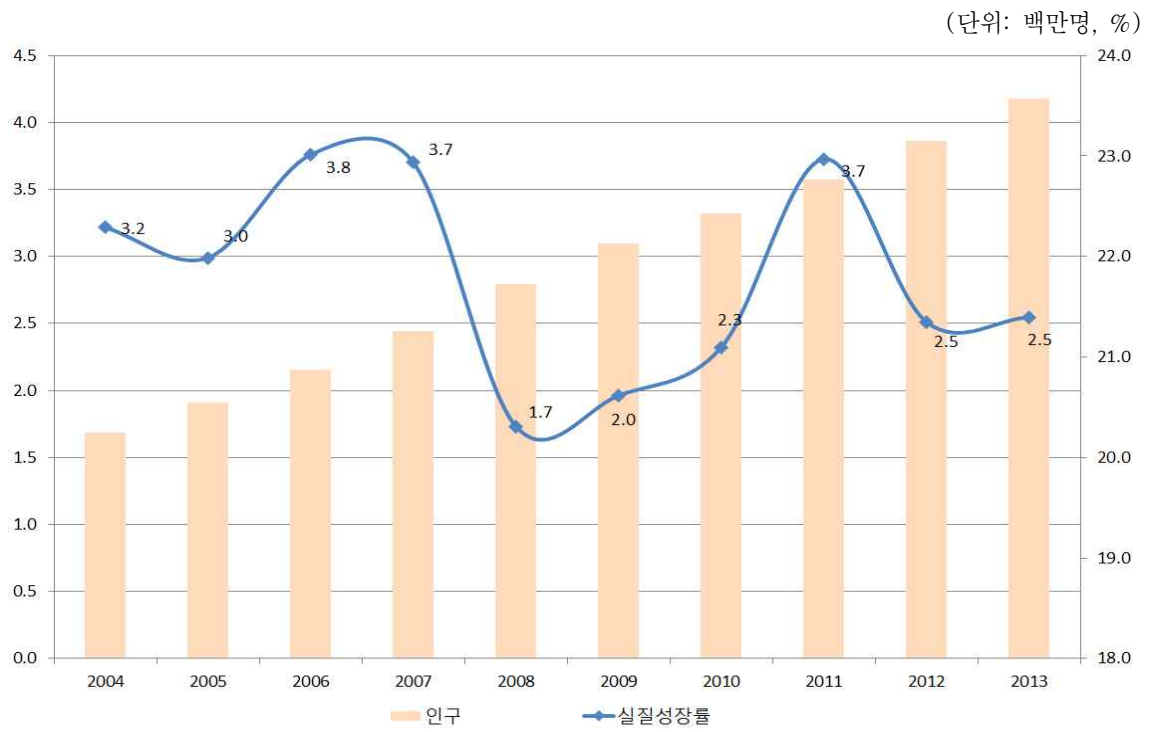
□ 환율: 1호주달러 = 약 949.32원(2014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3년 경상GDP 1조 404억 달러(우리나라 0.63배 수준)

□ 수출입의 GDP 대비 비율(명목): 2013년 기준 42.2%(우리나라 102.8%)

□ 인구: 2,357만명(2013년 추정치)

□ GDP 및 인구 추이 :



## &lt;요 약&gt;

##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호주는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실업률과 물가 또한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재정전망) FY2014-15 예산안(Budget)에서는 예산수지 및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FY2017-18 재정수지 흑자 전환 기대

## ◇ 예산기조: FY2024-25 GDP 대비 1%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향후 4년간 438억호주달러 절감 계획

- 예산 균형 회복(Delivering balanced and credible budget repair)
- 적자 감축을 위한 고통분담(All Australians contributing)
- 호주의 미래 건설(Building Australia's future)

##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14-15 재정수입은 3,913억호주달러(GDP 대비 24.0%)로 전년 대비 4.6%(171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출) FY2014-15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148억호주달러(GDP 대비 25.4%)로 전망

## ◇ 주요 재정정책

- (재정건전화) 예산적자 감축 및 FY2024-25에 GDP 대비 1% 흑자 전환 달성 목표
  - 사회보장 및 복지, 노동, 보건 등의 부문에 대한 예산절감 및 세입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 (성장정책) 생산성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각종 성장정책 실시
  - 인프라 성장 패키지 실시, 등록금 자율 결정권 부여 등을 포함한 대학교육 개혁, 노동시장 참여지원 정책 마련, 의료연구미래펀드 설립 등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4. 2.13.	FY2012-13 AFM 보고서 발표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4. 3. 2.	연금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물가연동 발표	
2014. 3.19.	불필요한 법규 및 규제 철폐계획 발표	
2014. 5. 1.	국가 감사위원회 보고서 공개	
2014. 5.13.	FY2014-15 예산안 발표	
2014. 6.29.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중간보고서 발표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4. 7. 1.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공표	
2014. 7.17.	탄소세 폐지법안 상원 통과	
2014. 7.28.	‘재난방재형 호주’ 건설을 위한 교부금 계획 발표	
2014. 9. 1.	담뱃세 12.5% 인상	
2014. 9. 2.	광산세 폐지법안 상원 통과	
2014. 9.25.	FY2013-14 결산보고서 발표	
2014.10. 2.	새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보고서 발표	
2014.12.12.	FY2013-14 통합재정보고서 발표	
2014.12.15.	FY2014-15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발표	

## 1. 경제 및 재정전망

### 가. 경제전망

- 호주는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됨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며, 실업률과 물가 또한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경제) 예산안(Budget)과 반기재정경제전망보고서(MYEFO)는 FY2014-15 실질GDP 성장률을 2.5%로 예측하였으며, 이후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택투자 및 수출 증가, 낮은 이자율, 호주달러 평가절하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관련 분야 성장 전망 등이 호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FY2014-15 명목GDP 성장률은 예산안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5% 전망(50년 만에 최저치)
      - 철광석을 비롯하여 큰 폭으로 하락한 상품가격, 낮은 임금상승률 등의 요인에 기인
  - (고용) FY2014-15 고용률은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나, 이후 견고한 성장세에 따라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Y2014-15 실업률은 6.5%로 FY2013-14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FY2017-18 5.75%까지 점차 하락할 전망
  - (물가) FY2014-15 소비자물가지수는 2.5%로 예측되어, 예산안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2%대의 안정적 물가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안정적 물가수준에 대한 기대는 완만한 임금인상 압력과 탄소세 폐지에 기인

<표 VI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sup>1)</sup> 전망

(단위: %)

	예측(Forecasts)					전망(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실질GDP 성장률	2.75	2.5	2.5	3	3	3.5	3.5	3.5	3.5
고용률	0.75	1.5	1	1.5	1.75	2.25	2	2	2.25
실업률	6	6.25	6.5	6.25	6.5	6	6	5.75	5.75
소비자물가지수	3.25	2.25	2.5	2.5	2.5	2.5	2.5	2.5	2.5
명목GDP 성장률	4	3	1.5	4.75	4.5	5	5.25	5	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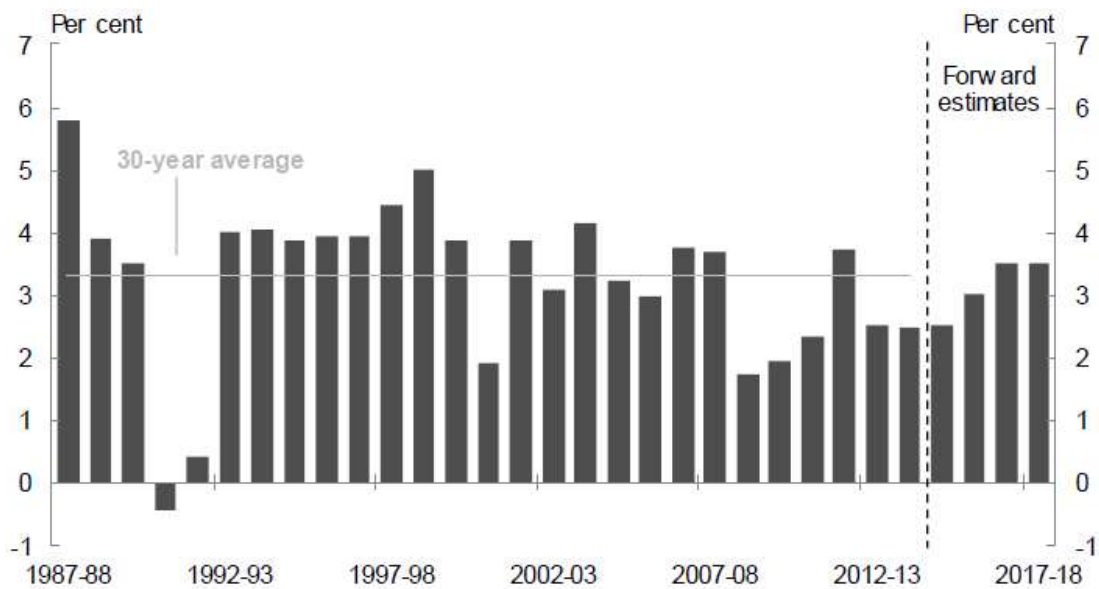
주: 1) 실질GDP 성장률과 명목GDP 성장률은 연평균, 고용률과 소비자물가지수는 2사분기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그림 VII-1] 실질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 나. 재정전망

- FY2014-15 예산안(Budget)에서는 예산수지 및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FY2017-18 재정수지 흑자 전환 기대
  - (재정수입) FY2014-15에 전년 대비 4.6% 증가한 3,913억호주달러를 기록하고, FY2015-16에는 4천억호주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 FY2014-15 재정지출은 4,148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FY2017-18(4,754억호주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259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큰 폭(42.6%)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FY2017-18에 흑자 전환 예상
  - (예산수지) FY2014-15에 298억호주달러 예산수지 적자로 전년 대비 개선된 모습이나, FY2017-18까지 예산수지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순채무) FY2013-14 순채무는 2,264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할 전망이나, 이는 '13년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전망보다 47억호주달러 개선된 수준
  
-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YEFO)에서는 예산안 대비 예산수지 및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순채무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전망기간 동안 재정수지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상의 재정수입 전망은 세수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산안 대비 하향 조정, 재정지출 전망은 예산안 대비 상향 조정됨
  - FY2014-15 재정수지 적자는 398억호주달러(GDP 대비 2.5%)로 예산안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과 달리 FY2017-18에 50억호주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순채무 규모 또한 예산안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예산안에서는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14% 수준이었으나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에서는 GDP 대비 17%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수정 전망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억호주달러, %)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Budget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재정수입(Revenue) <sup>1)</sup>	3,743	3,913	3,859	4,196	4,117	4,498	4,410	4,804	4,732
GDP 대비 비율	23.6	24.0	24.0	24.5	24.5	25.1	25.0	25.5	25.5
재정지출(Expenses) <sup>1)</sup>	4,153	4,148	4,229	4,311	4,365	4,538	4,561	4,754	4,753
GDP 대비 비율	26.2	25.4	26.3	25.2	26.0	25.3	25.8	25.3	25.6
재정수지(Fiscal Balance) <sup>2)</sup>	-451	-259	-398	-122	-272	-66	-178	10	-50
GDP 대비 비율	-2.8	-1.6	-2.5	-0.7	-1.6	-0.4	-1.0	0.1	-0.3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sup>3)</sup>	-499	-298	-404	-171	-312	-106	-208	-28	-115
GDP 대비 비율	-3.1	-1.8	-2.5	-1.0	-1.9	-0.6	-1.2	-0.2	-0.6
순채무(Net debt)	1,979	2,264	2,448	2,464	2,796	2,613	3,044	2,642	3,158
GDP 대비 비율	12.5	13.9	15.2	14.4	16.7	14.6	17.2	14.0	17.0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 (중기재정전망) 예산수지 흑자 달성을 위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 유지<sup>62)</sup>

○ (중기재정전략)

- 생산성 및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질적 투자로의 정부 지출 재분배: 인프라 투자 및 고등교육 개혁 등에 집중
- 정부 채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재정 규율 유지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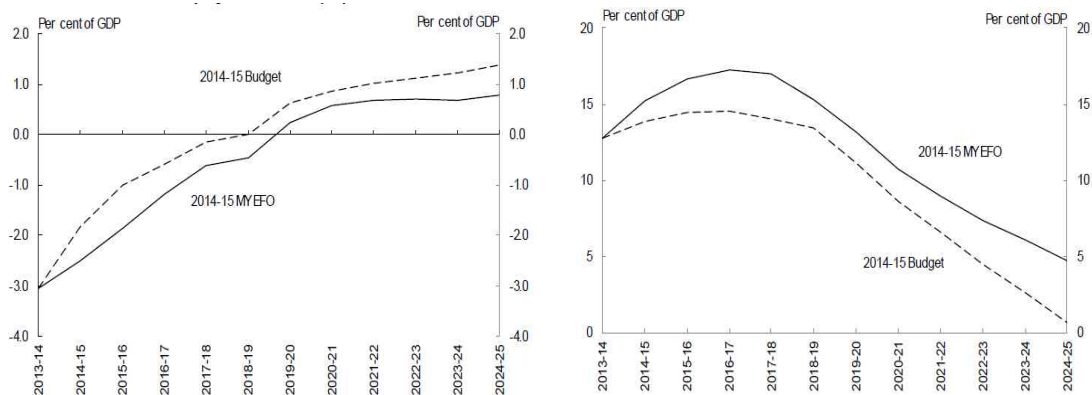
- (예산수지) FY2019-20에 예산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FY2024-25에는 GDP 대비 0.8%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62) 『주요국 예산안 2014』 VII.호주 참고

- (순채무) 순채무는 FY2016-17에 GDP 대비 17.2%로 정점을 찍고 점차 하락하여 FY2024-25에는 GDP 대비 4.7%로 개선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FY2007-08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적자폭이 점차 감소하여 FY2019-20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전망 개선은 지속가능한 예산으로의 회복을 위한 정부 공약 및 절감 조치들을 반영

[그림 VII-2]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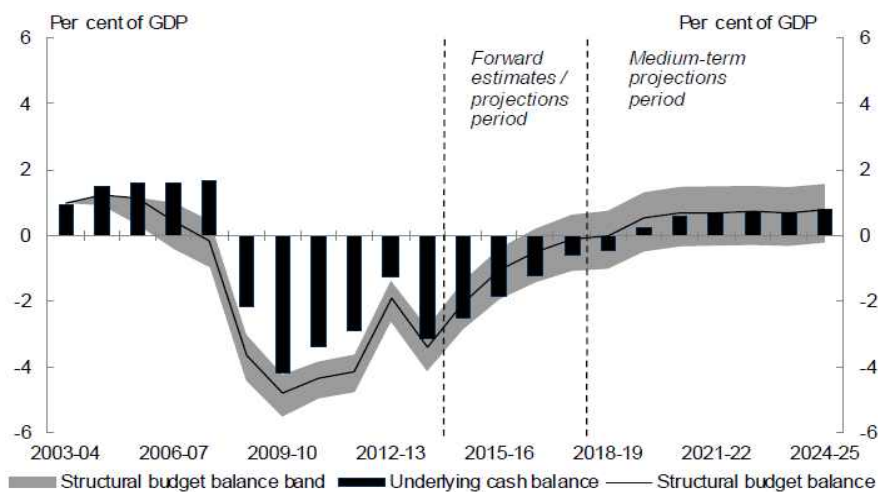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그림 VII-3]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단위: GDP 대비 %)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 2. FY2014-15 예산기조

□ FY2024-25 GDP 대비 1% 흑자재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향후 4년간 438억호주달러 절감 계획

- 예산 균형 회복(Delivering balanced and credible budget repair)
  - 정부의 경제활성화 전략(Economic Action Strategy)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지출절감 계획 포함
  - FY2023-24에 세금 경감(tax relief)을 반영한 채무는 FY2013-14 반기경제재정전망 보고서 대비 약 3,000억호주달러 감소한 6,670억호주달러로 전망
- 적자 감축을 위한 고통분담(All Australians contributing)
  - 임시 예산회복 부담금(Temporary Budget Repair Levy)<sup>63)</sup> 신설
  -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인 및 가족부문을 포함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에 대한 선별적 지급 강화
  - 실업수당, 양육수당, 개인건강보험보조금 등 각종 복지수당 관련 지수 동결(freezing indexation)
  - 정부 개입이 필수적인 부문에 집중하기 위한 정부 기관 축소<sup>64)</sup> 등
- 호주의 미래 건설(Building Australia's future)
  - 경제성장 및 장기적 경제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성장 패키지 실시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등록금 자율 결정권 부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 개혁
  - 지속가능하고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지출을 삭감하고 의료연구미래펀드(Medical Research Future Fund) 설립 및 투자 계획 수립
  - 청년 및 노년층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 한국 및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 국방부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및 지출 재조정을 통한 안보능력 강화

63) 흔히 적자세(Deficit Tax)로 통용됨

64) 정부기관 통폐합 관련 내용은 재무부 보고서(Smaller and More Rational Government 2014-15) 참고 <http://www.financeminister.gov.au/publications/docs/smaller-and-more-rational-government.pdf>  
Australian Hearing, the Defence Housing Authority, the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Registry function and the Royal Australian Mint에 대한 민영화 검토 포함

## 3. 예산안 내용

## 가. 재정수입

- FY2014-15 예산안의 재정수입은 3,913억호주달러(GDP 대비 24.0%)로 전년 대비 4.6% (171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은 3,688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할 전망(GDP 대비 22.6% 수준)
    - 광산세와 탄소세\*를 제외한 모든 세입이 FY2013-14 대비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개인소득세, 연금세, 석유세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 광산세와 탄소세의 경우 2014년 폐지법안 통과로 세수 감소 반영<sup>65)</sup>
    - '13년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FY2014-15 전망치인 3,879억호주달러와 비교하면 34억호주달러(0.9%) 상향 조정됨
  - 세외수입은 225억호주달러로 FY2013-14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FY2017-1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lt;표 VII-3&gt; FY2014-15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단위: 백만호주달러, %)

	실적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재정수입	360,160	374,267	391,348	419,612	449,840	480,394
GDP 대비 비율	23.6	23.6	24.0	24.5	25.1	25.5
조세수입	337,323	350,956	368,814	396,055	422,875	449,509
GDP 대비 비율	22.2	22.2	22.6	23.2	23.6	23.9
세외수입	22,836	23,310	22,534	23,557	26,966	30,884
GDP 대비 비율	1.5	1.5	1.4	1.4	1.5	1.6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65) 자료: 2013, 2014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 호주 참고

<표 VII-4> FY2014-15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단위: 백만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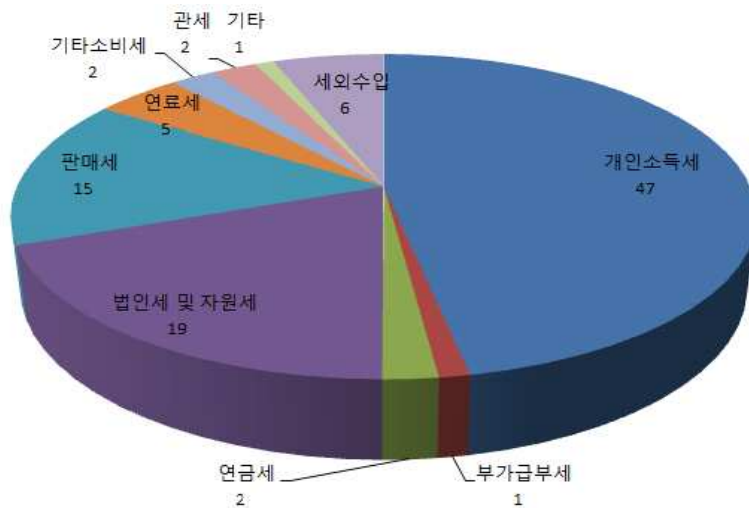
	2013-14	2014-15	증감(b-a)	
	Budget(a)	Budget(b)	금액	비율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350,956	368,814	17,858	5.1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250,140	271,190	21,050	8.4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168,380	183,590	15,210	9.0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4,140	4,440	300	7.2
법인세(Company tax)	69,400	73,230	3,830	5.5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taxes)	6,580	7,870	1,290	19.6
광산세(Minerals resource rent tax)	170	0	-170	-100.0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1,470	2,060	590	40.1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100,817	97,624	-3,193	-3.2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54,321	56,970	2,649	4.9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34,250	35,740	1,490	4.4
탄소세(Carbon pricing mechanism)	7,340	0	-7,340	-100.0
기타간접세(Other taxes)	3,190	3,295	105	3.3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23,310	22,534	-776	-3.3
<b>재정수입(Total Revenue)</b>	<b>374,267</b>	<b>391,348</b>	<b>17,081</b>	<b>4.6</b>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그림 VII-4] FY2014-15 재정수입 구성

(단위: %)



자료: Budget 2014-15 Overview, The Treasury, 2014.5.13.

- 한편, FY2014-15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는 재정수입을 예산안 대비 1.4% 감액한 3,859억호주달러로 전망
- 조세수입은 예산안 대비 1.9% 감소 전망
    - 부가급부세를 제외한 전 부문에 걸쳐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연금세(-9.4%)와 석유자원세(-14.1%)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세외수입은 예산안에 비해 13억호주달러(6.1%) 증가한 239억호주달러로 전망

<표 VII-5> FY2014-15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재정수입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

	2014-15		증감(b-a)	
	Budget(a)	MYEFO(b)	금액	비율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368,814	361,959	-6,855	-1.9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271,190	265,770	-5,420	-2.0
개인소득세(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183,590	181,400	-2,190	-1.2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4,440	4,480	40	0.9
법인세(Company tax)	73,230	70,930	-2,300	-3.1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taxes)	7,870	7,130	-740	-9.4
광물자원세(Minerals resource rent tax)	0	60	60	-
석유자원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2,060	1,770	-290	-14.1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97,624	96,190	-1,434	-1.5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56,970	56,820	-150	-0.3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35,740	34,420	-1,320	-3.7
탄소세(Carbon pricing mechanism)	0	0	0	-
기타간접세(Other taxes)	3,295	3,285	-10	-0.3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22,534	23,917	1,383	6.1
<b>재정수입(Total Revenue)</b>	<b>391,348</b>	<b>385,876</b>	<b>-5,472</b>	<b>-1.4</b>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 나. 재정지출

- FY2014-15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4,148억호주달러(GDP 대비 25.4%)로 전망
  - FY2014-15 재정지출의 전년 대비 실질 증가율은 -2.3%
  -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분야 지출이 전체의 51%를 차지
    - 일반 공공서비스,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큰 폭의 감소가 두드러짐
  
- 주요 기능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일반 공공서비스) FY2013-14 대비 큰 폭(32.1%)으로 감소하였으나 FY2014-15부터 FY2017-18까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전망
    - 호주연방은행(RBA)에 제공한 일회성 보조금(one-off grant) 감소에 기인
  - (국방) FY2014-15 242억호주달러에서 FY2017-18 276억호주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및 낮은 우선순위 정책 관련 지출 재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교육) FY2014-15 교육부문은 296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0.5% 감소
    - 한편, FY2017-18까지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한 Students First 정책(2014.1월 시행) 지원 증가로 지출 증가 예상
  - (보건) 보건분야 지출은 669억호주달러로 FY2013-14 대비 24억호주달러(3.7%) 증가할 전망이며, FY2017-18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
    - 보건부문 지출 증가는 공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 및 인구고령화에 기인
  - (사회보장 및 복지) 주로 고령화와 장애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FY2014-15에 전년 대비 3.7%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FY2014-15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지출은 48억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42.3% 감소
    - 탄소세 폐지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sup>66)</sup>의 종료에 기인
  - (교통·통신) FY2014-15에 전년 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이후 철도 및 도로 교통 부문 지출 변화에 의해 연도별 지출 변동이 심할 전망

66) Jobs and Competitiveness Programme, Energy Security Fund, Biodiversity Fund

<표 VII-6> FY2014-15 예산안 재정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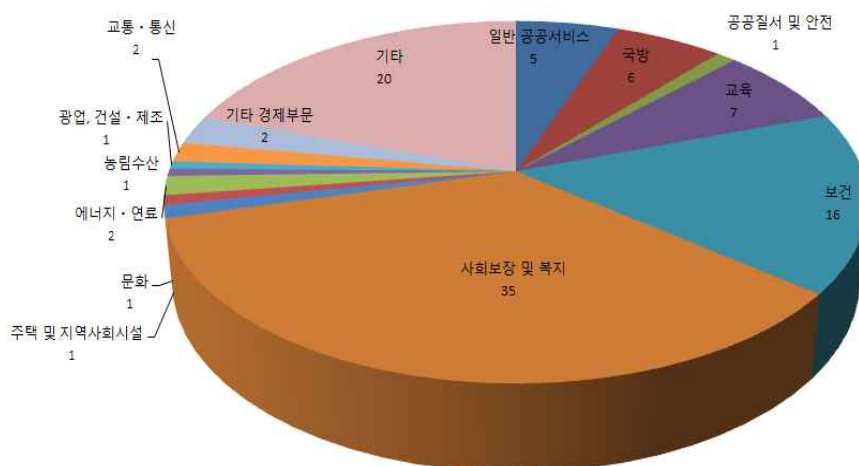
(단위: 백만호주달러, %)

	추정			전망		증감(b-a)	
	2013-14 (a)	2014-15 (b)	2015-16	2016-17	2017-18	금액	비율
일반 공공서비스	34,151	23,185	22,752	23,357	23,051	-10,966	-32.1
국방	22,840	24,197	25,249	25,719	27,632	1,357	5.9
공공질서 및 안전	4,446	4,389	4,098	4,054	4,051	-57	-1.3
교육	29,707	29,553	30,206	31,843	32,788	-154	-0.5
보건	64,511	66,892	68,203	71,797	74,856	2,381	3.7
사회보장 및 복지	140,569	145,773	149,269	158,370	169,585	5,204	3.7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8,383	4,835	4,902	5,026	5,105	-3,548	-42.3
문화	3,725	3,512	3,360	3,385	3,343	-213	-5.7
에너지·연료	7,047	7,058	7,172	7,439	7,836	11	0.2
농림·임업·수산	2,629	2,752	2,868	2,642	2,565	123	4.7
광업·건설·제조	3,139	2,740	2,580	2,595	2,504	-399	-12.7
교통·통신	8,495	7,286	9,697	10,949	7,469	-1,209	-14.2
기타 경제부문	11,263	10,670	10,366	9,646	9,485	-593	-5.3
기타	74,388	82,002	90,395	96,984	105,178	7,614	10.2
<b>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b>	<b>415,294 (26.2)</b>	<b>414,845 (25.4)</b>	<b>431,118 (25.2)</b>	<b>453,806 (25.3)</b>	<b>475,447 (25.3)</b>	<b>-449</b>	<b>-0.1</b>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그림 VII-5] FY2014-15 재정지출 구성

(단위: %)



자료: Budget Paper No.1 2014-15, The Treasury, 2014.5.13. 재구성

- 한편,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에서는 FY2014-15 재정지출 규모를 예산안(4,148억호주달러) 대비 2.0%(81억호주달러) 높은 4,229억호주달러로 전망
- 교육(5.6%), 국방(3.3%), 공공질서 및 안전(3.4%), 사회보장 및 복지(2.8%), 문화(2.5%) 분야에서 FY2014-15 예산안 대비 높은 지출증가율을 보임

<표 VII-7>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4-15	2015-16	2016-17	2017-18
■ 2014-15 예산안 재정지출	414,845	431,118	453,806	475,447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8,053	5,366	2,291	-137
- 정책결정효과 <sup>1)</sup>	2,802	2,288	253	-1,418
- 거시경제변수 변동효과	449	657	64	-189
- 공공채무이자지급	25	-118	-212	-436
- 프로그램변수 변동효과	4,802	3,106	2,621	3,133
- 기타변화효과	-25	-567	-435	-1,227
■ 2014-15 MYEFO 재정지출	422,898	436,484	456,097	475,310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2014.12.15.

<표 VII-8> FY2014-15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비교

(단위: 억호주달러, %)

	2014-15		2015-16		2016-17		2017-18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일반 공공서비스	232	257	228	218	234	220	231	217
국방	242	250	252	255	257	260	276	275
공공질서 및 안전	44	45	41	44	41	44	41	44
교육	296	312	302	318	318	330	328	340
보건	669	671	682	688	718	715	749	742
사회보장 및 복지	1,458	1,499	1,493	1,534	1,584	1,609	1,696	1,716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48	50	49	49	50	50	51	51
문화	35	36	34	34	34	33	33	33
에너지·연료	71	71	72	72	74	75	78	79
농림·임업·수산	28	28	29	30	26	28	26	27
광업·건설·제조	27	28	26	26	26	27	25	26
교통·통신	73	73	97	97	109	110	75	75
기타 경제부문	107	105	104	97	96	94	95	92
기타	820	803	903	903	970	967	1,052	1,037
재정지출	4,148	4,229	4,311	4,365	4,538	4,561	4,754	4,753
(GDP 대비 비율)	(25.4)	(26.3)	(25.2)	(26.0)	(25.3)	(25.8)	(25.3)	(25.6)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The Treasury, 2014.12.15.

&lt;표 VII-9&gt; FY2014-15부터 FY2017-18까지 예산의 주요 지출 계획

(단위: 백만호주달러, %)

	2014-15	2015-16	2015-16	2017-18
Health				
National Health Reform funding	15,343	16,492	17,555	-
Public hospitals funding	-	-	-	18,307
National Partnerships	1,270	1,002	659	672
Education				
Students First funding	14,688	15,853	17,220	18,331
National Partnerships	787	477	136	109
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				
National Skills and Workforce Development SPP	1,435	1,459	1,484	1,512
National Partnerships	400	377	516	-
Community services				
National Disability SPP	1,395	1,449	1,506	1,570
National Partnerships	937	305	424	591
Affordable housing				
National Affordable Housing SPP	1,306	1,327	1,349	1,374
National Partnerships	667	420	458	495
Infrastructure				
National Partnerships	5,658	8,028	9,108	5,668
Environment				
National Partnerships	661	712	568	213
Contingent payments				
National Partnerships	83	51	2	-
Other				
National Partnerships <sup>1)</sup>	2,595	2,535	2,536	2,635
Total payments for specific purposes	47,225	50,488	53,522	51,476

주: 1) 지방정부지원금 포함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4-15*, 2014.12.15.

## 4. 주요 재정정책

### 가. 재정건전화

- 예산적자 감축 및 FY2024-25에 GDP 대비 1% 흑자 전환 달성을 위한 긴축정책 발표
  - FY2013-14 예산적자 규모가 499억호주달러로 전망되는 등 적자규모가 증가하자 호주 정부는 이례적인 긴축예산을 발표
    - FY2017-18에는 28억호주달러까지 적자폭을 감축할 계획
  - (세입확충)
    - 임시 예산회복 부담금(Temporary Budget Repair Levy) 신설: 2014.7월부터 3년간 연소득 18만호주달러 초과 납세자들은 초과부분에 대해 2% 세금을 추가 납부
      - FY2017-18까지 31억호주달러 세입 증가 전망
    - 국민건강보험 추가부담금(Medicare Levy)<sup>67)</sup> 인상: 2014.7월부터 1.5%에서 2%로 0.5%p 추가 인상
    -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세율 인상: 2014.7월부터 퇴직연금 세율이 9.25%→9.5%로 인상되며, 향후 12%까지 인상될 계획
      - 전망기간 동안 퇴직연금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9,000만호주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
  - (사회보장 및 복지)
    - 가족세제혜택B(Family Tax Benefit(FTB) Part B) 선별적 지원 강화 및 수당 동결
      - 2015.7월부터 최연소 자녀가 6세를 넘으면 혜택이 중단되며, 이로 인한 FY2017-18까지의 재정절감분은 19억호주달러로 추정
      - 2015.7월부터 소득기준 상한선 또한 연간 15만→10만호주달러로 하향 조정되며 FY2017-18까지의 재정절감분은 12억호주달러로 추정
      - 가족세제혜택 수당은 향후 2년간 동결되며 이로 인해 4년간 26억호주달러 절감
    - 노인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현행 65세, 2023.7월 67세, 2035.7월 70세)

67) 장애복지기관 펀드(DisabilityCare Australia Fund)를 위한 재원으로 전년도도 0.5%p 인상된 바 있음

- (노동)
  - 유급육아휴직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 연소득 기준을 15만→10만호주 달러로 하향 조정
- (교육)
  - 2016.6월부터 정부 학자금융자사업(Higher Education Loan Programme; HELP) 상환 기준 소득 인하 및 대출 금리 상승으로 향후 4년간 32억호주달러 절감
    - 상환 기준 연소득 50,638호주달러로 하향 조정
    - 대출 금리의 경우 기존 CPI 연동에서 정부 채권(10년) 금리 수준으로 조정
  - 대학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던 HECS-HELP 수당 폐지 (FY2015-16부터)로 향후 3년간 8,710만호주달러 절감
- (기타)
  - 해외원조 예산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던 목표는 예산 회복 후 재고려하기로 함
  - 공공행정 및 정부부처 효율성 강화로 향후 4년간 4,330만호주달러 절감
    - 호주 국세청(ATO) 공무원 4,700명 등 16,500명의 공무원 수 감축 내용 포함

<표 VII-10> 주요 예산절감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m	\$m	\$m	\$m	\$m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reprioritised funding	612	601	1,222	1,689	3,521
Medicare Benefits Schedule – introducing co-payments for general practitioner, pathology and diagnostic imaging services	0	-14	1,128	1,153	1,201
Higher Education Reform – Expanding Opportunity –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 repayment thresholds and indexation	0	334	720	906	1,194
Family Payment Reform – maintain Family Tax Benefit payment rates for two years	-1	397	720	736	747
Family Payment Reform – limit Family Tax Benefit Part B to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six years of age	-1	-17	70	236	1,601
Commonwealth Public Hospitals – change to funding arrangements	0	217	260	133	1,163
Pausing indexation of some Medicare Benefits Schedule fees and the Medicare Levy Surcharg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thresholds	0	142	394	504	635
Maintain eligibility thresholds for Australian Government payments for three years	-2	161	295	445	579
Certain concessions for Pensioners and Seniors Card Holders	0	304	314	327	338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 increase in co-payments and safety net thresholds	0	145	307	367	449
Stronger participation incentives for job seekers under 30	0	221	345	353	329
Family Payment Reform – better targeting of Family Tax Benefit Part B	0	-4	379	430	440
Family Payment Reform – revise Family Tax Benefit end-of-year supplements	-1	-2	395	392	426
Higher Education Reform – Expanding opportunity – Expansion of the demand driven system and sharing the cost fairly	0	0	164	412	551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holders – cessation of the Seniors Supplement	0	241	260	276	282
Local Government Financial Assistance Grants – pause indexation for three years	0	96	200	308	321
Australian Apprenticeships Incentives Programme – Tools For Your Trade – cessation	0	142	255	257	260
Aged Care Payroll Tax Supplement – cessation	0	86	181	188	198
Efficiency Dividend – a further temporary increase of 0.25 per cent	0	63	124	189	193
Indigenous Affairs Programmes – rationalisation	41	163	146	118	67

자료: *Budget 2014-15 Overview*, The Treasury, 2014.5.13.

## 나. 성장 정책

## □ 인프라 성장 패키지(Infrastructure growth package)

- 정부는 올해 116억호주달러를 시작으로 FY2019-20까지 총 500억호주달러를 경제성장 및 장기적 경제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성장 패키지에 지원
  - 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총 투자금액은 1,250억호주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도로 확충 및 건설에 37억호주달러 추가 투자
    - Stage 2 of the East West Link in Melbourne 10억호주달러
    - the Perth Freight Link in Western Australia 8억 6,600만호주달러
    - 새로운 국가 고속도로 개선 프로그램(National Highway Upgrade Programme) 2억 2,900만호주달러
    - Black Spot Programme 2억호주달러 추가지원
    - Roads to Recovery Programme 3.5억호주달러 추가지원 등
  - 연방정부와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지역 성장을 위한 시드니 서부 인프라 플랜(Western Sydney Infrastructure Plan)을 발표<sup>68)</sup>하였으며, FY2023-24까지 10년간 29억호주달러를 지원
    - 시드니 서부 Badgerys Creek 지역에 제2의 공항 건설 및 주요 도로망 확충
    - 공항 건설로 인해 2035년까지 35,000개, 향후 6만개까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2060년까지 경제적 산출 효과는 240억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

## □ 대학교육 개혁(Reform of higher education)

- 고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등록금 자율결정권(2016.1월부터) 등의 내용을 포함
  - 정부는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Bachelors Degrees 이외에 diplomas, advanced diplomas, associate degree courses 등에도 교육 보조금 지원
    - 3년간 8억 2,040만호주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8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

68) 2014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IX. 호주 참고

□ 노동시장 참여지원

- 50세 이상 중·노년층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인 재취업프로그램(Restart)에 향후 4년간 3억 410만호주달러 추가 지원
  - 2014.7월부터 해당 프로그램 대상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24개월 간 총 1만호주달러까지 임금보조
  - 연간 32,000명의 중·노년층 구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공공근로프로그램(Work for the Dole Programme)의 확대를 위해 FY2014-15에 1,430만호주달러 지원
- 견습생(apprentice)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Trade Support Loans Programme에 총 5년간 4억 3,900만호주달러 지원

□ 의료연구미래펀드(Medical Research Future Fund; MRFF) 설립

-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향상된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5.1월 의료연구미래펀드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의료 연구 및 기술 수준을 확보를 위한 투자에 사용
  - 의료부문 지출삭감으로 인한 수입을 MRFF에 투자하고, FY2019-20까지 200억호주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
    - FY2022-23부터 연간 10억호주달러씩 의료 연구에 배분될 예정
  - 기존의 보건병원펀드(Health and Hospital Fund)는 의료연구미래펀드로 이전

□ 기타

- 기업 장려 정책
  - 법인세 인하: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2015.7월부터 법인세 1.5%p 인하(30.0% → 28.5%)
  - 광산세 및 탄소세 폐지: 광산세 및 탄소세 폐지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기업의 세금감면 효과
- 불필요한 규제 감축(Reducing regulation)<sup>69)</sup>
  - 조세 시스템 등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및 기업 혁신 위기를 초래하는 규제들을 폐지해 개인, 기업 및 커뮤니티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려는 의도
    - 매년 10억호주달러의 규제준수 비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

69) 정부는 2014.3.19. 불필요한 법규 및 규제 철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14 상반기 『KIPF 재정동향』 IX. 호주 참고